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113

근로자

B.ab..

14 호 7월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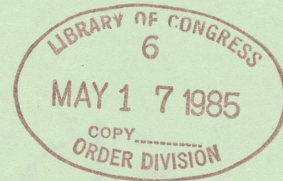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50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4호 (60)
1950년7월31일

내 용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의 방송 연설

친애하는 동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영용한 우리 인민군 군관들! 병사들!

남반부에서 활동하는 빨찌산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들의 항공대는 우리 나라의 도시들과 농촌들을 야만적으로 폭격하며 평화로운 인민들을 살륙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해군 함대들은 우리 령해에 비법적으로 침입하여 해안의 도시들과 촌락들에 살륙적 포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미 륙군 부대들은 자기들의 피묻은 발톱으로 우리 조국 강토를 더럽히면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우리 조국 남쪽 지역에 사륙하여 우리 군대의 남하를 조지하려고 전선을 벌리고 갖은 야수적 횡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강토에 자기의 군대를 들여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략탈적 흡혈귀들은 우리 조국의 신성한 령토를 침범하고 있습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조선 인민들은 언제든지 북미 합중국 령토의 촌토도 침범한 일이 없으며, 그의 자주권을 추호만치라도 침해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 인민들은 미국 인민들에게 대하여 어떤 적대적 관계를 가진 일도 없으며, 북미 합중국의 평화적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침해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자들은 왜 우리 령토에 자기의 군대를 들여 보내며, 우리 나라 내정에 군사적 간섭을 감행하며, 우리 인민들을 살륙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강토를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계 제패를 야망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인 리승만을 주권에 들여 앉히고 남조선 괴뢰 정부를 조작하여 내였습니다. 또 이 목적을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테로, 학살, 위협, 기만 등 방법으로 조선 인민이 갈망하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 파탄시키고 자기의 주구 리승만 역도들을 조종하여 우리 조국에서 동족 상쟁의 내란을 일으키고 야수적 무력 침공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유와 독립에 대한 조선 인민들의 신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우리 조선 인민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 인민들에게는 월가 자사군들의 피문은 딸라 주머니를 더욱 많이 채워주기 위한 영구한 식민지적 노예의 운명밖에는 없다고 미국 강도놈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은 우리의 평화스러운 도시들과 농촌들을 자기들의 군사 기술을 실습하는 연습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의 소년 소녀들과 부인들과 로인들을 자기들의 비행기 사격과 폭격의 관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三八선 이북에 있어서는 평양, 남포, 해주, 원산, 함흥 등 제도시들과 그 주변 농촌들이 이미 루차에 걸쳐 야만적 폭격을 받았으며, 三八선 이남에 있어서는 이미 해방된 서울, 춘천, 개성, 의정부, 주문진, 강릉 기타 도시들과 수 많은 농촌들이 미군 비행대의 포악한 폭격을 계속하여 받고 있습니다. 고용살이 학살자들은 논두렁에서 모내기에 열중하고 있는 농촌 부녀자들에게 공중으로부터 기총 사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천진 란만한 소년 소녀들의

머리 위에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은 히틀러 팟쇼 도배들과 강도적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야만적 인민 학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에 대한 자기들의 야만적 무장 침범을 소위 조선 문제에 대한 안전 보장 리사회의 결정으로 엄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보장 리사회 결정이란 것은 조선 대표의 참가가 없이 또는 쏘련이나 중국 대표의 참가 없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장 침공의 목적은 세계의 모든 인사들 앞에 아주 명료하게 되였습니다. 미국 군대가 조선에서 유·엔의 명의로 경찰의 기능만을 수행할 따름이라고 떠들어대는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의 기만적 성명들은 누구든지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유·엔 기구는 미제의 략탈자들이 유·엔의 기치 하에서 우리 조선의 도시들과 농촌들을 폭격하며 자유와 통일과 독립을 원하는 우리 인민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 아닙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의 머리 위에 포탄을 퍼부으면서도 평화를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한다고 망언을 하더라도 그들은 누구든지 기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침략 방법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선구자들인 히틀러 파시스트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미 광범히 리용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히틀러는 말하기를 「내가 평화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나는 전쟁에 대하여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원동에서의 자기의 침략을 아세아에서의 평화의 지망에 대한 허위적 성명들로써 엄폐하였습니다.

一九一〇년 八월 二十九일 일본 천황의 칙령에는 「동방에서 항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다고 하였으며, 마치 조선이 동방에서 평화의 위협으로 되는 듯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독립을 박탈하고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히틀러의 파시스트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하던 것처럼 우리 조국 내정에 대한 자기들의 무장적 간섭과 평화적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 포격을 평화에 대한 뻔뻔스러운 성명들로써 엄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장 침범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란포한 위반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더라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우리 조선 인민의 투쟁적 정신과 숭고한 기개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의 영예와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 궐기한 우리 전체 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인민 군대는 아직 청소하고 전투적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감성과 헌신적 영웅성을 발휘하였으며, 벌써 현저한 성과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군 부대들은 수도 서울을 해방하고 패잔 적군들을 추격하며 미군 항공 부대들의 야만적 폭격을 부찌르고 한강을 도하하여 한강 남안의 적 진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 뒤를 이어 인민군 부대들은 우리 나라의 공업 지대인 영등포, 부평, 인천 등 제도시들과 그 주변 지대들을 완전히 해방하고 적들의 제二 근거지로 자칭하던 수원을 해방시키고 남으로 남으로 계속 진공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홍천 방면에서 전투하던 인민군 다른 부대들은 원주, 횡성, 려주, 제천 등 제도시들과 그 주변 농촌들을 해방하고 계속 남진하여 충주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청소한 항공 부대는 적군의 전투 질서를 격파하며, 미국 무장 침범자들의 비행기들을 용감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의 용감한 매들은 가혹한 공중 전투들에서 적들이 소위 공중 요새이라고 자랑하는 비二十九를 비롯하여 수십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을 격파하고 지상 부대의 전진을 성과 있게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자랑인 전차병들은 적에 대한 자기들의 용감한 결정적 공격으로써 적의 방어진을 돌파하고 적들에게 숨결 사이 없이 적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져 무질서하게 도망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 부대들은 적들을 추격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조국의 수도 서울로 돌입하였으며, 지금은 자기의 전투기에 「서울 전차 사단」이라는 칭호를 영광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병들과 포병들은 행군에서는 강인성을 보이였으며, 공격에서는 결단성 있고 용감성 있는 병사들이라는

것을 보이여 주었습니다.

공화국의 청소한 해군들은 자기의 전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웅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함대의 력사에는 힘에 넘치는 적들을 용감히 공격하여 미국 무장 침범자들의 순양함을 격침시킨 수뢰정 분대의 위훈이 영원히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미국 무력 침범자들의 륙상 부대와 접촉하여 미군에게 심중한 첫 참패를 주었습니다.

전선에서 우리가 쟁취한 성과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궐기한 우리 인민들의 힘은 거대하며, 무진장하며, 영웅적 인민 군대는 우리 조국 강토로부터 미제의 략탈자들을 능히 구축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구축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보이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민 군대는 적들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적 전투 기술로 무장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 군대는 미군 고용병 학살자들이 싸움하는 것처럼 딸라를 위하여서나 다른 민족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사들의 애국주의는 용감성과 영웅성의 무진장한 원천으로 됩니다. 미국 략탈자들의 군대가 타국의 강토에서 싸우는 반면에 우리의 인민 군대는 전체 인민들의 사랑과 고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의 조국 강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강탈자들의 군대들은 전체 우리 인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으며, 걸음마다 그들이 감행한 죄악 때문에 복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북미 합중국의 군사적 무력 간섭은 미제의 식민지 략탈자들과 그들의 남조선 주구들에게 대한 조선 인민의 분노와 증오를 극도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용감한 우리의 청년들은 홍수같이 인민군 자원병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수는 五十여만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 곡곡에서는 무장 침범자들이 우리 나라·어느 지역에서 나타난다든지 그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조국

강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하는 사원병 부대들과 련합 부대들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인민군의 영웅적 진격에 호응하여 대담하게 궐기하고 있는 빨찌산들은 경북, 경남, 전남 도들에서 자기들의 활동구역을 확대하고 전인민들의 지지 하에서 미국무력 침범자들과 리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민군에 의하여 해방된 지역들에서는 전체 인민들이 자기들을 리승만 역도들의 경찰 테로 제도로부터 해방시키여 준 영용한 인민군들을 열정을 다하여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인민들은 반동에 의하여 해산되였던 인민 위원회들을 복구하며,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역들의 농민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정령에 의하여 조선 농민이 세기적 숙망의 체현인 토지 개혁 실시에 착수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괴뢰 정부와 조선인 지주들과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이던 전체 토지들은 몰수되여 농민들의 영원한 소유로 무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군대와 국가 기구들의 붕괴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총검의 지지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요한 리승만 괴뢰 통치 제도의 내부적 부패성을 폭로하였으며 이 제도가 조선 인민의 아무러한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여 주었습니다.

인민 군대의 승리와 전체 조선 인민이 인민 군대에 주는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확고성을 증명하여 주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예속화시키려는 음흉한 계획을 반대하며, 또는 그들이 조선 인민의 자주권을 박탈하며, 우리 조국에 대한 무장적 침범을 감행하는 것을 반대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전체 조선 인민들이 전적으로 지지하여 주고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이 승리들은 우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이 북반부에 수립된 민주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 사람처럼 다 같이 궐기한 결과이며, 공화국 남반부 인민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지지하여 우리 조국의 급속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 발전과 인민의 물질적 복리 향상의 담보로 되는 북조선에서 이미 실시

된 그러한 민주 개혁들을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도 실시할 것을 지향하고 있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미국의 정책을 실시하던 패망된 리승만 역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무장적 침범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무력 간섭이 아니였더면 미제의 주구들이 우리 조국에 일으킨 동족 상잔의 내란이 벌써 종식되였을 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벌써 완성되였을 것이며, 남반부 인민들은 벌써 리승만 역도들의 반동적 경찰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을 것입니다.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범은 전세계 민주 사회의 분노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쏘련, 중국, 불란서, 영국, 독일, 호주, 이태리, 파키스탄, 일본 등 세계 각국들에서와 미국 자체 내에서도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 하에서 우리 조국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위업은 전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의 열렬한 찬양과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이여!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악독한 원수인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을 예속시키려고 우리 강토에 강도들의 발톱을 내밀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에 결정적 공격으로 대답하여야 하겠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반드시 우리 조선 인민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며, 무진장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해방 투쟁의 투지와 지향이 얼마나 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결코 다시는 식민지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조국의 영예와 자유와 독립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그 누구를 물론하고 한 사람같이 궐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적 침탈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을 위한 신성한 전쟁에 다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 강토에서 감행한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우리의 평화적 도시와 농촌을 야만적으로 폭격하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천진 난만한 어린이들을 학살한 것을 용서하지

갈을 것입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인민들을 피에 잠근 미제의 략탈자들을 영원히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국 무장 침범자들을 반대한 투사들의 이름은 우리 조선 력사의 기록에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전체 애국자들이여!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일은 조선 인민 자체의 일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장적 침범에 주는 대답으로 원쑤들과의 가혹한 전투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들을 격멸 소탕하여 남으로 남으로 진공하고 있는 우리의 영웅적 인민 군대에 대한 원조를 백방으로 일층 강화합시다.

전체 자원물과 일체 물자들을 인민 군대의 원조에 동원하며, 미제의 략탈자들과 리승만 역도들을 급속히 격멸하기 위하여 식량과 면포와 석탄과 강철 등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일체 소비를 절약합시다.

새로운 로동 위훈을 세우며, 로동 규률을 항상시키며, 폭격의 결과에 피해된 산업 기업소들을 급히 복구하며, 경각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의 후방을 어느 때보다도 일층 더 강화합시다.

영웅적 남녀 빨찌산들이여!

아직 해방되지 못한 지역의 인민들이여!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과 그들의 주구 조선 인민들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빨찌산 운동을 전인민적 투쟁으로 전개합시다.

빨찌산들은 더욱 대담하게, 더욱 용감하게, 더욱 무자비하게 적에게 공격을 가합시다. 교통 운수, 교량, 통신 련락들을 파괴합시다.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의 병력 이동과 무기와 군수 물자 수송을 파탄시키며, 적의 무기고들과 군수 창고들을 습격 소탕하며, 적의 유생 력량을 보는 족족 없애 버립시다. 우리의 신성한 강토에 침입한 악독한 원쑤들의 발밑에서 불이 일어나게 합시다.

적의 후방에서 당신들의 영웅적 활동들은 인민 군대의 전진 속도를 일층 빠르게 할 것이며, 위대한 승리의 날을

더욱 가깝게 할 것입니다.

영용한 인민군 전사 군관들이여!

전체 조선 인민들은 거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당신들의 영예스러운 위훈을 살피고 있습니다.

악독한 침략자들을 일층 무자비하게 결정적으로 격멸합시다.

적에게 숨쉴 틈을 주지 말고 적을 용감하게 추격합시다. 우리 강토로부터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과 그들의 주구들을 깨끗이 청결합시다.

인민군 군관들이여!

현대 전투의 령도 예술을 소유하십시오. 부대들의 기동 작전을 용감하게 보장하고 적들을 포위 섬멸합시다.

우리 군대의 우수한 기술들을 완전히 리용합시다.

인민 군대의 보병들이여! 땅크병들이여! 모터찌클병들이여! 기관총수들이여! 포병들이여! 비행사들이여! 해군들이여! 당신들은 리승만 괴뢰 군대를 격멸함에 있어서 영용성과 헌신성을 이미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강토에 침입한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의 군대를 일층 용감하게 격멸합시다. 자기의 무기를 완전히 리용하여 적들을 명중합시다. 당신들이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 앞에서 신성한 임무를 실행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외국 략탈자들로부터 우리 조국을 용감하게 수호한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 장군들과 같은 우리 선조들의 영예로운 업적과 용감성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이 신성한 투쟁에서 우리의 인민군 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 격려할 것입니다.

대대 손손이 내려오면서 우리 선조들의 뼈들이 묻혀 있고 우리의 귀여운 후생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의 조국 강토로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영예스러운 깃발을 부산, 목포, 제주도 한라산까지 빛나게 날리기 위하여 우리의 정의의 해방 투쟁을 승리로 완수합시다.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자유스러운 독립 조선 만세!

「유마니떼」신문 기자 마니앙씨의 질문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장군의 대답

예주 중의 불란서 신문「유마니떼」지 기자 마니앙·마리우스씨는 二十七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을 방문하고 지금 세계 여론계의 최대 흥미를 끄으는 미제의 무력 침공에 의하여 도발된 조선에서의 전쟁 정형에 관하여 질문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김일성 장군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였다.

문 一개월 간의 전쟁 후 조선에 있어서의 군사 정세를 각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조선 인민은 이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조선의 민주 력량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의 주구인 조선 반동파들은 우리 조선에 동족 상쟁의 내란을 도발시키였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경찰 군대가 압수한 문건들은 리승만 군대가 서울에 있던 미국 군사 사절단의 지도 하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명백하게 알려질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선에 동족 상잔의 내란을 도발시키면서 조선 인민을 갈라 떼어 놓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조선에서의 동족 상잔의 내란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에 대한 무장 침범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서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아세아의 다른 지역들에서 미국의 침략 정책을 전개

하기 위하여서도 역시 요구되였습니다. 조선에서의 전쟁은 미국 전쟁 방화자들의 음흉한 계획을 실천하며 북미 합중국을 앞으로 [illegible] 계획을 실천하며 또는 북미 합중국과 예속되고 있는 나라들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일층 더 복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였습니다. 반인민적 리승만 매국역도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전쟁을 [illegible] 자기의 미국 상전들에게 준지 [illegible] 물재론 그들의 [illegible] 전쟁을 예상하고 점점 더 부패되여 가는 자기들의 처지를 호전하려 하였든 것이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선에 전쟁을 도발하면서 조선 인민의 역량을 아주 과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 군대는 인민들과 빨치산의 적극적 지지 하에서 전투의 一개월 동안에 남조선 지역의 四분지 三을 해방시키였으며, 리승만 군대를 전멸시켰으며, 조선에 상륙한 미국 군대의 많은 부분을 격멸하였으며, 미군 제二十四 사단을 완전히 소탕하고 전투를 성과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민 군대는 전투에서 단련되였으며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이전보다 점점 더 강한 군대로 되여가고 있습니다.

문 각하는 조선에서의 전쟁이 장기적 전쟁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 전쟁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만일 외국 무장 간섭이 없었다면 조선에서의 전쟁은 벌써 종식되였을 것입니다. 미국 침략은 물론 전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illegible]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미국 침략자들을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구축하고 총국적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에 [illegible] 있습니까?

답 인민 공화국 [illegible] 우리 인민 군대가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국 침략자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illegible] 인민들의 [illegible]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구한 식민지적 압박을 체험한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

자들의 노예로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인민 군대는 전체 조선 인민의 부단한 원조와 지지를 받으며 이와 동시에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동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의 인민 군대와 전체 우리 조선 인민들을 영웅적 위업에로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인민 군대가 부족하지 않게 무장되였다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민 군대의 승리할 기본 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미국 군대들은 조선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며 조선 인민을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조선에서의 미국 군대는 침략적 부정의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미국 인민들과 미국 병졸들에게 물론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미국 병졸들은 잘 싸우지 못하며 수때명씩 인민 군대에 포로로 투항하는 것이 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 미군 폭격에 의하여 입은 손해가 전쟁 종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조선에서의 미국 침략자들의 잔인성에 대하여 조선 인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미국 사람들은 조선의 도시와 농촌을 야수적으로 폭격하며 평화적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미국 식민지 약탈자들은 전쟁 진행에 대한 공인된 법규들을 란포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전쟁 대상 목표가 있어 본 일이 없는 무방어 도시들을 계속 폭격하여 주택 지역들을 무자비하게 폭격하며, 가옥들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집없이 만들며,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야만적 행위를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채택한 안전 보장 리사회의 비법적 결정으로 엄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의 기치를 조선 인민의 과로 물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미국 무장 침범은 유·엔 력사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더러운 페지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정체를 폭로하였습니다。

만일 이전에는 우리 조선에 미국의 「인도주의」에 대한 감언 리설에 기만된 천진 란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사람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인도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쓰라리게 직접 체험하고 환상을 버리게 되였습니다。

미국 무장 침범자들은 자기의 무장적 침범으로써 승리에 대한 조선 인민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포행은 미국 무장 침범자들에 대한 우리 조선 인민의 증오를 일층 더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이 야수적 포행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의 력량을 약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문 각하는 지금 전세계 각국에서 미제의 무장 침범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전체 진보적 인류들은 조선에 대한 미국 침략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격분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각국들에서 「조선으로부터 손을 떼라!」는 수천만명 사람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 협조의 표현은 조선 인민을 고무하여 주고 있으며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새 힘을 부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 각하는 불란서 인민들에게 어떤 전할 말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 나는 조선 인민의 명의로써 자유 애호 불란서 인민들에게 친선적 축하를 전하며, 불란서 인민들이 미국 무장 침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우리 조선 인민에게 주는 그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이 기회를 리용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쏘베트 동맹은 조선 인민의 진정한 해방자이며 원조자이다

허 헌

조선 인민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미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리승만 괴뢰군 잔당들을 격멸 소탕하는 조국 전쟁의 최종적 승리의 결정적 투쟁 속에서 쏘련 군대의 영웅적 투쟁으로 달성된 八·一五 해방 五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 인민들은 과거 자기의 력사에서 조국이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으며 조국의 완전 통일 독립이 없이는 완전한 국가적 민족적 행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여 왔다.

그러므로 일제 침략하의 三六년 간의 력사는 조국을 찾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해방 후 五년 간의 력사는 통일 독립의 달성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의 력사이다.

이제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힘으로 해방되었으며 그 따뜻한 원조의 손길에서 키워진 조선 인민들의 조국 남반부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으며 나아가 전체 조선 인민들을 자기의 노예로 하기 위하여 피묻은 발톱을 들여민 미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들의 괴뢰 리승만 역도의 잔당을 결정적으로 박멸하여 전인민적 조국 해방 전쟁을 완전한 승리에로 과감히 전개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날을 맞이하게 되는 감격은 지극한 바 있으며 그 의의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 ※ ※

五년 전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격멸 구축하고 우리 조국을 근 반세기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자의 악독한 노예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五년 전의 八·一五는 실로 쏘베트 군대의 의로운 투쟁에 의한 조선 인민의 재생의 날이며 력사 무대에 다시 등장한 날이다.

쏘베트 군대는 조선을 해방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쏘베트 군대는 조선을 해방시킨 후 조선 인민에게 자기 조국을 자기들의 지망대로 재건하며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지여주였으며, 민주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에게 시종 일관한 사심 없는 원조를 베풀여 주었다.

그리하여 쏘베트 군대가 진주하고 있던 공화국의 북반부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튼튼히 수립되였으며,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

쏘련의 조선에 대한 해방과 원조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민족의 독립을 옹호하는 쏘련의 전통적인 레닌—쓰딸린적 정책의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쏘련의 정책은 민족 자결을 준수하는 정책이며, 타민족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하는 정책이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하여 간섭을 용허치 않는 정책이다.

쏘련의 이 공명정대한 정책은 조선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실시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정책에서 류출되는 쏘련의 조선 인민에 대한 원조는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환기시켰으며, 그들의 창조적 노력을 고도로 앙양시켰다.

쏘련의 무한한 원조 정책과 조선 인민의 앙양된 창발적 노력의 결과로 조국의 북반부는 해방 후 짧은 기간에 조국의 통일적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강유력한 민주 기지로 전변되였다.

조선 인민들은 조국 북반부에 철석같이 구축된 민주 기지에 의거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무한한 신념으로써 투쟁하여 왔다.

쏘련의 시종 일관한 정치적, 경제적 원조 정책은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와 그의 졸도 리승만 역도들의 음흉한 책동을 폭로 분쇄하는 데 커다란 힘으로 되였다.

쏘련의 조선 인민에 대한 시종 일관한 원조는 타민족의 독립과 그 옹호를 위하여,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쏘련 대외 정책의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다.

일찌기 세계 근로 인민의 위대한 스승이며, 피압박 민족의 해방자인 쓰딸린 대원수는 쏘련의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과의 평화와 실무적인 련계의 강화를 주장한다. 이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이들 제국이 쏘련과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또 그들이 우리 나라의 리익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장래에도 이 립장을 고수할 것이다.

우리는 침략의 희생이 되고 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제민족을 지지하는 립장을 고수한다.

우리는 쏘련과 접경하고 있는 모든 린방들과의 평화

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주장한다。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이들 제국이 쏘련과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또 그들이 직접으로나、간접으로나 쏘베트 국가의 국경 보전과 불가침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장래에도 이 립장을 고수할 것이다……」

화국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시하며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제 민족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자주 독립을 위한 안전을 위한 쏘련의 숭고한 대외 정책은 쏘련 창건 이래 부절히 실현되여 왔으며 그 위신은 무한히 제고되였다。특히 접후에 있어서 이 정책은 구라파와 아세아에 있어서 해방된 제 민족들의 독립을 옹호하며 새 력사를 창조하는 투쟁을 방조하여 그들과의 동등적 친선 협조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 있어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 왔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조국의 해방된 즉시부터 조선문제 해결을 위한 시종 일관한 쏘련의 태도에서 명백히 표시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인민에게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보장한 모쓰크바 三상 회의에서와 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량차에 걸친 쏘 미 공동위원회에서 그리고 조선 문제 해결을 조선 인민 자신에게 맡기기 위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쏘 미 량군 철거의 제안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一九四八년 十월 八일 조 쏘 량국 외교 관계 설정에서 표시되였다。

조 쏘 량국 간의 외교 관계 설정은 실로 우리 민족력사상에서 가장 거대한 전변의 하나이며 새 력사의 창조 과정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 외교 관계 설정으로 말미암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비로소 당당한 독립 국가로 국제무대에로의 진출이 보장되였으며 「세계 지도에서 오랫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깃발을 가지고 세계 지도 위에 다시 빛나게 되였다」 (김일성)。

이 외교 관계 설정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거대한 것이였다。그것은 첫째로 쏘련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조선 민족이 자주적으로 독립 국가 건설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전세계에 선시한 것이며、둘째로 그 결과 세계 자유 애호 민주주의 국가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외에는 어떠한 「정권」도 조선 인민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였으며、세째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쏘련을 비롯한 모든 자유 애호 민주주의 국가 대렬 가운데 동등한 일원으로 그 진출이 보장된 데 있다。

이렇듯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조 쏘 량국간의 외교 관계 설정은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차지하게 하였으며 민족적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조선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 격려하였던 것이다。

쏘련이 조선의 통일 독립을 위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조선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시하는 자기의 정책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는 조선 인민 자체로써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하여 一九四八년 말 자기 군대를 북조선으로부터 철거한 사실에서 똑똑히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해방군 쏘베트 군대가 우리 조국으로부터 철거할 때 조선 인민들이 조선 해방의 은인인 쏘련 군대 장병들에게 보내는 서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적여 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쏘베트 군대의 장병들을 전별하면서 우리 三천만 인민의 가슴에는 영웅적 쏘베트 군대의 은공에 대한 무한한 감격이 굽어 넘치고 있습니다。이 땅의 해방과 부흥에 찌친 쏘베트 군대의 영예로운 공적은 장엄한 하늘 높이 솟은 해방탑들과 쏘련의 원조로 복구되여 증산의 연기를 뿜어 올리는 공장들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며 공화국에 흥성거리는 자유의 전원이며 창조의 열정이 벅찬 이 나라 인민들의 슬기로운 모습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위훈을 천추 만대에 내려가며 잊지 않을 것입니다。그 위훈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는 신기로운 전설인 양 자자손손 전하여지면서 인민 속에서 해방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자아낼 것입니다」

우리 조국으로부터 쏘베트 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 인민들 앞에는 해방 후 三년 동안 쏘련 군대의 원조로 말미암아 복구된 공장 철도들을 원활히 운영하여 인민 경제를 급속히 부흥 발전시킬 과업이 제기되였다。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선진 쏘련의 경제적、문화적、기술적 원조가 요구되였다。

여기에 있어서 공화국 정부는 一九四九년 三월 대표단을 모쓰크바에 파견하여 十년을 기한으로 한 조 쏘 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이 협정은 조선 인민들의 통일적 민주 독립 국가 건설의 위업에 있어서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 협정은 조 쏘 량국 간의 진실로 우호적이며 평등적인 원조 정신에서 체결되였으며、우리 공화국의 정치적、문화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립장에서 체결되였다。이것은 동 협정의 전문을 통하여 명백히 규정되여 있다。

이 협정들에는 조 쏘 량국 간의 호상 협조、동등 및 호상 리익의 기초 위에서 량국 간의 통상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량국의 인민 경제 발전의 수요에 필요한 량국 간의 부단히 증가되는 상품 교류를 보장하며 량국 간의 문화 과학 및 예술 분야에서 설정된 관계들을 배방으로 발전시키며 전문가의 파견、기술 원조 등으로 산

업 및 농업 분야에서 량국 간의 경험 교환을 강화하며 우리 신생 공화국에 쏘련으로부터 차관을 줄 것이 체결되였다.

이 협정에는 쏘련의 대소 인민들의 자주권과 자유와 내정 불간섭과 민족적 독립을 존중시하는 레닌—쓰딸린적 대외 정책의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있으며 쓰딸린 대원수의 조선 인민들에 대한 심심한 배려로써 일관되여 있는 것이다. 또 이 협정은 위대한 쏘련이 우리 민족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조선 인민들의 재반 민주 개혁과 민수 전선을 성의로써 원조하고 조선 인민들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수 많은 투쟁에서 부단히 보여 준 원조를 앞으로도 불변히 계속할 것을 기록한 력사적 문헌인 것이다.

쓰딸린 대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대소 민족 간에 동등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쏘베트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있어야 마땅하다고 인정한다. 각개 민족은 대소를 막론하고 다만 그 민족에게만 속하고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자체의 특질, 특점, 자기의 특수성을 가졌다고 쏘베트 사람들은 인정한다. 이 특점들은 각개 민족이 세계의 문화의 공동 보고에 이바지하여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풍부하게 하는 공헌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민족은 대소를 물론하고 동등한 지위에 처하여 있으며 또 각개 민족은 어떠한 다른 민족과든지 동등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바로 위대한 쓰딸린의 대외 정책의 제 원칙들이 「조 쏘 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의 전문에 명백히 구현되여 있는 것이다.

이 협정에 의하여 쏘련 정부는 우리 신생 공화국에 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을 파견하게 되여 조선의 산업을 부흥 발전시키며, 민족 간부들을 양성하며, 민족 문화를 급속히 발진시킴에 기여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조 쏘 량국 간에 호상 협조와 공동체 확장에서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장래 발전과 강성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로 될 것으로서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진정한 원조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다.

이 협정이 체결된 후 一년 동안에 우리 조국 부흥에서는 선진 기술과 경험 사업들을 요구하는 방대한 건 인민적 정신 사업이 전개되였다.

쏘련 정부는 조 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여 신생 공화국의 산업 건설에 필요한 기계, 자재, 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여 주었으며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우리의 산업들을 부흥 발전시키며 새 생산 부문들과 공장들을 건설하는 데 따

대한 기술적 원조를 주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쏘련 정부는 수다한 학자와 박사들을 파견하여 우리의 민족 간부 양성과 인민 보건 사업에 막대한 기여를 주었다. 쏘련 정부는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우리의 민족 예술 발전에 원조를 주었다.

이와 같은 쏘련의 부단한 원조는 우리의 인민 경제 재건에 명백히 반영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민족 경제는 쏘련의 시종 일관한 원조로 말미암아 급격히 장성되였다. 실례로 一九四六년도 공업 생산고를 一〇〇으로 하여 一九四七년도에는 一八九·三%, 一九四八년에는 二六三·三%, 一九四九년에는 三七七·一%로 장성되였다.

기계 생산과 경공업 생산량은 벌써 전쟁 전 수준을 초과 달성하였는바 一九四四년에 비하여 기계 생산은 二四六·九%, 경공업은 一五二·七%로 각각 장성되였다. 로동 생산성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九四七년에는 一七〇·七%, 一九四八년에는 二三五·八%, 一九四九년에는 二八三·四%로 장성되였다.

이와 같이 조 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一九四九—一九五〇년도의 공화국 북반부 인민 경제 계획의 첫해의 계획 숫자는 승과적으로 달성되였다. 조 쏘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과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결정한 원조의 결과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표현되였다.

이와 같이 쏘련이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과 같이 조 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은 대소 국가들 간에 맺어진 친선적이며 동등적 원칙에 립각한 새로운 협조의 모범으로 되는 것이다.

이 협정을 통하여 조선 인민은 쏘련이야말로 진정한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벗이며, 원조자이며,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 관계의 강화는 조선 인민의 장래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제국주의 국가들과 약소 국가들 간에는 이러한 공동적, 친선적 협정이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약소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원조이던, 동맹이던, 기회 균등이던, 어떤 협태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적으로 언제나 제국주의 국가에 약소 국가를 예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쏘련과 어떤 약소국, 및 후진 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협정은 언제나 약소 국가의 력량을 강화시키게 되며 정치, 경제적 독립을 강화시키는 원천이 된다. 그 례로써 쏘련과 동양 제국과의 협약, 일시 쏘련이 점령하였던 히틀러 블럭에 참가하였던 제국가에 있어서 쏘련은 그의 주권을 옹호하였으며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급속한 부흥과 발전을 조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제국주의국가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과 그의 영향하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사태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외국의 자본을 침입시켜 그의 상품 시장화할 뿐만、아니라 경제를 파괴하고 완전히 자기들의 예속국으로 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 실례로 되는 것은 마샬안화된 일련의 구라파 제국과 미 제국주의자의 점령하에 있던 공화국 남반부가 그것이다。

지난 五년 간의 조선에 대한 쏘련의 정책은 전체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쏘련만이 진정으로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원조자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으며、오직 쏘련과의 친선의 강화만이 우리 조국의 무한한 번영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케 하였다。

* * *

쏘련의 시종일관한 원조는 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로력과 함께 조국 통일과 독립을 지향하는 조선 인민의 피가 되며 살이 되였다。 이리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이 조선 인민 자체의 력량으로、평화적으로 능히 달성될 모든 기본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였었다。

여기에 있어서 조선 인민은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노력하였다。 지난 六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제정당 사회 단체에 대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 추진에 대한 제의를 하였다。

조선 인민의 원쑤이며 미 제국주의자의 주구인 리승만 괴뢰정부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며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하여 불법 침공함으로써 그들이 미리부터 준비하여 오던 내란을 도발하였다。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리승만 역도들을 반격하여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괴뢰 리승만 도배로 제도가 영용한 공화국 인민 군대에 의하여 여지 없이 과멸되여 가는 것을 보고 침략 준비로부터 로골적 무장 간섭에로 넘어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도시와 농촌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평화 주민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는 폭거를 감행하여 그 강도적 진면목을、전세계에 들어 내 놓았다。

정의의 전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 군대는 리승만 잔당과 미 제국주의의 강도군을 격멸 소탕하는 전투에서 빛나는 위훈을 발휘하고 있다。 침범하는 원쑤들은 격파하고 패주하는 적을 소탕하면서 영용한 우리의 인민 군대들은 정의의 진격을 개시한 이래에 이미 남반부 전역의 五분지 四 이상을 해방시키고 원쑤들의 마지막 거점인 대구와 부산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조국 강토에서 원쑤들을 완전히 소탕 구축할 날은 멀지 않았다。

쏘련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을

분격의 념으로써 이를 폭로 규탄하고 있으며 심심한 동정의 념으로써 조선 인민을 지지하고 있다。

쏘련은 유·엔에서 조선에서의 평화의 회복을 위하여、그리고 안전 보장 리사회의 합법적 구성의 회복을 위하여 제의를 하였다。 이 제안은 쏘련 정부의 불변한 평화 정책의 새로운 표현이다。 쏘련은 언제나 유·엔을 평화와 국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 인정하여 왔다。 조선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유·엔을 평화 유지를 위한 효과적 기구로 만들기 위한 쏘련의 노력은 인도 수상 네루의 서한에 대한 쓰딸린 대원수의 답서에서 여실히 표현되였다。

쓰딸린 대원수는 조선에서의 충돌을 국부화시키며 이를 급속히 평화적으로 조정할 데 대한 네루의 제의에 대하여 「중국 인민 정부를 포함하는 五대 강국 대표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안보 리사회를 통하여 조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며 「조선 문제의 급속한 조정을 위하여 안보 리사회의에서 조선 인민의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대답하였다。

쓰딸린 대원수의 답서는 조선 문제의 성당한 해결을 위하여 평화와 국제 안전을 유지하며、타민족의 민족적 자주권을 존중하며、국제 문제를 평화적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쏘련 대외 정책의 뚜렷한 표현이며 이는 또한 미 제국주의 침략자를 조국 강토에서 구축하고 통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의 절실한 리익에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다。

쏘련 대표가 八월 一일 안전 보장 리사회에 제출한 제안은 실로 그 근원을 쓰딸린 대원수의 성명에 두고 있으며 또한 조선 민족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려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표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 만행을 엄폐하려고 하고 있으며 조선에서의 전쟁의 확대를 획책하고 있다。

미국 대표는 철면피하게도 조선에서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전가시키면서 유·엔의 간판 밑에서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야수적 만행을 계속하며 미 제국주의의 독점 자본의 탐욕적 목적을 위하여 자가 예속 하에 있는 제국가 인민들을 육탄으로 리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기구를 평화 유지를 위한 효과적 기구로 만들며 조선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려는 쏘련의 노력에 의하여 미제의 악랄한 시도는 여지 없이 폭로되였고 그들의 철면피한 가면은 벗기여졌다。

쏘련 대표는 안전 보장 리사회의 석상에서의 자기의 연설 가운데서 조선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에 관한 미 영 측의 선전의 허위 날조를 철저히 폭로

하였다.

그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리승만 도당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내란이 현재 조선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 군대의 침략설을 폭로하였다.

안전보장 리사회에서의 쏘련 대표의 립장은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가장 정당한 것이다.

이렇듯 쏘련 대표는 미 제국주의 군대의 우리 조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규탄하는 한편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선 문제는 쏘련 대표의 제의대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 인민은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美·英의 어떠한 비법적인 결정도 결코 용허치 않을 것이며 끝끝내 원수를 조국 땅에서 구축 격멸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원조자인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전세계 민주 력량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을 지지하고 있다.

전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은 미제의 피묻은 손을 조선에서 떼라고 엄중히 항의하고 있다.

조선 인민과 그의 무력인 조선 인민군은 김일성 장군 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정의의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승리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의 것이다.

조선의 해방자이며 조선 인민의 원조자인 위대한 쏘련 만세!

쏘련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며 조선 인민의 친근한 벗인 쓰딸린 대원수 만세!

조선 인민의 영명한 령도자이며 승리의 고무자이며 조직자인 김일성 장군 만세!

영웅적 조선 인민군 만세!

인민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최 창 익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전민족적 영광으로 쟁취된 八·一五 해방 五주년 기념일을 조국 해방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결정적 전투 환경 속에서 맞이한다.

과거 五년 동안에 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 영용하게 투쟁하여 왔다.

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해방 이후 五년 동안의 력사는 국내외 반동 세력과의 간고한 투쟁의 력사였으며 동시에 조선 인민의 승리의 력사였다.

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 정책과 리승만 역도들의 매국 행위는 조선 인민의 민족적 숙망인 국토 완정과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로 되여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과거 五년 동안에 조선 인민의 자유 외사와 일체의 권리를 유린 박탈하고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하여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 정책을 강화하여 왔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조선은 또다시 미제의 조선 예속화 정책에 의하여 통일적 민주 독립 국가로 부흥 발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즉 인공적인 三八선을 계선으로 하여 국제 민주 력량의 지주인 위대한 쏘련 군대가 진주하였던 북조선만이 조국의 민주 기지로 전변되여 왔고 국제 반동 세력의 주력인 미국 군대가 주둔하여 온 남조선은 반(反)민주 기지로 변형되여 왔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조선 인민들은 북조선에서의 민주 건설 투쟁과 남조선에서의 구국 투쟁을 동시적으로 또는 병행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력사 계단에 처하여 왔다.

위대한 쏘련 군대가 진주하였던 북조선에서는 무장한 민주 조국 창건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이 어떠한 형식으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수행되여 왔던가?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들이 이미 체험해 온 사실에의

계하여 발한다면 북조선에서는 어느 문제를 막론하고 인민의 의사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조선 인민들이 무엇을 요망하였다면 전체 인민들의 지향에 의하여 그 일은 인민의 의사대로 진행되였고 또 인민들이 무엇을 시도(試圖)하였다면 전체 인민들의 의사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이 실현되여 온 사실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의 각분야에서 민주 조국 건설 사업이 언제나 인민의 자유 의사에 근거한 민주주의적 형식과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내용을 가진 모든 민주 과업들이 전체 인민의 거대한 민주 력량에 의하여 수행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八·一五 해방 五수년을 맞이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수행하여 온 인민적 민주주의 건설의 빛나는 업적을 날날이 찬양하며, 이를 널리 자랑할 수 있는 충분한 론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이 강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후 조국의 민주 과업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여 왔는가? 해방된 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민족적 숙망이였던 자주 독립 국가 생활이 급속히 요구되였으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인민적 민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선결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조선 인민들은 인민 정권 수립을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전체 인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착수한 정권 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였다. 근로 대중을 비롯하여 광범한 애국 인민들의 창발성과 줄기찬 활동에 의하여 전조선 각 도, 시, 군에는 인민적 정권 형태인 도, 시, 군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이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조선 민족은 곧 무한한 광명과 희망에 가득찬 인민적 민주주의 국가 생활의 새로운 력사 행정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나 해방된 조선에서 통일적 민주 정권을 수립하는 문제는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되였다. 왜 그렇게 되였느냐? 그것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 인민의 창발적 자유 의사에 의하여 진행된 민주 정권 운동이 재국주의 국가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완전히 억압되였던 까닭이다. 미군은 남조선에 주둔하자마자 곧 각급 인민 위원회를 탄압하고 그를 해산하였다. 이에 남조선에서는 인민 위원회의 활동이 정체 상태에 이르게 되였다.

사회주의 국가 쏘련 군대가 진주하고 있던 북조선에 있어서만이 민주 정권 운동은 완전히 보장되여 각급 인민 위원회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였고 날로 장성하여 왔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一九四六년 二월 八일에 북조선에서는 단결된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의 민주주의적 활동에 의하여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력사적 창건을 보게 되였다. 이 림시 인민 위원회의 조직은 위

로부터 되는 인민 정권 형태이였다. 그러나 이는 조직 당초부터 진정한 인민적 민주주의 정권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성격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조건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자기 발전 과정에서 그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一九四六년 三월 五일에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북조선 토지 개혁 법령」을 채택하고 토지 개혁 실시에 착수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왜 토지 개혁 실시를 선결 문제로 내 세웠던가? 이는 해방된 조선의 력사적 및 정치–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토지 개혁이 선결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八·一五 해방 전기(前期)의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적 예속 하에서 락후한 식민지 반(半)봉건 사회 형태를 띠고 있었다. 조선 민속 경제는 토지가 그 기본적 생산 수단으로 되여 있었고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은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얽매여 있었다.

이와 같이 락후한 사회 경제 구조를 변혁시킴에 있어서는, 즉 낡은 사회 경제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인민적 민주주의의 경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토지 개혁이 선행(先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런 까닭에 당시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에서 발포한 북조선 토지 개혁 법령 제一조에는 「북조선의 토지 개혁은 력사적 또는 경제적 필연성으로 된다」라고 하였다. 이 토지 개혁 법령에 의하여 북조선에서는 九十八만여 정보의 일본인과 친일파의 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七十二만호의 토지 없는 농민과 토지 적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였다. 그 결과에 북조선 농민들은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로부터 해방되여 민주주의적 농업 생산 부대로 개편되였고, 북조선 농촌 경리는 봉건적 생산 관계인 소작 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적 인민 경제의 물질적 토대로 개변되였다.

토지 개혁 실시에 의하여 북조선의 농촌 경리는 급속한 템포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조성되였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급진적으로 향상할 수 있게 되였으며, 식량 문제와 공업 원료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조성되게 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토지 개혁 법령은 인민적 민주주의의 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며 유효한 법령이였다. 이 법령을 한 농호가 五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이는 당시 북조선에서의 경지 총면적과 총농업 인구와의 내비성과 기본적으로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 의조(依照)하여 토지 분여에 대한

최대 한도를 정당함에 있어서 한 농호에 五정보 허장의 소유를 허여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확히 어 법령에 의하여 토지는 실제에 있어서 경작하는 농민에게 한하여 분여된 사실은 인민 경제 건설에 있어서 정당한 원칙이 아닐 수 없었다. 즉 토지 개혁 법령 제一조 가운데는 「일본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리용권은 경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동법령 제十조에는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토지 생산 수단을 기초로 하여 타인의 로동력을 착취할 수 없는 조건들을 지어 준 것이다.

첫째로 농민들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부르조아적 토지 겸병(兼併)을 방지함과 함께 불로(不勞) 지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로 농민들에게 분여된 토지는 소작 주지 못한다고 한 것은 토지 소유를 기초로 하여 타인의 로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며, 셋째로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저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토지에 대한 고리대 자본의 무하를 금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곧 토지는 경작하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준 것이다. 또 이것은 토지 문제의 해결이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건설과 완전히 합치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준 것이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토지 개혁 법령은 전체 인민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하였으며 인민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단 한달도 못되는 三주일만에 토지 개혁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게 된 사실로써 립증된다.

북조선 토지 개혁의 승리적 완수는 당시 조선 민족 경제 형편에 비추어 볼때 북조선 지역에 있어서 인민 경제 재편성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개혁에 의하여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건설을 위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당시 경제적 조건으로 보아 농업 생산의 민주화 문제는 동시에 조선 민족 경제의 민주화 문제를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 개혁의 승리적 완수만으로써 전 인민 경제의 민주화를 초래할 수는 없는 것이며, 토지 개혁은 문자 그대로 그 중심 목표가 농촌 경리를 민주화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조선 민족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 발전 법칙상 당연히 산업의 민주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산업 경제를 민주화함이

없이는 토지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농업 생산의 민주 발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족 자립 경제 체계 수립과 인민 경제의 민주주의적 건설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一九四六년 八월 十일에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발포하였는바, 즉 「조선 인민을 착취하고 조선의 자원을 일본에 반출할 목적으로 일본이 조선 내에 건설한 일제의 기업소, 발전소, 광산, 철도 등은 반드시 조선 인민의 소유로 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국가의 발전과 조선 인민의 생활 향상에 리용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발포한다.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사인(私人)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 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여 있던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 기관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 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고 하였다.

중요한 생산 수단을 국유화, 즉 전인민의 소유로 되게 한 산업 국유화 법령은 토지 개혁 법령과 같이 조선 국가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민족 경제의 민주주의적 재편성 및 그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결정한 것이였다.

이리하여 북조선 지역에서의 농업 경제와 공업 경제는 다 같이 인민 경제 체계의 기본적 토대로 완전히 재편되여 인민적 민주주의 정권의 공고한 물질적 토대로 되였다.

북조선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 제개혁은 민족 자립 경제 토대를 구축하며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 문제로 되는 계획 경제 실시의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 발전시킴이 없이는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를 확립할 수 없으며 인민 정권의 물질적 기초를 공고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북조선에서는 제 민주 개혁의 성과적 토대 위에 一九四七년도부터 유일한 인민 경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후 오늘날까지 해마다 이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제도의 민주화를 촉진시켜 왔다.

이와 같이 소련군이 진주하여 있은 북조선에서는 조선 인민의 세기적 숙망이던 여러가지의 민주 개혁과 또 그에 기초한 계획 경제 실시로써 부강한 조국 창건 사업은 날로 공고 발전되여 왔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된 조건 하에서 비로소 가능하였던 것이다. 만일 북조선 지역에서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지 않았더라면 제반 민주 개혁과 인민 경제 계획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一九四六년 二월 八일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민주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을 수반으로 하여 력사적 [illegible]

보게된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자기의 발전 과정에서 김일성 장군이 발표한 二十개조 정강에 기초하여 여러가지의 민주주의 법령들을 공포하였다. 이미 위에서 말한바 一九四六년 三월 五일의 토지 개혁 법령 발포를 비롯하여 六월 二十四일에는 로동 법령, 七월 三十일에는 남녀 평등권 법령, 八월 十일에는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 등은 언제나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으며, 거대한 인민의 민주 력량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수행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이러한 제 민주 개혁에 의하여, 인민 정권의 물질적 토대를 공고히 함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인민 정권을 법적으로 고정시키며, 그의 발전 강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一九四六년 十一월 三일에 직접적, 평등적, 일반적 비밀 투표에 의하여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선거를 진행하였다.

이 민주 선거는 승리적으로 수행되였는바, 즉 총유권자 중 九九・六八%가 투표에 참가하였고 총투표자 중에서 九七・〇六%가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서 추천한 립후보자에게 찬성 투표하였다. 이리하여 도, 시, 군 각급 인민 위원회는 민주주의적으로 일층 강화되였고 또 그는 아래로부터 위에로 올려되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고히 고정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적 민주주의 정권으로서의 자기 직능을 제한 없이 발휘하여 자유로운 자기 발전을 촉진하여 왔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제一차 민주주의 선거가 이와 같이 승리적으로 수행된 성과 위에 一九四七년 二월 一일 력사적인 북조선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대회를 평양시에서 소집하였다. 이 대회에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선거되였으며, 북조선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이 망라되였고 대의원들은 이 대회에서 북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 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였던 것이다.

북조선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대회에서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에서 발포한 제민주주의 법령들을 만장 일치로 승인하고 북조선 인민 경제 부흥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대회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실시한 거대한 민주주의 개혁의 승리적 성과를 찬양하고 그의 업적을 승인하는 동시에 조선 민족을 해방시켜준 위대한 쏘련 군대의 민주 조국 전선에 대한 진정한 원조와 조선 인민이 존경하는 민족적 영웅 김일성 장군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려 마지 않았다.

이 대회에서는 북조선 인민 정권의 최고 기관인 북조선 인민 회의를 창설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창건된 북조선 인민 회의는 一九四七년 二월 二十一일에

제一차 회의를 소집하고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를 해소하는 동시에 김일성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북조선 최고 인민 회의와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민주 조국 건설 사업의 일정한 발전 계단에서 자기 과업의 승리적 성과를 기초로 하여 지역적 형태로부터 전국적 정권 형태에로 전진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였다.

드디여 一九四八년 八월 二十五일에는 전 조선 인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남북 조선을 통한 전국적 총선거가 실시되였다. 력사적인 八・二五 총선거는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승리적으로 수행되였다. 즉 북조선에서는 등록된 총유권자 중 투표에 참가한 비률은 九九・九七%이였고 북조선 민전에서 추천한 공동 립후보자에게 찬성 투표한 것은 총 투표자의 九八・四九%이였으며, 남조선에서는 반동파들의 야수적 탄압이 강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 간접 선거를 실시하였고 전유권자 중 七七・五二%가 투표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곧 전조선 인민들이 민주 조국 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한 통일적 중앙 정부 수립을 일일 천추로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립증한 것이였다. 또한 이는 전조선 애국 인민들이 남북 조선을 포함한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통하여 미제의 조선 예속화 정책과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민족 반역자 리승만 도당의 매국 배족적 행위에 대하여 최대의 반대 투쟁을 표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남북 조선 인민들이 참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총선거의 승리적 성과에 의하여 동년 九월 二일에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인 대의원들이 최고 인민 회의 제一차 회의를 소집하고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여 력사적 장거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九월 八일에는 김일성 장군을 내각 수상으로 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를 창건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一九四五년 八월 十五일에 해방된 조선에 있어서 북조선 지역에서마는 인민 정권 수립과 제 민주 개혁 실시 문제가 상호 련계적으로 병진되여 왔으며 또 승리적으로 수행되여 왔다. 그 결과에 북조선은 강력한 민주주의의 기지로 천변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지나간 五년 동안에 승리적으로 수행된 민주 건설의 업적과 그의 발전적 전모에 대하여서는 진실한 숫자가 이를 명백히 말하여 준다.

우선 토지 개혁 실시 후에 농업 발전에 대하여 말해 보자. 토지 개혁에 의하여 북조선 농민들은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였는가? 물론 해방되였다. 또 민주주의적 인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제고되였는가? 물론 제고되였다.

그렇다면 이 결과에 북조선 지역에 있어서 농업 생산의 실적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서는 조선 농업의 주산물인 미(米) 생산고의 장성 숫자만 들어도 족히 할 수 있다。즉 토지 개혁을 실시한 첫 해인 一九四六년의 미 생산고를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七년에는 一〇九%、一九四八년에는 一四〇·六%、一九四九년에는 一三九·八%로 증가되였다。이 장성 비률 중에서 一九四九년도의 생산 비률이 一九四八년보다 저하된 것은 혹심한 한재에 기인되는 것이며 만일 一九四九년도에 한재가 없었더라면 농업 생산 발전 속도에 비추어 전년도에 비하여 훨씬 더 제고되였을 것이다。

북조선 지역에서 농업 생산이 이와 같이 급속히 발전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세기적인 토지 개혁을 승리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이루어진 성과인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 산업 국유화를 수행한 성과에 대하여 말한다면 생산 수단의 중요 부분을 국유화함으로써 북조선 로동자들은 과거 일제 시대에 강요 당하여 오던 자본가적 착취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해방되였으며、북조선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적 인민 경제 건설에 있어서 당당한 주인적 지위에로 향상되였다。이리하여 북조선 지역에서의 공업 생산은 급속도로 장성되였다。그 대표적인 실례로서는 산업성 산하 각부문의 생산 실적에 의하여 설명된다。즉 一九四六년의 생산 실적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七년에는 一八九·三%、一九四八년에는 二六三·三%、一九四九년에는 三七七·一%의 장성 비률을 보이고 있다。또한 인민 정권의 옳은 시책에 의하여 개인 기업 생산 역시 장성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북조선 지역에서 공업 생산이 이와 같이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오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의 실시 및 로동 법령의 실시 등에 의하여 모범 로동자 및 기술자를 비롯한 전체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 제고와、로동 기능 향상과、급속한 선진적 기술 무상풍에 의한 애국적 증산 투쟁에 기인된다。

농업 및 공업 생산의 장성은 필연적으로 상품 류통을 증가시키게 하였다。

상업 체계에는 국영 상업 및 소비조합 상업이 있는바 여기에서는 국영 상업 류통면에 대한 실적만을 들어 말하면 一九四六년의 상업 류통액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七년에는 七四五·二%、一九四八년에는 一、四一九·八%、一九四九년에는 一、九五六%라는 급속한 장성률을 보이고 있으며、특히 一九四九—一九五〇년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 중 상품 류통액 계획숫자에 의하면 一九五〇년에는 二、五九一·二%의 장성이 예견되고 있다。이리하여 현재 국영 상업은 전체 류통 부문에서 완전히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개인 상업 역시 자유롭게 발전되어 왔다。

산업、농업 및 상업의 이와 같은 발전은 국가 재정을 보다 더 공고 발전시켰으며 또한 국가 재정의 발전은 인민 경제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켜 왔다。

국가 재정에 대한 그 장성 정형을 알기 위하여 국가 예산을 말한다면 국가 종합 예산 집행에 있어서 一九四七년도 집행 실적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八년도에는 一七三·六%、一九四九년도에는 二三三·一%로 장성되였고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마지막 해인 一九五〇년도 국가 종합 예산 총액은 세입 세출이 각각 二六、七二二、七四八천원으로 계산되였는바 이는 一九四七년도 집행 실적에 비하여 二九八%의 장성으로 된다。

국가 예산의 이러한 장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민주 제개혁 실시와 그에 기초한 수차의 인민 경제 계획 초과 달성에 의하여 인민 경제 축적의 장성과 인민 소득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국가 재정 발전의 기초로 되는 견고한 물질적 토대가 구축된 까닭이다。또한 과거 일제 시대에 있은 五十八 종목에 달하는 온갖 가렴 잡세를 철폐하고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세금 제도를 수립한 것과 국가 사업의 확대 강화에 기인되는 것이다。

국가 재정의 공고 발전은 공화국 금융 토대를 확고히 하였다。특히 一九四七년 十二월에 실시한 성공적 화폐 교환 사업의 승리적 성과는 원(圓)의 가치를 제고시켰으며 물가를 저하시켰다。

오늘 공화국의 국가 재정 금융은 질적으로 건실성을 가진 자성 강화를 보게 되였으며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 건설의 력사 행정에서 부강한 조국 창건 사업을 재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인민 경제의 이와 같은 발전과 민주 정치의 발전은 민주주의 민족 문화 건설 사업을 촉진시켰다。경제 토대의 공고 발전이 없이는 그의 상층 구조인 정치와 문화의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이 반면에 정치 문화의 발전은 경제 발전을 추진시킨다。그러므로 과거 일제의 야만적 식민지 문화 정책에 의하여 말살 당하였던 조선 민족 문화는 인민 정권의 민주적 문화 정책과 인민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 북조선 지역에서마는 찬란한 개화(開花)를 보게 되였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해방 후 五년 동안에 북조선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문화 건설 사업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여 왔다。우선 교육 사업부터 말하면 八·一五 해방 후 일제 사대와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완전히 숙청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교육 제도를 수립하였다。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과거 五년 동안에 민주 조선의 신 세대를 진보적 과학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이것은 교육 사업에 대하여 설명되는 매 년차적인 각급 학교 수와 학생 수의 장성 비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명	一九四六년도대 一九四七년도의 장성 비률			一九四六년도대 一九四八년도의 장성 비률			一九四六년도대 一九四九년도의 장성 비률		
	학교수 %	학생수 %	졸업생 %	학교수 %	학생수 %	졸업생 %	학교수 %	학생수 %	졸업생 %
인민학교	一二一·二	一一三·四	一二五·五	一三〇·七	一一六·六	一三二·九	一五六·四	一二四·六	一六四·八
초급중학교	二七四·〇	三〇七·〇	三〇九·〇	三五五·八	三九二·〇	六五四·六	四二六·八	四六六·四	一、一二四·〇
고급중학교	—	—	—	一七五·〇	一五四·一	四九·九	二二一·三	二四二·〇	八八·八
전문학교	二〇三·六	二一〇·〇	七五·〇	二四六·四	二八〇·八	一二二·四	二四七·〇	三四五·一	二〇六·一
대학	一五〇·五	一九二·三	—	二七五·〇	二五〇·四	—	三七五·〇	三八二·四	一、四八〇·〇

주、장성 비률은 一九四六년도를 一〇〇으로 기준한 것임

여기에서 인용한 표는 단지 교육 기관의 중심적인 각급 학교 및 학생 수、졸업생 수의 장성 비률을 말하였을 뿐이다。이 외에도 성인 학교、직장 기술 학교 등 허다한 교육 기관에서 수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 왔으며 또 이 역시 해마다 장성되여 왔으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는 바이다。

공화국 북반부의 교육 시설과 학생 수는 一九五〇년도 하반기에 이르러 더욱 확충될 것이 예견된다。즉 신학년도인 一九五〇년 九월부터는 조선 인민의 숙망이던 초등 의무 교육 제도가 실시될 것이며、이에 따라 二四八、〇〇〇여명의 학령 아동들이 인민 학교에 입학하게 되여 인민 학교 학생 총수는 실로 一、四九九、〇〇〇여명에 달하게 될 것이다。또한 一九五〇년도 교육 부문에 관한 계획 지수에 의하면 초급 중학교 및 고급 중학교의 학생 수는 四八三、〇〇〇명、전문 학교 학생 수는 四二、三二一명에 달할 것이며、대학에 있어서는 十五개의 각종 대학에 六、五一五명의 학생이 새로 입학할 것이며、一、九八一명의 졸업생을 내게 될 것이 예견된다。특히 과거 일제 시대에는 대학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북조선 지역에서 十五개의 대학이 설립된 사실은 인민 교육 정책의 정당성을 립증하여 준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선전 문화 사업은 어떠한 발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중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출판 사업을 말하면 해

방 전에는 출판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문판 뿐이였으나 오늘에 있어서는 一九四九년도 한해 동안에 간행된 것만 하여도 신문은 三一종으로서 그 발행 부수는 二〇六、四二三、六三五부이며、잡지 四六종에 발행 부수 五、四四二、五〇六부、도서 五八七종 발행 부수 五、七五〇、六四四부가 발간되였다。이 외의 기타 문화 선전 사업 역시 거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해방후 북조선 지역에서는 보건 부문에 있어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그 중요 부문만을 례거한다면 一九四六년 六월 二十四일에 발포된 로동 법령을 실시한 결과에 로동자 사무원들은 八시간 로동제의 혜택을 입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 보험법에 의하여 일제 시대에는 상상조차할 수 없었던 무료 치료、무료 정 휴양、유급 휴가 등 가지가지의 국가적 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 이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로동자 사무원들의 정휴양자 수의 증가 비률에 있어서 一九四七년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八년에는 一九三%、一九四九년에는 二四九%로 장성되였으며、一九五〇년도에는 一九五〇년도 계획 지수에 의하여 六五、三二六명이 정휴양할 것이 예정되고 있다。이 외에도 특히 지적할 것은 각급 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 강화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공장、광산、기업소、제조소 등 생산 지대에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병원과 진료소가 없는 곳이 없으며、더우기 과거 일제 시대에 근대적 의료 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농촌에 있어서 지금은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의료 시설이 완비되였고 무의면(無醫面)이 없게 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와 같이 정치、경제、문화 등 각분야의 민주 건설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다。그 결과에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현저한 전변을 가져 오고 있다。과거 일제 통치 시대에 일제와 조선인 자본가 및 지주에게 가혹한 착취를 당하여 오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들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있으며、경제적으로 수차의 인민 경제 계획 초과 달성에 의하여 유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인으로 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산업성 산하의 로동자 수입만 보더라도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九四八년도에 비하여 一五·一%나 증가되였으며、토지개혁의 혜택을 입은 농민들의 수입도 현저히 향상되였으며、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 수준 역시 날로 제고되여 왔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 모든 민주 건설의 찬란한 성과와 인민들의 민주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새로운 민주 질서를 능히 유지할 수 있는 내무 기관의 사업이 철벽 같은 진용으로 배여 있으며、이와 함께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침해로부터 우리 조국 강토

물 방위하기 위한 민족 보위력이 역시 불패의 힘으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八·一五 해방 五주년을 맞이하게 된 오늘날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상에서 말한바 제민주개혁의 승리적 성과 위에 인민 경제 건설은 거대한 발전을 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러한 성과는 어데 근거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첫째로 이 문제는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였다는 점에서 설명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권이 인민의 손에 없었다면 인민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있은 북조선 지역에서는 력사적으로 인민이 요망하여 오던 모든 민주 개혁이 인민 정권의 법령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이것은 미제의 조선 침략 정책에 의하여 정권이 인민의 손으로부터 박탈되여 리승만 역도들에게 장악되여 있던 과거의 남조선 정세와 대조하여 볼 때 더욱 명백해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민주 개혁이 실현되지 못하였고 인민 경제가 파탄되였으며, 근로 대중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생활은 기아 상태에 이르렀으며, 더우기 반동들의 야수적 폭압에 의하여 수십만명의 애국 인민들이 학살 당하였고 또 불법 검거될 수 十만명 중 수만명이 루옥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이 문제는 국제 민주 력량의 선봉체 [illegible]오이며 조선 민족을 해방시켜 준 위대한 쏘련 군대의 진실한 원조에서 설명되는 것이다。

만일 북조선 지역에서 쏘련 군대가 정권을 조선인민에게 넘겨 주지 않았다면, 또 만일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의 애국 투쟁에 대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지 않았거나, 민주주의 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원조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북조선 지역에서는 인민 정권의 발전도, 민주개혁의 성과도, 계획 경제의 실시도, 기타 인민들의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도 있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국제적 반동 세력의 예봉인 미제국주의 군대가 주둔하여 온 과거 남조선의 실정과 대비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즉 남조선 지역에서의 미군정 당국은 조선 인민의 창발적 자유 의사에 의하여 수립되였던 각급 인민 위원회를 당초부터 비법적으로 탄압한 것을 비롯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남조선 지역을 미제의 식민지로 화하려는 정책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남조선에서는 인민 주권은 강제 해산 당하였고, 민주주의적 제정당 사회 단체들은 지하에 들어가게 되였고, 민족 경제 및 민족 문화는 파탄되였으며, 인민들은 아무런 권리와 자유도 없이 일제

시대 이상의 참혹한 생활 상태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다。

세째로 이 문제는 과거 五년 동안에 국제 민주 세력의 급속한 장성에 조응하여 북조선 지역에서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이래로 근로 대중을 선두로 광범한 애국 인민들의 장엄한 민주 조국 건설 투쟁과 공화국 정부의 옳은 시책에 의하여 쟁취된 승리적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현 력사 계단에 있어서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 한 민족이 자주적 독립 국가 생활을 영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과 그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 여하가 결정되는 까닭에 인민 주권이 수립된 북조선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제 민주 개혁과 인민 경제 건설의 위업이 승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八·一五 해방후 五년 동안에 정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여 온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있어서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다 인민적 민주 조국 건설의 기본 토대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였다。 그 결과에 오늘 북조선 지역은 부강한 조국 창건의 튼튼한 민주 기지로 전변되여 왔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이것으로써 만족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 인민의 숙망인 국토 완정과 조국 통일이 완수되지 못한 까닭이였다。

위대한 쏘련 군대의 영웅적 전투에 의하여 해방된지 五년이 지나도록 조선 인민의 이러한 숙망은 왜 달성되지 못하였던가? 만일 남조선 지역에 미 제국주의의 침탈 세력이 둥지를 틀고 있지 않았더라면 조국의 민주화는 북조선 지역에 한할 것이 아니고 전조선 지역에서 실시되였을 것이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一九四五년 十二월에 채택된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三상 결정을 파탄시키지 않았더라면 또 쏘미 량군을 동시 철거할 데 대한 쏘련의 제의를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벌써 수년 전에 통일된 완전 독립 국가로 부흥 발전되였을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정당한 국제적 결정인 모쓰크바 三상 결정을 파탄시킨 후 조선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서 딸라로 매수한 거수기를 발동하여 비법적인 소위 「유·엔 조선 위원단」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벌써 두차례나 남조선에 파견하여 왔던 것이다。 또 쏘련 군대는 이미 一九四八년 十二월 말에 북조선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대는 소위 「군사 고문단」이라는 명목 밑에 남조선 지역에 계속 수둔시켜 왔던 것이다。 어찌 이것뿐이랴?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의 앞잡이 매국노들로 하여금 一九四八년 五월 十일과 一九五○년 五월 三十일 총 두번이나 미국 놈

해 공군의 무력 시위와 야수적 탄압으로써 망국적 단선을 강제 실시케 하여 매국적 남조선 괴뢰 정부를 조작해 내였고 또 그를 유지하려고 광분하여 왔다.

결국 미제의 이와 같은 조선 침략 정책에 의하여 조선은 지역적으로 량단되여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민족분렬을 초래하게 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예속화 정책과 매국노들의 망국 배족적 매국 행위를 어느 때든지 수수 방관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놈들의 파렴치한 책동을 매 걸음마다 파탄시켜 왔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장엄한 민주 건설 투쟁으로써, 남반부 인민들은 영웅적 구국 투쟁으로써 서로 내적(內的) 련계성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인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진하여 왔다. 조선 인민들의 이러한 애국 투쟁은 어느 한 계급이나 한 계층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였다. 조국의 민수화와 통일과 독립을 지향하는 각계 각층의 민주 력량을 총 집결함으로써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 요구되였다. 즉 매국노를 제외하고는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조국의 통일적 완전 독립을 쟁취하는 문제가 공통한 목적이였다. 그런 까닭에 남북 조선의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 단체는 벌써 一九四六년부터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이 통일전선 주위에 굳게 집결된 전 인민적 민수 력량으로써 미제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던 것이다.

남북 조선의 민전은 일정한 자기 발전 과정에서 또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에 비추어 조국 통일과 자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가일층 촉진시킬 목적으로 一九四八년 四월 十九일 평양시에서 남북 조선의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五四五명이 참가한 남북 련석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남북 조선 련석 회의는 력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였다.

첫째로 이 회의에는 민족 반역자 리승만 계렬의 극소수인 매국노를 제외한 우익 중간과 좌익 등 남북 조선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총 망라되였으며,

둘째로 이 회의에서는 조선 인민의 거족적 당면 투쟁 과업인 망국적 「남조선 단독 선거」를 철저히 반대 분쇄할 것과 외군 철퇴 후 전조선 정치 협상 회의를 소집하고 「조선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할 것 등의 결정을 채택하는 동시에 「북조선의 제 민주 개혁은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있어서 민주 조국 건설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선 인민들은 남북 련석 회의의 성과적 기초 위에 五·十 망국 단선을 파탄시켰고 국토 완정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게 되였다.

남북 련석 회의 이후 국내외 정치 정세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즉 국제적으로는 쏘련을 선두로 한 국제 민주 력량이 더욱 더 장성되였고 국내적으로는 반동파들이 허위와 날조로써 조작하여 놓은 남조선 괴뢰 정부를 타도 분쇄하려는 인민들의 투쟁 력량이 일층 강화되였다.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남북 조선의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은 새로운 투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一九四八년 六월 二十六일 평양시에서 남북 조선 제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조선 인민들은 이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八·二五 총선거를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동년 九월에는 공화국 헌법 채택과 조선 민주주의 인딘 공화국 선포와 최고 인민 회의의 창설과 중앙 정부 수립 등 력사적인 위업들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조국 력사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였다. 전조선 인민들은 조선 민수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를 절대 지지하였고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 장군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보다 더 치렬한 구국 투쟁을 전개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국내외 원쑤들은 인공적인 三八선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화하며 매국노들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발악적으로 날뛰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들은 원쑤들의 이러한 책동을 용허할 수 없었으며, 자기의 숙망인 국토 완정과 조국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잠시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였다.

一九四九년 六월 二十五일에는 남북 조선의 민전을 해소하고 전조선의 광범한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을 총망라한 전국적이며 단일 조직체인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하는 대회가 평양시에서 개최되였다. 이 대회에서는 력사적 의의를 가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전조선 인민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서 제의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절대 지지 찬동하였다. 오직 리승만 역도들만이 이를 반대하여 나섰으며 또 놈들의 책동에 의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그 후 一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조국 통일 민수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과거 一년 동안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체계적 기초 위에서 一九五〇년 六월 七일에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다시 제의하였으며 또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는 이를 추진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보다도 분렬을 원하며 독립보다도 예속을 원하며 인민의 리익보다도 사리 사욕을 귀중히 여기는 매국노들은 금년에도 역시 조국 전선에서 제의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파탄시켰다.

리승만 역도들의 이러한 매국 배족적 행위는 언제나 그의 상전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수 하에 감행되여 왔다. 미국 침략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백방으로 방해하였다. 놈들

운 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채우려는 흉책으로써 리승만 도당으로 하여금 소위 「북벌」을 오래 전부터 준비시켜 왔다.

이와 같이 동족 상쟁의 내란 도발에 광분하여 오던 리승만 역도들은 전조선 인민의 일치한 요구인 조국 전선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 실현 제의에 대하여 내전 도발로써 대답하였던 것이다. 즉 지난 六월 二十五일 리승만 괴뢰 정부 군대는 미제의 직접 지휘 하에 三八 이북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개시하여 모험적인 국내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국에 조성된 엄중한 내란 사태에 비추어 공화국 인민 군대와 경비대에게 즉시 반격전을 전개할 것을 명령하였다. 영웅무쌍한 조선 인민 군대는 공화국 정부의 명령대로 적의 침공을 격파하며 패주하는 적들을 추격하는 장엄한 섬멸전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진공한지 불과 六十시간만에 조국의 수도 서울시를 매국 노들의 마수로부터 해방시켰다. 이리하여 리승만 괴뢰 군대의 주력은 괴멸되였으며 매국적 괴뢰 정부는 사실상 붕괴되고 말았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 정책은 총파탄의 운명에 놓이게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교사하여 일으킨 조선 국내 전쟁이 개전 초기에 벌써 리승만 역도들이 련전 련패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진전됨을 보자 뻔뻔스럽게도 조선 인민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에 나섰다. 즉 미국 침략자들은 소위 「북벌」을 위하여 자기가 줄이 五년 동안이나 길러낸 리승만 괴뢰 군대가 영웅한 조선 인민 군대의 반격에 의하여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되자 파렴치하게도 조선을 무력으로써 강탈하려고 들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가증스럽게도 이러한 비법적인 무력 침공을 소위 유·엔의 「경찰적 행동」이라는 명목으로써 그의 침략적 본질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즉 미국 침략자들은 유·엔 안보의 二대 상임국인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의 초청도 없이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를 개최하고 조선 내전에 대하여 미국이 무력으로 간섭할 데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유·엔을 악용하여 유·엔의 간판 뒤에 숨어서 자기의 침략적 륙, 해, 공군을 공공연하게 조선 내전에 출동시켰다. 놈들은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조선의 해상을 봉쇄하는 등 언어 도단의 불법적 침략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침략적 미국 륙군은 멸망에 빠진 리승만 괴뢰 군대를 뒤로 밀쳐 놓고 서울 이남 각 전선에서 조선 인민군의 남진을 감히 가로막아 보려고 시도하였고 그의 공군은 조선의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 맹폭하여 수많은 문화 시설들과 인민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의 해군은 조선의 항구와

어촌들에 야만적 함포 사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비법적인 무력 침략은 실패를 거듭하였으며 또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총궐기한 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야수적 무력 침공에 놀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는 도리여 조선 인민들에게 원쑤에 대한 더욱 불같은 적개심을 격발시켰을 따름이다. 조선 인민 군대는 각 전선에서 강도적 미국 군대와 리승만 괴뢰군 패잔병들을 격멸 소탕하여 남반부 선지역 중 거의 전부를 해방시키고 계속 진격하고 있다.

조선 인민군의 영웅적 진격과 함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총궐기한 전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쑤록 가일층 치렬해 지고 있다. 로동자들은 전선에 소요되는 물자를 더욱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애국적 증산 투쟁을 전개하여 수많은 기업소들에서는 전쟁전의 생산 수준을 二배 — 三배로 돌파하고 있다. 농민들은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기 위하여 농산물 증산과 조기 현물세 완납 운동에 궐기하였다. 애국적 청년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전선 출동을 탄원하여 나섰다. 남북 반부의 수많은 청년 남녀들은 혹은 인민 군대로, 혹은 의용군으로 매일같이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선에 더 많은 비행기와 땅크를 보내기 위한 군기 헌납 운동은 전인민적 운동으로서 더욱 광범화하고 있다. 특히 영웅 무쌍한 빨찌산들은 적의 수송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그의 후방을 교란시키며 조선 인민군의 진격을 도와 적에게 심대한 위협을 주는 선투 행동을 일층 치렬히 전개하고 있다. 벌써 해방 지구에서는 즉시 인민 위원회들이 복구되였고 새로운 민주 질서가 확립되고 있다. 해방 지구 인민들은 각급 인민 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고 토지 개혁과 기타 민주 개혁 실시에 착수하였다.

조선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강력한 국제적 지지와 성원 하에 진전되고 있다. 평화와 민주의 성새인 위대한 쏘련을 비롯하여 전세계 각국의 평화 애호 인민들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고 외치고 있다. 수억만에 달하는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쑤록 더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 공산당들과 직맹, 녀맹, 청년 단체, 문화 단체들에서는 매일같이 조선 국내 전쟁에 대한 미국의 비법적 무장 침공을 항의하는 동시에 조선 인민에게 힘찬 형제적 격려와 성원을 보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 총궐기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고립되지 않았다. 인민이 승리하는 二十세기 五十년대에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국내외 원쑤들과 싸우는 조선 인민의 최후 승리에 대하여서는 전세계 인민들이 벌써 의심하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

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조선 인민을 예속화하려는 미 제국주의 무력 침공은 반드시 파탄되고야 말리라는 것을 전세계 인민들은 굳게 믿고 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 인민들은 해방 이후 五년 동안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적 민주주의 건설을 위하여 실로 간고한 투쟁을 거듭하여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남 북 조선에서 각각 상이한 투쟁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북조선에서는 민주 건설 투쟁을, 남조선에서는 구국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투쟁은 결코 호상 분리된 투쟁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긴밀한 내적 련계성을 가진 투쟁이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제도는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과 독립의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되였으며 또 이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 요구의 기준으로 되여 왔다。

북반부에서 이미 쟁취한 민주 건설은 남반부 애국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 격려하는 물질적 힘으로 되여 왔다。

八·一五 해방 五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조선 인민들은 국제 민주 력량의 일환으로서 국제 반동파들의 새 전쟁 도발 행위와 미제의 조선 예속화 정책과 국내 매국노들의 온갖 책동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옹호하며 우리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치렬히 전개하고 있으며 그 투쟁 력량은 불패의 힘으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지나간 五년 동안에 조선 인민들은 국제 국내 반동파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언제나 승리하였다。 또 사회 발전 법칙에 의하여 앞으로는 더 큰 승리를 계속 쟁취할 것이다。

위대한 쏘련의 원조와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 인민들의 성원과 전세계 평화 옹호 인민들의 지지 하에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전조선 인민과 조선 인민 군대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을 반드시 위대한 승리로써 종결지을 것이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앞길에는 빛나는 승리와 무한한 영광이 있을 뿐이다。

인민 군대의 승리적 진격에 호응한 남반부 인민 유격대의 투쟁

리 기 석

잔악 무도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침략적 야망을 실현할 목적으로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 역도들에 의하여 도발된 북반부에 대한 침공은 영용한 우리 인민 군대의 무력 앞에 여지 없이 분쇄되였다。

영용 무쌍한 공화국 인민 군대는 패주하는 리승만 잔당의 무력과 우리 조국에 대하여 무력 침공을 감행하는 미 제국주의의 군대를 추격하여 맹렬한 진공을 전개한 결과에 개전 六주간에 三八선 이남 강원, 황해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그리고 경상 남북도의 절반 이상이란 방대한 국토를 원쑤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적들은 경상도 일각에서 림종의 발악을 하고 있다。 우리의 영용한 인민 군대는 원쑤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적 소탕전을 전개하면서 영웅적 진공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미 제국주의 군대와 매국 역적 리승만 잔당을 우리 국토에서 완전히 소탕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 독립을 쟁취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되였다。

정의의 군대인 조선 인민 군대는 미 제국주의의 조종 하에 동족 상잔의 내란 도발에 광분하던 리승만 역도들의 소위 「북벌」 단행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패를 망상하며 남의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침해하며 타국 인민을 예속화시키려는 미 제국주의의 범죄적 무력 침공에 대하여 또한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인민 군대는 아직 청소한 군대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 군대는 세계 제국주의의 아성(牙城)인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무력을 격멸하는 정의의 전쟁에서 승리적 전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불멸의 영웅성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인민 군대의 이와 같은 혁혁한 승리의 원인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 수상이며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은 지난 七월 二十七일 「유마니떼」 신문 기자 마니양씨와의 일문 일답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우선 우리 인민 군대가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국 침략자들과·그

수구를 반대하여 진두하는 그것으로써 설명됩니다. 인민 군대의 매개 장병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구한 식민지적 압박을 체험한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인민 군대는 전체 조선 인민의 부단한 원조와 지지를 받으며 이와 동시에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동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의 인민 군대와 전체 우리 조선 인민들을 영웅적 위업에로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인민 군대가 부족하지 않게 무장력이 보장되였다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민 군대의 승리할 기본 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미국 군대들은 조선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며 조선 인민을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조선에서의 미국 군대는 침략적 부정의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미국 인민들과 미국 병졸들에게 물론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미국 병졸들은 잘 싸우지 못하며 수백명씩 인민 군대에 포로로 투항하는 것이 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로 조선 인민 군대의 위력의 원천은 그가 바로 조선 인민의 아들 딸—특히 근로 인민의 자제들로 조직되었고 따라서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며 또한 영웅적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애국적 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여 그의 선진적 애국 사상과 혁명 전통과 고귀한 투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창건된 군대이며 또한 위대한 소련을 비롯하여 세계 민주 진영과의 공고한 친선과 단결의 토대 위에 장성하는 군대이라는 데 있다.

그리하여 김일성 장군은 일찌기 우리 인민 군대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우리 인민 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능히 보위할 수 있으며 조직있고, 규률있고, 선투력이 훌륭한 강대한 인민의 무장력으로 장성되여 있습니다. 우리 인민 군대와 경비대는 언제든지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 적을 소탕할 수 있도록 대기되여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바 이는 금번의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하는 정의의 전쟁 마당에서 여실히 확증되고 있다.

인민군 부대의 승리적 진격에 호응하여 남반부 인민들도 원쑤를 소탕하는 전쟁에 궐기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포학 무도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무력을 분쇄하고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잔당을 소탕하는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영용한 조선 인민군과 함께 그와 혈연적 관계를 가진 빨찌산들의 영웅적 활동과 그의 위훈들을 듣게 된다. 그것은 미 괴뢰군 총사

령부의 보도에도 자주 지적된 바와 같이 「인민군 부대들의 진공에 호응하여 적의 후방에서 인민 유격대들의 활동이 일층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적들에게 심중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빨찌산들의 활동과 전투는 정규군(正規軍)의 그것과 달라서 그의 전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현재 입수된 보도들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을 고려에 넣게 될 때 실지 전투와 전과는 몇배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화국 남반부 빨찌산 투쟁은 우리 국토가 三八선의 장벽으로 량단되여 있은 조건하에서 또 남조선을 식민지 예속화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야수적인 인민도살 정책을 대항하는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의 무장투쟁으로써 시작되였다.

그리하여 직접적으로는 망국적 五·十단선 반대 투쟁을 계기로 하여 一九四八년 四월 三일 영웅의 섬 제주도를 발화점으로 한 애국적 무장 투쟁은 이여서 한라산으로부터 지리산에, 지리산으로부터 태백산 오대산에 열화와 같이 퍼졌으며 一九四八년 말에 이르러서는 남조선의 전산악 지대를 제압하였었다.

남반부 인민들의 이같은 애국적 무장 투쟁에 당황실색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도당들은 유격 부대를 「토벌」 하기 위하여 온갖 살륙 정책과 초토 전술을 다하였으며 소위 「국방군」 「경찰대」 「대로단」 등 그들의 대부분의 병력을 여기에 총집중하였었다. 그러나 원쑤들이 수개 사단까지 동원하여 감행한 야수적 「동기 토벌」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치 밑에 김일성 장군의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의 혈통을 계승한 애국적 인민들의 빨찌산 투쟁을 종식시키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리여 「남반부에 있는 인민 유격대들은 지난 一년 동안의 가렬한 투쟁을 통하여 그들은 군사적으로 장성되고 정치적으로 단련되여 인민들 속에 뿌리를 박고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로써 자기 대오를 점점 확대하여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며 기묘하게 적의 근거지를 습격하며 적을 매복 기습하는 전투들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였다」 (김일성 수상의 공화국 창립 一주년에 제한 보고)。

그리하여 一九四九년에 들어와서는 산악 지대로부터 평야 지대에까지 빨찌산의 활동 구역을 넓히여 의성, 영주, 거창, 안동 등지의 군 소재지를 기습하여 유격 부대의 날로 강대 장성하여 가는 력량을 증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주, 광주 등 대도시에까지 진공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리승만 괴뢰 정권의 통치 기반을 뒤흔들어 놓았다. 실로 남반부 인민 유격대의 이같은 치렬한 투쟁에 의하여 리승만 괴뢰 정권의 말단 기판은 벌써부터 마비 상태에 빠지고 그의 기능은 완

전혀 상실되고 말았던 것이다。

남반부에 있어서의 유격전구는 호남 유격전구、지리산 유격전구、태백산 유격전구、령남 량개 유격전구 등으로 크게 나누게 된다。 이같이 유격 부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투쟁이 치렬하여 감에 따라서 원쑤들은 하루라도 저들의 잔명을 더 연장시키고자 전력량을 「유격대 토벌」에 총집중하였다。 놈들은 一九四九년 겨울부터 유격전구에따라 五개의「토벌 전구」를 정하고 각 전구에 「토벌 사령부」 까지 두고서 더욱 발악적인「토벌 작전」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놈들은 수 많은 촌락들을 불사르며 수백만 주민들을 정든 고향으로부터 축출하고 수十만의 고아들을 거리에 방황케 하였다。 이리하여 놈들은 남조선의 촌락을 폐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천추에 씻지 못할 놈들의 이같은 죄악적 만행도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일어선 남반부 인민들의 애국적 빨찌산 투쟁을 꺾지는 못하였으니 놈들의 이른바 두번째의 「동기 토벌」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그의 실례로서 장흥 한치(寒峙) 전투를 비롯하여 경주 단석산(斷石山) 전투, 안동 황학산(黃鶴山) 전투 등 많은 전투에서 적은 심중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며 놈들은 부득이 소위 중점「토벌」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었다。

물론 원쑤들과의 이 가렬한 투쟁에서 우리 유격부대들은 제주도의 리덕구를 비롯하여 최현(崔鉉)·김지회·리호제 등 기타 수많은 빨찌산 투쟁의 영용한 지휘자들을 잃게 되였다。 그러나 그들이 흘린 고귀한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인민 유격대들은 원쑤들의 「동기 공세」를 완전히 패배시켰으며 가장 곤난한 시련을 돌파한 후 자기의 대오를 정비하고 전투 경험을 살리여 자기들의 활동 구역을 더욱 확대하며 강력한 해방구를 창설하는 새로운 전투 태세로 옮아갔다。

그러나 남반부 인민들의 二년여에 긍한 이상과 같은 무장 유격투쟁은 오늘에 와서 본다면 하나의 커다란 준비 계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실로 남반부 인민 유격대는 오늘의 결정적 순간이 올 것을 예기하고 정치 사상적 무장과 전투적 훈련을 쌓아 온 것이다。

그들은 항상 공화국의 정강을 받들고 공화국 헌법을 남반부에까지 실현시키기 위하여 또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선언서를 받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도구인 「유·엔조선 위원단」을 배격하며 리승만 괴뢰 정권을 타도 분쇄하는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수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 장군의 한일 무장 유격대의 고귀한 혁명적 전통과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을 계승하여 자기들의 일체의 활동을 관통시켰으며 공화국 정부의 시책과 김일성 수상의 호소에 언제나 동원될 수 있는 애국적 충성심으로 배양되여 왔다。 그들은 항상 민주 조국 건설의 기지인 북반부를 우러러 보며

조국 보위의 성새인 조선 인민 군대에게 무한한 신뢰감을 가졌으며 날로 장성 강화되여가는 애국적 민주 력량에 용기를 북돋우며 승리에 대한 확신심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므로 一九五〇년 六월 二十五일 새벽 매국 역적 리승만 괴뢰 정권의 군대가 三八선 전역에 걸쳐서 이북 지역을 불법 침공하여 동족 상잔의 내란을 도발하였을 때 남반부 인민 유격 부대들은 二十六일 전체 조선 인민에게 호소한 김일성 장군의 방송 연설에 일제히 호응 궐기하였다。

「공화국 남반부의 남녀 빨찌산들은 유격 운동을 일층 맹렬히 더욱 용감히 전개하며 유격대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망라하며 해방구를 확대하며 또는 창설하며 적의 후방에서 적들을 공격 소탕하며 적의 작전 계획을 파탄시키며 적의 참모부들을 습격하며 철도、도로、교량들과 전신、전화선 등을 절단 파괴하며 각종 수단을 다 하여 적의 전선과 후방 련락을 차단하며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며 인민의 정권 기관인 인민 위원회들을 복구하고 인민 군대에 적극 협조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이 호소는 곧 전쟁 상태에 들어선 남반부 인민 유격대의 행동 지침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남반부 인민 유격대는 전쟁 개시 벽두부터 조선 인민 군대의 진격에 호응하여 맹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남조선 동해안 일대에서는 주민들의 열렬한 원호 밑에 주요 군 읍들에 육박 돌입하며 많은 부락들을 해방시켰다。즉 이남 강원도 울진 방면 유격대들은 六월 二十六일 울진읍에 돌입하여 경찰서를 습격 소탕하고 울진읍을 해방시켰으며 린접 녕월군에서 폭동에 궐기한 녕월 탄광 로동자 부대들과 이에 호응 궐기한 녕월군내 인민들과도 합세하여 녕월읍을 해방시켰다。 이와 함께 경주、울산、영덕 방면에서 활동 중이던 인민 유격대들도 살륙 진공하여 온 조선 인민군에 호응하여 부근 일대를 노도와 같이 휩쓸어 악질 반동 분자들을 처단하고 인민 대회를 개최하여 공화국기를 높이 게양하고 즉시 인민 위원회 복구 사업과 토지 개혁을 위한 제반 준비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입수된 부분적인 전과들에 불과하다。 김일성 장군의 호소를 받들고 리승만 괴뢰군을 추격하여 진격하는 조선 인민군에 호응하여 인민 유격대가 남반부 전지역에 걸쳐서 총궐기하였다는 것은 저 남해에 떨어져 있는 영웅의 섬 제주도에서도 이날 인민 유격대들이 원한에 사무친 원쑤들을 무찌르고자 산악 지대에서 평지를 향하여 진격을 개시하고 주민들의 협력 밑에 적들을 소탕하고 많은 촌락들을 해방시키면서 조선 인민군의 상륙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립증할 수 있다。

이제 단편적으로나마 그 후에 계속 보도된 빨찌산 부대들의 활동과 그 전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아래와

같다。

一、신라 남북 지방

여기에서는 주로 지리산 인민유격대들이 활동하고 있는바 그 활동 중심은 전남 구례、곡성、광양、순천、장흥、광산、화순군들과 전북 순창、임실、무주 및 전주 린접군들이였다。 인민 유격대들은 조선 인민군의 반공전이 개시된 초기에 있어서는 주로 경찰지서를 습격 소탕하고 괴뢰 경찰과 민보단원 등 악질 반동 분자를 숙청하는 공작과 부락민들의 군중 대회를 통하여 정치 해설 공작을 하였으며 빨찌산을 청원하는 광범한 애국 청년들을 편입시켜 무장 대오를 확대 강화하였다。 그러나 대전시가 해방되고 조선 인민군의 주력이 전격하여 오게 되자 이에 호응하여 전라 남북도 전지역에 걸쳐서 빨찌산 부대의 맹활동이 전개되였으며 패주하는 원쑤들의 후방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과의 협력 하에 적의 퇴각로를 파괴 차단하여 많은 전과들을 거두었고 조선 인민군과 합류하여 시 군 읍 면의 해방 전투에 적극 참가하였다。

二、경상 남북 지방

여기에서는 지리산 태백산 지구의 빨찌산 부대들이 주로 활약하였는바 이보다도 개전과 함께 울진 포항 등을 거쳐서 상륙한 조선 인민군 부대가 직접 그곳 빨찌산들과 합세하여 어느곳에서 보다도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북 성산、선산、안동、군위、경주、영수군 등과 경남 합양、거창、산청、하동、진주、밀양、김해、기장군 등의 빨찌산들은 기동적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지서들을 소탕하는 것은 물론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지원을 얻어 안동、대구 등의 도시를 직접 진공 위협하였으며 조선 인민군의 급속한 진격에 의하여 패주하는 적부대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도로、교량、철로 등을 파괴하며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트럭、기차 차량 등을 기습 전복시켜 무기들을 탈취하는 등 처음부터 본격적인 게리라전을 전개하였다。 때문에 조선 인민군 총사령부의 보도에는 특히 경상 남북도의 유격 부대의 전과를 거듭 지적하고 있다。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경상 남북도의 일부 지방의 최종적인 치렬한 전투와 함께 이 지방의 빨찌산 부대의 활동도 더욱 치렬 격화하여 가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국 통일을 위한 금번 해방 전쟁에 있어서 남반부 빨찌산 부대들은 영용한 조선 인민군의 쾌속적인 진공에 호응하여 퇴각하는 적의 후방에서 적들의 교량、도로、전신、전화 련락을 파괴하고 적군의 이동과 후방으로부터의 공급을 방해하여 적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주었으며 조선 인민군의 진격을 방조하는 직접적인 전과를 거두면서 있다。 특히 빨찌

산 부대들의 활동에 대한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의 협력과 지원은 원쑤들을 완전히 고립시켰으며 적의 전후 활동에 막대한 장해를 주고 있다。 미 침략군대에 종군한 유·괴 기자까지도 「여기가 전선이라든가 적이 어디있는가 하는 혈한 전쟁은 아니다。 그것은·미국병이 있는 곳에는 몸에 무장을 지닌 분장한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명을 올리며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면 남반부 빨찌산들의 이상과 같은 맹렬한 활동과 그의 혁혁한 전과는 어데서 온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궐기한 그들이 二년 여에 걸쳐서 온갖 곤난을 극복하고 오로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할 오늘이 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서 불요불굴의 투쟁 력량을 축적하여온 결과이며 또한 어떠한 곤난한 전투 환경 아래에서도 김일성 수상이 령도하시는 공화국의 기치 밑에 조국 통일의 위업이 실현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여 왔으며 조국 보위의 성새인 영용한 조선 인민군의 철석 같은 무력에 더욱 고무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원쑤들의 마수에 희생된 빨찌산의 지휘자 리덕구、리호제、최현、김지회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우들의 골수에 맺힌 원한을 풀 날이 닥쳐왔으며 무참하게 희생된 부모 형제 처자들의 원쑤를 갚을 기회가 왔다는 데서 더욱 적개심에 불탔으며 분가하게 되였다。 또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무력이 직접 조국의 땅을 짓밟게 될제 그들의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은 더욱 불타게 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남반부에서의 빨찌산 활동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개시된 그날부터 료원의 불길 같이 남반부 전역을 휩쓸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의 조종에 의하여 리승만 매국 도당들이 도발한 금번의 전쟁은 영용한 조선 인민군의 반격전에 의하여 조선 인민의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영예로운 조국 해방전으로 전화되였다。 리승만 매국 도당들이 몽상한 「북벌」도 미 제국주의의 죄악적인 피묻은 무장 간섭도 영용한 조선 인민군대의 진공 앞에 수치스럽게도 파탄 궤멸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무력을 격멸하고 리승만 잔당을 완전 소탕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할 날은 시간마다 가까와 오고 있다。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이 고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남반부 빨찌산들은 영용한 인민 군대와 함께 더욱 과감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발악하는 원쑤들의 최후의 한놈까지 우리 국토에서 완전히 섬멸 소탕할 그날까지 영예로운 전투는 계속될 것이며 그의 전과는 더욱 빛날 것이다。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며 조선 인민의 경

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의 항일 무장 유격대의 애국 정신과 영웅성을 계승한 남반부 인민 유격대는 그의 고귀한 혁명적 전통과 전투 경험을 살리여 미 제국주의와 그의 주구 리승만 잔당을 격멸 소탕하는 금번 전쟁에 있어서 그의 영웅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영용 무쌍한 우리 인민 군대의 진격 앞에 패전을 거듭하는 미국 강도놈들과 리승만 잔당들은 더욱 발악적으로 저항하며 전투는 날로 가렬하여 지고 있다。원쑤들의 멸망이 가까와오면 가까와 올쑤록 놈들의 발악은 더욱 횡포해지며 잔인해 진다는 것을 지나간 력사들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이 종국에 접근하면 할쑤록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갈이 싸움은 전체 인민들의 더욱 전결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반부 빨찌산들은 더욱 대담하고 더욱 용감한 활동으로써 패주하는 적들에게 숨쉴 틈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의 후방에서 교통、운수、교량、통신망들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적의 병력 이동과 무기와 군수물자 수송을 파탄시키며 무기고 군수창고 등을 습격 소탕하고 적의 유생 력량을 닥치는 대로 없애야 할 것이며 원쑤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섬멸 소탕하는 무자비한 최후의 결정적 타격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영용한 남반부 빨찌산들이여!

전체 인민들은 당신들이 더욱 용감하고 더욱 대담하게 원쑤들을 섬멸 소탕하여 줄 것을 확신하며 당신들의 애국심과 용감성과 헌신성을 찬양하고 있다。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전과를 더욱 확대하라!

해방 지구에서 실시되는 토지 개혁의 의의

김 욱 진

一

조국의 통일과、독립과、자유와、민주를 쟁취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전인민적 정의의 전쟁에서의 영웅적 인민군의 승리로 인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리승만 도당의 반인민적 학살 통치로부터 해방된 남반부의 광대한 지역에서는 지금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 사업들이 인민들의 열성적인 참가 하에 진행되고 있다。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 사업은 남반부의 해방 지역에 있어서 인민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민주 과업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과업이다。

오늘 조선 인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의의 전쟁에 있어서 남반부 해방 지역에서의 제반 민주 개혁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조선 인민의 진정한 아들 딸들인 인민군대들의 영용한 전투로써 적을 분쇄하고 리승만 통치 제도를 소탕한 지역들에서 인민들이 진정한 자기의 정권 형태인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고 그 주위에 집결하여 인민들의 정치、경제、문화의 각 방면에 공한 민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이 정의의 전쟁의 전인민적 성격을 더욱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민의 민주 발전을 위한 력사적、사회적 변혁이 배합됨으로써 이 정의의 전쟁의 그 불패성과 그 전진성과 그 원동력이 보장되는 것이다。

미제의 침략 정책과 리승만 매국 학살 통치 체제는 장구한 일제 통치의 악독한 영향을 의식적으로 존속 조장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 구축된 것이다。

농민들을 착취하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는 조선에 대한 일제 통치의 기본적인 토대로 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미제의 침략 하에서 실시된 리승만 도당의 매국 학살 통치에 있어서도 일제의 정치적、경제적 역

압과 착취의 기본적, 물질적 토대로 되여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의 침략을 완전히 분쇄하며 리승만 학살 통치를 근저로부터 소탕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조선 인민들의 전인민적 정의의 전쟁이 그 승리의 성과들을 확고히 보장 확대하며 앞으로 전진하려면 미제 침략과 리승만 학살 통치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되여 있던 봉건적 착취 관계를 절멸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의 실시는 해방 지역에서의 가장 긴급 절실한 과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을 위한 조선 농민들의 의욕과 투쟁은 오랜 력사를 가진 것이다。

조선에서는 완전하고 정체적인 아세아적 봉건 제도가 특히 잘게 지속되였다。 오랜 봉건 제도 하에서 농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부절한 농민 폭동으로써 토지에 대한 의욕을 표시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리조 봉건 체제는 도괴되였으나 조선의 식민지화는 종래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숙청하지 못하고 도리여 그것을 반봉건적인 토지 소유 제도로 전환케 함으로써 봉건 소유제를 존속시켰다。

조선을 식민지, 군사 기지로 략취한 일제 강점자들은 조선의 낡은 봉건 제도를 숙청하는 대신에 그것을 답습 유지하여 자기의 제국주의적 침략 착취의 도구로 리용하였다。 여기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는 제국주의적 착취 관계와 구결되여 조선 농촌에서의 독특한 반봉건적 착취 관계를 빚어 낸 것이다。

즉 일방에서는 상품 경제의 침윤으로 인한 자연 경제의 파괴와, 경제외적 강제 수단에 의한 광범한 농민의 토지 수탈이 진행되고 타방에서는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친일 지주들의 수중에의 토지 소유의 급속한 집중이 진행되였다。 그 결과 조선 농촌 경리에 있어서 토지 소유의 집중과 토지로부터의 농민의 추방이 급격히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 수탈은 조선의 공업화나 산업 경제의 발전과 병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경제는 전체로써 식민지적인 락후한 농업 경제에 억압 고정되였다。 이것은 조선을 일본 공업의 원료 원천으로, 상품 시장으로 화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필연의 결과였던 것이다。

따라서 농촌에서 토지로부터 유리된 농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의 공업이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토지를 박탈 당한 많은 농민들은 만주나 일본 공업 시장에로 류랑하였으나 대부분의 농민은 농촌의 과잉 인구를 형성하였으며 총수확고의 五〇—七〇%에 달하는 고률의 봉건적 소작료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반봉건적 착취로써 토지에서 횡취하는 지주

의 수익은 여하한 합리적인 근대식 농업 경리보다도 높은 리윤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농촌 경리에서의 기계의 사용, 경영의 집중 등 농업의 자본주의화에의 일체의 길을 가로 막았다。

반면 봉건적 고률 소작료는 농민의 경리를 부절히 령세화 퇴화시키며 농민들을 부단히 파산시킴으로써 농민 경리에서의 자본주의화의 맹아도 싹트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일방에서의 지주 토지의 부단한 집중이, 타방에서의 농민 경리의 부단한 세분 령세화와 불가분하게 결합 병행되고 이 량극 운동의 기저에는 고률의 흡혈적 소작 제도에 표시된 봉건적 착취 관계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일제 하의 조선 농촌의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의 략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토대로 되였다。 따라서 농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근저로부터 소탕함이 없이는 반봉건적 토지 관계의 질곡으로부터 자기를 해방할 수 없었으며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부단한 투쟁은 일제 통치에 반항하는 민족 해방 투쟁의 주요 력량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토지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은 일제 통치로부터의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의 주요한 사회, 경제적 내용을 이루었으며 일제 통치의 전기간을 통하여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봉기와 투쟁은 민족 해방 투쟁의 광범한 기초로 된 것이다。

일제 강점 초기의 의병 운동에서부터 三•一 운동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三•一운동 이후 八•一五 해방에 이르는 조직적 투쟁의 시기에 있어서 민족 해방 투쟁이 광범한 군중적 기초 위에서 높이 앙양되는 시기에는 항상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그 기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조선 농민들은 오랜 일제 강점 시대를 통하여 불굴의 영웅성과 무비의 견인성으로 토지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조국 해방 투쟁의 주요 력량의 하나로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로 동방 침략의 원흉인 일제가 타도되고 조선 민족이 오랜 일제 통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자 토지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을 위한 조선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이 팽배하게 제기되고 그를 위한 투쟁이 광범하게 전개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국의 방방 곡곡에서 인민위원회의 주위에 단결된 농민들은 『토지를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높이 내걸고 민주주의적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였던 것이다。

:: :: ::

八•一五 해방 직후 우리 나라의 북반부에서는 인민

정권의 옳바른 시책과 위대한 쏘련 군대의 방조 하에 농민들의 토지를 위한 투쟁은 자유로운 발전의 길을 걸었다.

一九四六년 三월 五일에 북반부에서는 력사적인 토지 개혁 법령이 발포되고 이 날을 조선 농민들의 력사에서 영구히 기념될 날로 되게 하였다.

북반부에서의 토지 개혁 실시의 결과 일본 국가, 일본인 및 민족 반역자, 五정보 이상 토지 소유의 대지주, 계속적으로 소작 주던 토지 등 무상 몰수된 토지의 총면적은 백五만 여정보에 달하였으며 七十二만 五천 여호의 토지 없는 농가와 토지 적은 농가가 이 토지를 무상으로 분여 받았다. 토지는 직접 밭갈이 하는 농민의 소유로 되고 소작 제도는 영구히 철저히 폐지되였다[9].

이로써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세기적 숙망은 달성되였으며 오랜 세기를 통하여 조선 사회 발전의 일대 질곡으로 되여 온 봉건적 착취 관계의 물질적 기초는 근저로부터 소탕된 것이다.

토지 개혁의 성과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장족의 향상을 초래하였으며 또 그리함으로써 북반부에서의 인민 경제 발전 전체를 위한 광범한 기초로 되였다.

토지 개혁 후 달성된 북반부의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은 우선 농촌 생산력의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장성으로 나타났다.

북반부 농민들은 一九四七년 一년 간에 만고 三十만 정보의 경작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一九四九년에는 북반부의 경지 총면적은 해방 전 최고 수준이던 一九三九년에 비하여서도 四·五%나 장성되였다. 국가는 막대한 국고금을 투자하여 一九四九년까지에 밭, 천수답, 황무지 등을 五만 七천 정보나 수전으로 전환시켰으며 농민들은 이 사업에서 고도의 창의와 열성을 발휘하였다.

축산 부문에서도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축우는 一六七%로 돼지는 三一○%이상으로 장성되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농가들이 축력을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토지 개혁의 결과는 농촌 경지 면적의 확장과 동시에 농업 생산력의 제고로 나타났다. 토지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의 제고는 경지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의 장성을 위한 투쟁을 고무하였으며 그 결과 一九四九년에 이르러서는 북반부 주요 농작물의 반당 생산고는 해방 직전인 一九四四년에 비하여 벼는 一二○%로, 조는 一七八·三%로, 수수는 一七○·八%로, 옥수수는 一七五·三%로, 면화는 二四六·四%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리하여 경지 면적과 반당 수확고가 동시에 장성한

결과 북반부의 농산물 생산량은 급속히 증가되여 토지 개혁 후 三년만인 一九四八년도에 벌써 미 잡곡 수확은 一九四四년에 비하여 一二九·六%로 달하였으며, 일제 시대의 최고 수준인 一九三九년에 비하여서도 一○·三%로 장성하였다.

이와 같은 농촌 경리의 급진적 발전은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켰으며 농촌 문화를 발전시켰다.

토지 개혁 후 四년 간에 축우는 一七九, 九四四두가 증식되였으며, 신축 가옥은 五七, 二八九호, 전등을 신설한 농가는 二六七, 一三五호에 달하였다.

우마차, 제초 뿌라우, 탈곡기, 선풍기 등 농기구는 五三만 여대의 증가를 보았으며 제분기, 정미기, 가마니 기계 등의 리용이 널리 보급되였다.

이와 동시에 농촌의 교육 기관으로는 一면 一중학교가 벌써 실현되였으며 一九五○년도부터는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를 보게 되였으며 구락부 민주 선전실은 一만 八천개, 즉 평균 一개리 一·八개소를 산하게 되였다.

토지 개혁으로 인한 북반부 농촌 경리의 발전, 농업 생산성의 제고, 그리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향상은 북반부의 인민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초로 되고 있다. 식량과 공예 작물의 생산 증가로써 발전하는 공업의 수요를 만족시켰으며 이는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농촌 구매력의 부단한 향상으로써 국내 시장을 보장 확대하였다.

그 결과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북반부 민주 건설의 경제적 토대는 견고하게 구축 장성된 것이다.

북반부에서의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의 실시는 이리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부강한 민주 발전의 기초 조건을 보장하여 준 것이다.

* * *

위대한 쏘련의 방조 하에 우리 조국의 북반부에서는 이와 같이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인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이 실시되였음에 반하여 조국의 남반부에서는 미국 침략자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 도당들의 가혹한 억압과 학살 하에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실제의 요구와 투쟁이 유린되였다.

해방 직후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정을 선포함과 동시에 인민 위원회를 해산시켰으며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요구를 말살하여 버렸다. 그리하여 一九四五년 十월 五일에 최고 소작료 결정의 건, 十一월 十九일에 미곡 통제령, 一九四六년 一월 二十五일에 미곡 수집령, 동 二월 二十一일에 신한 공사령 등의 「법령」을 발포하여 남조선 농촌에 일제 시대의 반봉건적 착취 관계를 존속 고정하기 위한 로골적인 반동 정책을 강행하고 나섰다.

미 군정 당국은 이러한 법령들로써 봉건적 소작 제도를 고정화하고 일제가 소유하고 있던 방대한 토지들을 미제의 지배 하에 편입하며 미곡 가격을 통제하며 농민들에게서 미곡을 수탈하기 위한 조치들을 법문화한 것이다。

미제와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농민들 자신의 손으로 토지 문제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란포하게 억압하고 낡은 봉건적 착취 관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며 그것을 미제의 침략 정책과 구결시키는 정책을 적라라하게 추구하였다。

그 결과 남반부 농민들은 일제 시대보다 더욱 혹독한 봉건적 소작 제도와 가혹한 고리 대금의 착취 하에 신음할 뿐만 아니라 미제와 리승만 매국 도당의 가장 혹독한 수탈의 대상물로 되고 있었다。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에 의한 미곡 강탈은 一九四九년말까지에 약 二천만석에 달한다。

이러한 미곡 수탈과 아울러 각종의 가렴 잡세와 테로 단체에 대한 강제 기부금、괴뢰 「군경」에 대한 「헌금」、괴뢰 정부의 「국채」 등 직접 농민들에 대한 방대한 경제외적 강탈이 자행되였다。 또 미제와 리승만 도당은 미제의 상품을 남조선에 범람시켜서 그것을 고가로 소비시키는 반면 농민들의 생산물인 미곡 기타 농작물 가격을 파행적인 저위에 억압하여 인프레슌의 파괴적 작용에 대하여 농민들을 가장 비참한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가혹한 착취 강탈과 병행하여 또한 야만 광포한 박해 추방 학살이 남반부 농민들을 부단한 파멸과 참사의 구렁으로 몰아 넣었다。

지난 겨울 동안에만도 남조선 각지의 농촌에서 방화 소각된 농가가 五二、二〇〇호 강제 소개 당한 농가가 八八、二〇〇호 이로 인하여 집없이 쫓겨다니는 농민이 五十만에 가깝게 되였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러한 박해의 범위와 심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을 일제 시대의 반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질곡이 더욱 강화된 조건 하에 있게 하였으며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참혹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농민들은 최저 생활도 불가능한 부절한 파산 상태에 처하였으며 반농노적 예속과 기아와 횡포한 경제외적 강탈의 중압 하에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억압 하에서 농촌 경리는 전반적으로 파탄되였으며 농업 생산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었다。

一九四八년 말의 남조선 경작 면적은 一九四〇——四四년 간의 평균 경작 면적의 六六%로 저하되였는바 이것은 해방 후 三년 간에 벌써 남조선 경작지 면적의 三四%가 감소된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미곡 기타 주요 농산물의 반당 수확고도 저하의 일로를 걸었다。 농촌은 황폐화하고 비궁과 공포의 암흑 천지로

전변하고 말았다。

미제 침략과 리승만 매국 통치 하에서 남조선 농촌 경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러한 반농노제적 억압의 해독에 대하여서는 미제와 리승만 매국 역도들까지도 그것을 은폐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남조선 진주 직후에 하지는 기만적인 성명으로 농촌 상태의 「개선」을 약속하였으며 一九四六년 九월 四일에는 자기의 경제 고문 번스로 하여금 군정청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파려케 하고 「조선 인민의 생활 안정은 미곡 통제로 해결하고 토지 개혁은 립법 기관에서 심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케 하였다。 또 미 군정 당국자들이 「립법 의원」으로 하여금 후차 「토지 개혁」에 관한 의태를 취하게 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리승만 매국 역도들도 그들이 괴뢰 「정부」를 들고 나온 후에 토지 문제에 대하여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一九四九년 四월에는 매국 「국회」에 소위 「농지 개혁 법령」이 상정되였던 것이다。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소위 「토지 개혁」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의태들이 얼마나 철면피한 기만 정책인가는 그들이 이미 五년 간이나 입으로 「토지 개혁」을 운운 하면서도 끝까지 하등의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지 정책은 도리여 부단히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 관계와 제국주의적 침략을 강화하는 방향에서만 추구되였었다는 사실로서 증명되는 것이다。

리승만 도당의 소위 「농지 개혁 법령」은 침략자와 매국노들의 이와 같은 반동적 토지 정책의 적라라한 표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매국노들의 「농지 개혁 법령」에 의하면 농민들은 농지를 분배받기 위하여 해당 전답의 一년 간 생산고의 三분지 一씩을 五년 간 계속하여 괴뢰 「정부」에 지불하여야 되였다。

그 결과 토지를 「매상」 당하는 지주들은 시가의 二배나 되는 지가를 받게 되는 것이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매국 「국회」의 모 「의원」까지도 다음과 같은 비난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가격을 계산하여 보니까 토지 대금이 一단보에 三만 二천 二백 五十원이 됩니다……가격으로 말하면 현재 지주가 파는 가격의 二배나 됩니다……아주 높은 가격으로 생각합니다」(一九四九년 十一월 七일 서울 신문)。

그렇기 때문에 매국 노들 사이에서까지도 그들의 「농지 개혁 법령」을 야유하여 「지주 토지 처분법」이라고 조소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였던 것이다。 지주들에 이러한 유리한 립장은 또한 토지 「매상」에 대한 지주들의 임의 선택을 위한 례외 규정들로써 보충되고 있었다。

즉 토지 처분을 원치 않는 지주들을 위하여 자기 토

지를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이 매국노들의「농지 개혁 법령」에는 광범히 포함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매국노들의 소위「농지 개혁 기본 조사」의 결과에 명백히 나타났던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로 괴뢰「정부」가 계상한「요 매상 농지 면적」은 남반부의 총경작 면적의 二九%밖에 안되였으며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농가 호수는 총농가 호수의 三一%밖에 안되였던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 경작지 총면적에 비하여 소작 주는 경지 면적은 六四%이며 총농가 호수에 대한 소작 농가 호수는 약 六〇%이다。 이 숫자들을 대비하여 보면 소위「농지 개혁」으로 매상을 당한다는 지주의 토지는 소작 주고 있는 지주 토지의 절반도 못되였으며 또「농지 개혁」으로 토지를 사 받을 수 있게 된 농민의 수효도 소작농으로 있는 농가 수효의 절반밖에 안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벌써 소위「기본 조사」의 숫자에서 이러할진댄 실지에 있어서「농지 개혁」으로 농지 매상을 당하는 지주는 결국 자진하여 토지의 화폐화를 원하는 지주에 국한되였으며 또 매상 당하는「농지」는 경리 상 불리한 렬악한 경작지에 국한되였으리라는 것은 용이하게 추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매국 도당의 소위 농지 개혁이 철두 철미 지주의 리익을 위한 농민 착취의 기만적 악법이였던 것에서、더욱 명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승만 도당의「농지 개혁」은 남반부 농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중세기적 농노제의 멍에를 씌울 것을 예견한 흉책이였던 것이다。 리승만 통치 하의 남조선 농촌의 실정에서 년 수확고의 三분지 一을 토지 댓가로 바친다는 것은 농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부담이였다。 미곡 강탈과 온갖 가렵 잡세와 강제 기부금 등 二중 三중의 착취 수탈 하에 신음하는 남반부 농민들은 그들의 령세하고 불리한 경리로써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곤난하였으며 나날이 수많은 농민들이 파산 유리 걸식의 참상에 빠지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에게 매년 수확고의 三분지 一을 토지 댓가로 지불하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더욱 혹심한 채무 노예와 소작인의 운명에 빠질 것을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농지 개혁」으로 토지를 사 받는 농민들은 그 댓가를 지불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괴뢰「정부」에 대한 채무 노예 겸 소작인으로 전락될 것이 명백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로 초래되는 것은 무엇이였겠는가? 그것은 종래의 개별적인 지주대 소작인의 착취 억압 관계 대신에 나타나는 리승만 도당을 총지주로 하는 전체 농민들의 예속 관계일 것이며 그것은 중세기의 농노제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봉건적 소작 제도와 정치적 지배가 직접 결합한 이러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의 멍에를 남반부 농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리승만 도당은 농민들을 그들의 매국 정

권에 경제적으로、정치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직접 예속시키려고 흉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소위「농자 개혁」을 들고 나선 리승만 도당의 흉책의 정체이였다。 그들은 남반부 농민들을 기만하여 그 투쟁의 예봉을 꺾으며 반봉건적 토지 관계를 유지하여 남반부 농민들에게 더욱 혹심한 착취와 강탈을 가하며、신분적 예속과 박해의 멍에를 씌우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 * *

이와 같이 미제나 그 주구 리승만 도당은 남반부 인민의 절대 다수인 농민들을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결박하여 미제 침략의 초과 리윤의 근본 원천으로 또는 리승만 도당의 인민 학살 통치를 위한 군사 경찰 예산의 수탈 원천으로 남반부 농민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하였다。

반봉건적 토지 제도는 남반부에서의 미제 침략과 리승만 학살 통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초로 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토지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을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봉기와 투쟁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인민적 투쟁의 강유력한 력량의 원천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웅적 인민군대의 진격 앞에서 미제 침략 군대가 패수하고、리승만 팟쇼 통치가 와해되고、인민들이 해방을 쟁취한 지역들에서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요구를 민주주의적 원칙 위에서 충족시키고 조선 사회 발전의 세기적 질곡인 봉건적 토지 제도를 일소하기 위한 토지 개혁 사업이 가장 긴절하고 근본적인 과업으로써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七월 四일「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토지 개혁을 실시함에 관한」정령을 발포하여 공화국 정부의 방침과 시책을 명백히 가르친 것이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남반부 토지 개혁에 관한 이 정령은 공화국 헌법 제七조에 의거한 것이다。

이 정령은 미 제국주의자와 리승만 역도들의 강탈과 학살 통치 하에서 신음하던 남반부 농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며 남반부의 락후한 농촌 경리를 급속히 개선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무상 몰수、무상 분배의 가장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 방식을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 원칙 하에서 미 제국주의자와 리승만 역도들의 정부 또는 그 기관들에 소유되여 있던 일체의 토지를 몰수하며 또 조선인 지주의 토지와 기타 계속적으로 소작 주던 토지를 일체 몰수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제 소유였던 방대한 토지들을 남조선에서 불법하게 횡탈 점유하였던 것이다。 동

책, 불이, 박간 등 三남 지방의 비옥한 평야에 수천 정보의 경작지들을 독점하였던 일제의 토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 거대한 경작지들을 미제는 자기의 소유지로 만들고 있었으며 리승만 괴뢰 정부 및 그 기관들도 각처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다.

침략자와 매국 노들은 이러한 광대한 경작지를 독점하여 이것을 농민들에게 세분하여 소작지로 주고 령세한 소작농들을 흡혈적으로 착취하여 왔던 것이다.

오늘 리승만 매국 팟쇼 통치가 분쇄되고 인민 자신이 자기 정권의 주인으로 등장한 조건 하에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이와 같은 소유 토지를 전적으로 무상 몰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조선인 지주의 토지와 계속적 소작지를 몰수함으로써 남반부의 전체 농촌에서 봉건적인 소작 제도와 물질적 기초가 철저히 또 완전히 소탕되는 것이다.

몰수한 토지들은 자기 로력으로 경작하는 고용 농민과 토지 없는 또는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된다.

이리함으로써 토지는 오직 자기의 땀으로써 경작하는 직접 생산자인 농민들만이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밭갈이하는 농민이 토지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는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이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또다시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빼앗아 갈 원인이 되는 일체의 조건이 국가의 법령으로써 금지된다. 즉 토지를 분여 받은 농민은 그 토지를 매매하거나 소작을 주거나 또는 저당할 수 없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농민들이 새로 토지의 주인으로서의 사기의 경리를 시작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온갖 장애를 제거하여 주며 로력 농민들을 방조하여 줄 것이 이 정령에는 규정되여 있다. 즉 토지에 관계되는 일체의 부채 혹은 년부 매입금 또는 토지에 관계되는 종래의 지세 기타의 일체 부담금들을 완전히 페기하고 다만 농민들은 북반부 농민들과 동일한 현물세를 납부할 따름으로 되여 있다. 현물세를 납부한 후의 나머지 농작물은 농민들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되여 있다.

공화국 정부는 로력 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그 경제 정책이 허여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할 것이 정령에 규정되여 있다.

정령은 이상과 같은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의 제원칙을 규정함에 그치지 않고 이 민주주의적 원칙들이 토지 개혁의 절지 사업에서 완전히 실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토지 개혁 사업이 정확하게 농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도록 농민들 자신의 손으로 농민들의 감시 하에 집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몰수한 토지의 분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개 농민들에 대한 분여 정책과 방법 등은 매개 동리의 고용 농민과 토지 없는 농민 또는 토지 적은 농민들의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이 총회의 결정은 지방 인민 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후에 실시된다. 또 이 총회는 농촌 위원회를 선거하고 농촌 위원회는 몰수 토지에 관한 일체 조사 통계 분여 계획 등을 작성하며 토지 분여에 관한 농민들의 전체 의사를 반영 집행한다.

이상과 같은 제조항으로써 구성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남반부 지역에 토지 개혁을 실시함에 관한」 정령은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악독한 통치로부터 해방된 남반부 농민들을 급속한 시일내에 북반부 농민들과 같은 자유스럽고 행복스러운 생활로 끌어 올릴 것이며 남반부 농촌의 생산력을 급속도로 장성케 하여 농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과 부강한 조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원쑤들의 매국 학살 통치가 영웅적 인민 군대들의 진격 앞에 파쇄되고 인민들의 해방을 쟁취한 남반부의 광대한 지역에서는 지금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토지 개혁 정령에 의거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모든 로력 농민과 전체 인민들은 이 중요한 민주 과업의 충실한 실천으로써 원쑤들에 대한 인민의 승리를 더욱 확대 공고히 하기에 정력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반부의 미 해방 지구들에서는 인민들은 인민 군대와 유격대와 적극 배합하고 폭동과 각종의 후방 파괴로써 미제 침략 군대를 격쇄하는 투쟁을 더욱 치렬히 전개함으로써 농민들을 위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 실시의 날을 하루 빨리 가져오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쓰주의에 관하여

이·쓰딸린

청년 동지들의 그루빠가 나에게 언어학 특히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쓰주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제문제에 관하여 출판물 상에 나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제외하여 왔다. 나는 언어 학자가 아니다. 때문에 물론 나는 동지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사회 과학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쓰주의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이 문제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나는 동지들에 의하여 제기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동의하였다.

문、언어는 하부 구조 위에 있는 상부 구조라는 것이 옳은가?

답 아니다. 옳지 않다.

하부 구조는 사회 발전의 다해 계단에 있어서의 사회의 경제적 제도다. 상부 구조—이는 사회의 정치적 법률적 종교적 예술적 철학적 견해들이며, 또 이들에 적응하는 정치적 법률적 및 기타의 기구들이다.

일체 하부 구조는 이에 적응하는 자기의 상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봉건적 제도의 하부 구조는 자기의 상부 구조 자기의 정치적 법률적 및 기타 견해들과 이들에 적응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하부 구조는 자기의 상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하부 구조는 자기의 상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 하부 구조가 변화되고 청산되면 그에 뒤이어 그의 상부 구조는 변화되고 청산되며, 만일 새로운 하부 구조가 산생되면 그에 뒤이여 그에 적응하는 상부 구조가 산생된다.

이점에 있어서 언어는 상부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구

별된다. 일례로 로씨야 사회와 로씨야어를 들어 보자. 최근 三十년 간에 로씨야에서는 낡은 자본주의적 하부 구조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하부 구조가 축성되였다. 이에 적응하여 자본주의적 하부 구조 위에 있던 상부 구조는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하부 구조에 적응하는 새로운 상부 구조가 창설되였다. 따라서 낡은 정치적 법률적 및 기타 기구들은 새로운 사회주의 기구들로 교체되였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어는 기본적으로는 그가 十월 변혁 전과 같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시기에 로씨야어에 있어서는 무엇이 변화되였는가? 로씨야어의 어휘 구성이 어느 정도로 변화되였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의 발생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 새로운 사회 생활 도덕의 출현과 관련하여 끝으로 기술 및 과학의 장성과 관련하여 생겨난 다수의 새로운 단어들 및 표현들로써 보충되였다는 의미에 있어서 변화되였으며, 새로운 의미 상의 의의를 얻은 다수의 단어 및 표현들의 의미가 변화되였으며, 약간의 수의 폐어들이 어휘에서 빠져나갔다. 언어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로씨야어의 기본적 어휘와 문법 구조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들은 자본주의적 하부 구조의 청산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았으며, 또 새로운 기본적 어휘와 새로운 문법 구조로 교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완전히 보존되였으며, 그 어면 중대한 변화도 없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며—바로 현대 로씨야어의 기초로서 보존되여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에 의하여 산생되나 이는 전혀 그 상부 구조가 단지 하부 구조를 반영만 한다는 것과 그가 수동적이며, 중립적이며, 또한 자기 하부 구조의 운명, 계급들의 운명, 제도의 성격에 무차별하게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세상에 나타나자 상부 구조는 가장 위대하고 적극적인 력량으로 되며, 자기의 하부구조가 공고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조하며, 또한 새 제도가 낡은 하부 구조와 낡은 계급들을 박멸하며 청산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하여 모든 방책을 취하는 것이다.

다르게는 될 수가 없다. 상부 구조는 그가 하부구조에 봉사하도록, 그가 하부 구조로 하여금 형성 공고화되게끔 적극적으로 방조하도록, 또 그가 자기의 낡은 상부 구조와 함께 낡은 로폐한 하부 구조의 청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부 구조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다.

상부 구조가 자기의 성질을 상실하며 상부 구조이기를 그만 두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상부 구조가 자기의 이 봉사적 역할을 포기하기만 해도 되는 것이며, 자기 하부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수호의 진지로부터 그에 대한 무차별한 태도의 진지로 계급들에 대한 한결같은 태도의 진지로 넘어가기만 해도 되는 것이다.

언어는 이점에 있어서 상부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언어는 이런 또는 저런 하부 구조에 의하여 낡은 또는 새로운 하부 구조에 의하여 당해 사회 내부에서 산생된 것이 아니고 수세기 간에 사회 력사 및 하부 구조들의 력사의 전과정에 의하여 산생된 것이다。 언어는 그 어떤 한개의 계급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전체 사회에 의하여, 사회의 전체 계급들에 의하여, 수백의 세대들의 노력들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언어는 그 어떤 한개 계급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 사회의 전체 계급들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언어는 사회에 대해서 단일적이고 사회의 전체 성원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전인민적 언어로서 창조된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의 접촉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봉사적 역할은 다른 계급들에게는 불리하게 한개 계급에게만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사회의 전체 계급들에게 한결같이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언어가 낡고 사멸하는 제도에나 새로운 융성하는 제도에나 낡은 하부 구조에나 새로운 하부 구조에나 또 착취자들에게나 피착취자들에게나 한결같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이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로씨야어는 오늘날 그가 로씨야 사회의 사회주의적 제도 및 사회주의적 문화에 봉사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十월 변혁 전에 로씨야 자본주의 및 부르죠아 문화에 잘 봉사하였다는 그 사실은 누구에게도 명명백백한 것이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제도에 봉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의 낡은 부르죠아 제도에 잘 봉사하여 온 우크라이나어, 벨로루씨야어, 우즈베크어, 까자흐어, 그루지야어, 아르메니야어, 에스또니야어, 라뜨비야어, 리뜨바어, 몰다비야어, 따따르어, 아제르바이잔어, 바쉬끼르어, 뚜르끄멘어 및 기타 쏘베트 민족들의 언어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르게는 될 수가 없다。 언어는 사람들의 접촉 도구로서 완전체로서의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또 그가 사회 성원들에 대해서 공통적이고 사회에 대해서 단일적이며 사회 성원들의 계급적 지위에는 상관 없이 이들에게 평등하게 봉사하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또 창조된 것이다。 언어가 자기 성질을 상실하며 그가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접촉 수단이기를 그만 두며 그가 그 어떤 사회 집단의 통용어로 전화되며, 퇴화되어 소멸의 운명을 지니도록 하려면는 언어가 이 전인민적 견지로부터 물러가기만 해도 되며 또 사회의 다른 사회 집단들에게는 불리하게 그 어떤 사회 집단을 선택하여 지지하는 점지로 나서기만 해도 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언어는 상부 구조와는 원칙적으로 [illegible]

구별되되 생산 도구, 말하자면 역시 자본주의 제도에나 사회주의 제도에나 한결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계들과는 구별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부 구조는 당해 경제적 하부 구조가 생존하고 행동하는 한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이 때문에 상부 구조가 생존하는 것은 오래지 않으며 그는 당해 하부 구조의 청산 및 소멸과 함께 청산 소멸된다。

그러나 언어는 반대로 언어가 형성되고 부유화되고 발전되고 련마되는 여러 시대들의 산물이다。 이 때문에 언어는 임의의 하부 구조 및 임의의 상부 구조보다 비길 수 없이 오랫 동안 생존하는 것이다。 비단 한개의 하부 구조 및 그의 상부 구조만이 아니라 몇개의 하부 구조들 및 이들에 적응하는 상부 구조들의 산생 및 청산이 력사 상에서 당해 언어의 청산을 가져 오지 않으며, 또 새로운 어휘와 새로운 문법 구조를 소유하는 새로운 언어의 산생을 가져 오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이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뿌쉬낀의 서거시부터 백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이 기간에 로씨야에서는 봉건 제도 및 자본주의 제도가 청산되고 세째번의 사회주의의 제도가 생겨 났다。 따라서 두개의 하부 구조가 그의 상부 구조들과 함께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하부 구조가 그의 새로운 상부 구조와 함께 생겨 났다。 그러나 례로서 로씨야어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이는 이 오랜 기간에 그 어떤 파괴도 당하지 않았고 현대 로씨야어는 그의 구조에 있어서 뿌쉬낀의 언어와 구별되는 바 거의 없는 것이다。

이 기간에 로씨야어에 있어서는 무엇이 변화되였는가? 이 기간에 로씨야어의 어휘 구성은 상당히 보충되였으며, 다수의 페어들이 어휘 구성으로부터 빠져 나갔으며, 현저한 수의 단어들의 의미 상의 의의가 변화되였으며, 언어의 문법 구조가 개선되였다。

뿌쉬낀의 언어의 구조, 그의 문법 구조와 기본적 어휘에 관하여 말한다면 본질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은 현대 로씨야어의 기초로써 보존되였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실제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매개 변혁 후에 현존하는 언어의 구조, 그의 문법 구조 및 기본적 어휘가 보통 상부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멸되고 새로운 것들로 교체되는 것이 필요할까? 「물」 「땅」 「산」 「숲」 「물고기」 「사람」 「걷다」 「하다」 「생산하다」 「장사하다」 등등이 물, 땅, 산, 등등이 아니고 어떻게 달리 불리우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언어에 있어서 단어의 변화와 문장에 있어서 단어의 결합이 현존 문법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전연 다른 문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언어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변혁으로써 혁명에는 어떠한 리익이 있을까? 력사는 대체로 그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 없이는 그 어떤 본질적인 것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묻건대 만일 현존 언어가 그의

구조와 함께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수요 충족에 완전히 적당하다는 것이 립증된다면 그런 언어 변혁에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할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기 위하여서 몇년 동안에 낡은 상부 구조를 소멸하고 이를 새로운 상부 구조로 교체시키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이니 사회적 생활에 혼란을 가져 오지 않고 사회 붕괴라는 위협을 조성하지 않고 어떻게 몇년 동안에 현존 언어를 소멸하고 그 대신 새로운 언어를 창설할 수 있겠는가? 돈·키호테 따위가 아니고선 누가 이런 과업을 자기에게 내 세울 수 있을까?

끝으로 상부 구조와 언어 간에는 또 하나의 근본적 구별이 있다. 상부 구조는 생산, 인간의 생산 활동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여 있지 않다. 그는 생산과는 다만 간접적으로 경제를 통해서 하부 구조를 통해서만이 관련되여 있다. 이 때문에 상부 구조는 생산력 발전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반영하는바 즉시로가 아니고 직접이 아니고 하부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들, 후에 생산에 있어서의 변화들의 굴절을 통해서 하부 구조에서의 변화들 속에서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상부 구조의 행동 범위가 협소하고 제한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어는 반대로 인간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되여 있으며 또 비단 생산 활동과 만이 아니라 생산에서 하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사업 범위들에 있어서의 그의 일체 다른 활동과도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때문에 언어는 하부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기다리지 않고 생산에서의 변화들을 즉시에 직접 반영한다. 때문에 인간의 모든 활동 령역들을 망라하고 있는 언어의 행동 범위는 상부 구조의 행동 범위보다 퍽 넓고 퍽 다면적인 것이다. 뿐더러 이 범위는 거의 무한한 것이다.

언어 더욱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어휘 구성이 거의 부단한 변화 상태에 처하여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산업 및 농업 기술 및 과학의 부단한 장성은 언어에 그의 어휘를 그것들의 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단어들 및 표현들로써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는 직접 이 수요들을 반영하여 자기의 어휘를 새로운 단어들로써 보충하며 자기의 문법 구조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 맑쓰주의자는 언어를 하부 구조 위에 있는 상부 구조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언어를 상부 구조와 혼돈하는 것은 ——중대한 오유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언어가 언제나 계급적이였으며 또 현재에도 계급적이라는 것과 사회에 대해서 공통적이고 단일적 비계급적 전인민적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가?

답 아니다. 옳지 않다.

계급들이 없는 사회에서는 계급적 언어에 관하여서는 문제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은 리해하기 곤난치 않다. 원시 공산적 족장 제도는 계급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거기서는 계급적 언어는 있을 수도 없었다.

언어는 거기서는 전체 집단에 대해서 공통적이고 단일적인 것이였다. 원시 공산적 집단도 포함한 전체 인간의 집단을 계급으로 리해하여야 한다는 반박은 반박이 아니고 론박할 가치 없는 말의 회롱이다.

족장적 언어로부터 종족적 언어에의, 종족적 언어로부터 인민적 언어에의, 인민적 언어로부터 민족적 언어에의 앞으로의 발전에 관하여 말한다면 어디서나 발전의 모든 계단에 있어서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접촉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사회에 대해서 공통적이고 단일적이며,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는 상관 없이 사회의 성원들에게 같이 봉사하는 언어였었다.

나는 여기서 노예적 및 중세기적 시기의 제국, 말하자면 키르와 알렉싼드르 대왕의 제국 혹은 케자르와 칼 대왕의 제국, 즉 자기의 경제적 기지를 가지지 못하고 림시적 및 공고치 못한 군사 행정적 합동을 대표한 제국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국들은 제국에 대해서 단일적이고 제국의 전체 성원들에게 리해되는 언어를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질 수도 없었다. 그 제국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살고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던, 종족들과 인민들의 혼합물이였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들 혹은 이들에 류사한 제국들이 아니고 제국의 구성에 들어 갔으며, 자기들의 경제적 지반을 가졌으며, 오래 전부터 구성된 자기들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던 종족들과 인민들이다. 력사는 이들 종족들과 인민들에 있어서의 언어들은 계급적이 아니였고 종족들과 인민들에 대해서 공통적이고 전인민적이고 그들에게 리해되는 것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이 언어들과 아울러 방언들 지방어들이 있었다. 그러나 종족들 혹은 인민들의 유일하고 공통적인 언어가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세하였으며 그것들을 자기에게 복종시켰다.

나아가서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봉건적 령세성이 청산되고 민족적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서 인민들이 민족들로 발전하였으며, 인민적 언어들은 민족적 언어들로 발전하였다. 력사는 민족적 언어들은 계급적이 아니고

민족의 성원들에게 공통적이고 민족들에 대해서 단일적 전인민적 언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접촉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사회의 모든 계급에 한결같이 봉사하고 이 점에 있어서 계급들에 대하여서는 일종의 무차별을 발휘한다는 것은 위에 말한 바이다。 그러나 사람들 개개의 사회적 그루빠들, 계급들은 언어에 대해서 무차별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언어를 사기들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하고, 언어에 자기들의 특별한 어휘와 자기들의 특별한 술어들과 자기들의 특별한 표현들을 강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구별되는 것은 인민으로부터 리탈되고, 인민을 증오하는 소유계급들의 상부층, 즉 명문 귀족과 부르죠아지의 상부층이다。 「계급적」 방언들과 통용어들과 살론 「언어」가 창조된다。 문학에서는 이 방언들과 통용어들을 옳지 못하게 언어로서 취급하여 「프로레타리아 언어」「농민 언어」에 대치하여 「궁전 언어」「부르죠아 언어」라고 말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우리의 몇몇 동지들은 이상하게도 이에 기초하여 민족적 언어는 허구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계급적 언어들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이런 결론보다 더 그릇된 결론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방언들과 통용어들을 언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없다。 그것은 첫째 이 방언들과 통용어들에는 자기의 문법적 구조와 기본적 어휘가 없으며, 그것들을 민족적 언어에서 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둘째 방언들과 통용어들은 이런 또는 저런 계급의 상부 성원들 사이의 좁은 통용면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접촉 수단으로서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쓸 모가 없기 때문이다。 대체 그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에는 귀족 혹은 부르죠아지의 상부층의 특수한 취미를 반영하는 특수한 소수 단어의 집성이 있으며 세련성과 우아성으로써 구별되고 또한 「란폭」한 표현들과 민족 언어의 예들러 말에서 벗어난 약간의 수의 표현들과 예들러 말과 끝으로 약간의 수의 외래어가 있다。 어쨌는 기본적, 수 압도적 다수의 단어와 문법적 구조는 전인민적 민족적 언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방언들과 통용어들은 아무런 언어적 자주성도 없으며 전인민적 민족적 언어로부터 말라빠질 운명을 지닌 결가지인 것이다。 방언들과 통용어들이 민족적 언어를 구축하고 교체할 수 있는 자주적 언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력사적 전망을 상실하고 맑쓰주의의 견지로부터 리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맑쓰를 인증들 한다。 부르죠아에게는 「자기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 언어는 「부르죠아지의 산물이니」라는 것이, 언어는 상업주의와 매매의 정신으로 일관되여 있다는 것이 언급되여 있는 「성스러운 마크쓰」라는 그

의 론문의 한 구절을 인용들 한다。 몇몇 동무들은 이 인용문으로써 맑쓰는 언어의 「계급성」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 그는 단일적 민족적 언어의 존재를 부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만일 이 동무들이 객관적으로 사물에 대하였다고 하면 그들은 같은 론문 「성스러운 마크쓰」 가운데서 맑쓰가 단일적 민족적 언어의 형성 도정들에 관한 문제에 언급하면서 「경제적 및 정치적 집중화에 제약된 단일적 민족적 언어에의 방언들의 집중화」를 말하고 있는 다른 인용문도 인용하여서야 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맑쓰는 낮은 형태로서의 방언들이 복종되여 있는 높은 형태로서의 단일적 민족적 언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맑쓰가 「부르죠아지의 산물이다」라고 말하는 부르죠아의 언어는 무엇일까?

맑쓰는 부르죠아의 언어를 민족적 언어와 같이 자기의 특별한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간수하였던가? 그가 부르죠아의 언어를 이런 언어로 간수할 수가 있었을 것인가? 물론 없다! 맑쓰는 부르죠아가 단일적 민족적 언어를 자기네의 상업용 어휘물로써 더럽히였다는 것, 부르죠아는 따라서 자기들의 상업용 통용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동무들은 맑쓰의 견지를 외곡한 셈이 된다。 맑쓰의 견해를 외곡하였다고 하는 것은 맑쓰주의자들로서가 아니고 성서 학자들처럼 사물의 본질을 보지 않고 맑쓰를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엥겔쓰를 인증들 한다。 「영국에서의 로동 계급의 형편」이라는 책자에서 엥겔쓰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들 한다。 「……영국 로동 계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영국 부르죠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되었다」「로동자들은 부르죠아지와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다른 리념과 관념, 다른 풍습과 도덕적 원칙들, 다른 종교와 정치를 가지고 있다」 몇몇 동지들은 이 인용문에 기초하여 엥겔쓰는 전인민적 민족적 언어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며, 그는 따라서 언어의 「계급성」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사실 엥겔쓰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언어가 아니고 방언이며 그는 여기에서 민족적 언어로부터 결가지로서의 방언은 민족적 언어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리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지들은 언어와 방언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공명하고 있지 않는 모양이다。……

인용문이 적당히 인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바 그 리유는 엥겔쓰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계급적 언어들」이 아니고 주로 계급적 리념, 관념, 풍습, 도덕적 원칙, 종교 정치이기 때문이다。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의 리념, 관념, 풍습, 도덕적 원칙, 종교 정

치가 직접 대립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옳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민족적 언어 혹은 언어의 「계급성」을 운운하는가? 사회에 계급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 과연 언어의 「계급성」을 주장하고 단일적 민족적 언어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동기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맑쓰주의는 언어의 공통성이야말로 민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 있어서 민족 내에는 계급적 제모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위에 말한 동지들은 이 맑쓰주의적 테제를 인정하고 있는가?

라파르그가 자기의 책자 「언어와 혁명」에서 언어의 「계급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전인민적 민족적 언어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라파르그를 인증들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라파르그는 실지로 「궁중의」 혹은 「귀족의 언어」와 사회의 각종의 「통용어」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지들은 라파르그는 언어와 통용어 사이의 차이에 관한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방언을 혹은 「인공적인 말」이니 혹은 「통용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책자에서 「귀족 계급을 구별하는 인공적인 말은…부르죠아도 수공업자들도 도시도 농촌도 그것으로 말한 그 전인민적 언어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따라서 라파르그는 「귀족의 언어」와 다른 방언들과 통용어들의 진정한 성격과 그것들의 전인민적 언어에의 의존성을 완전히 리해하면서 전인민적 언어의 실재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라파르그의 책자의 인증이 적중치 않는 셈이 된다.

일찌기 영국에서는 영국 봉건 령주들이 「수 세기 간이나」 불란서어로 말하였으며 한편 영국 인민은 영어로 말하였다는 것, 이 사태야말로 언어의 「계급성」을 주장하고 전인민적 언어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동기라는 것을 인용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기가 아니고 그 어떠한 일화이다. 첫째 불란서어로 말한 것은 당시 봉건 령주 전부가 아니라 왕궁에 출입하고 작위를 받은 영국 봉건 령주의 얼마 안되는 상부였다. 둘째로 그들은 그 어떠한 「계급적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전인민적 보통 불란서어로 말하였다. 세째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불란서어로 말하는 작란은 그 후 전인민적 영어에 자리를 내여 주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 동지들은 영국 봉건 령주들이 「수 세기 간이나」 통역을 통하여 영국 인민과 말을 하였다느니, 그들은 영어를 리용하지 않았다느니, 또 당시에는 전인민적 영어가 없었다느니, 불란서어가 당시 영국에서 영국 귀족 상부의 좁은 범위에서 만 통용되는 살론 언어이상의 그 어떤 중요한 것이였다느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화적인 「동기」에 기초하여서 전인민적 언

어의 실재와 필요성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가?

한 때에 로씨야의 귀족들도 짜리 궁전과 살론에서 불란서어를 가지고 작란하였다. 그들은 로씨야 말로 말하면서 불란서 말로 떠들썩거리는 것과 불란서 억양을 써서만 로씨야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자랑하였다. 이것이 로씨야에는 그 당시 전인민적인 로씨야 말이 없었으며, 그 때에 전인민적인 말은 허구이며 「계급적 언어」는 실재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동지들은 여기에서 적어도 두개의 오유를 범하고 있다.

첫째 오유는 그들이 언어와 상부 구조를 혼돈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만약 상부 구조가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언어도 전인민적이 아니라 계급적이여야 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언어와 상부 구조가 두개의 상이한 개념이며 맑쓰주의자들은 그의 혼돈을 용허할 수 없다는 것을 위에서 벌써 말하였다.

둘째 오유는 이 동지들이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의 대립과 그들의 가혹한 계급 투쟁을 사회의 붕괴로서 적대적 계급 사이의 각종 련계의 결렬로써 파악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가 붕괴하였으며, 단일적인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계급만이 있는 이상 사회를 위한 단일적인 언어는 필요 없으며 민족 언어는 필요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만약 사회가 붕괴하였으며 다시는 전인민적인 민족적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계급들과 「계급적 언어들이」 남는다. 매개 「계급적 언어」에는 자기의 「계급적」 문법, 즉 「프로레타리아적」 문법과 「부르죠아적」 문법이 있으리라는 것은 리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에 있어서 그러한 문법들은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동지들은 이에 동요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그러한 문법이 나타날 것을 믿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十월 변혁 후 우리 나라에 남은 철도가 부르죠아적 철도이며, 우리들 맑쓰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을 리용하는 것이 적당치 않으며, 그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프로레타리아트적」 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확언하던 그러한 「맑쓰주의자들」이 한 때에 있었다. 그들은 이에 대하여 「혈거자」(穴居者)라는 별명을 받았던 것이다.

사회 계급 언어에 대한 이러한 원시적—무정부주의적 견해가 맑쓰주의와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견해는 혼란된 몇 우리 동지들의 머리 속에 무조건하고 존재하고 있으며, 또 계속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가혹한 계급 투쟁이 현존하기 때문에 사회가 마치 한 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이미 서로 련계가 없는 계급들로 붕괴하였다는 것은 물론 옳지 않는 것이다.

는 바로 그 명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레닌은 「민족어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며 문화를 「무민족적」문화로서 취급한다는 점에서 분드파들이 레닌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을 때 레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것을 반대하여 준렬히 항의하면서 그는 부르죠아 문화를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지 민족어——그는 그 언어의 필요성을 론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몇 우리 동지들이 분드파들의 발자욱을 따라갔다는 것은 괴이한 일이다。

레닌이 그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단일적인 언어에 관하여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레닌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인간 접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언어의 단일성과 그의 자유로운 발전은 현대적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실제적으로 자유롭고 광범한 상업 류통과 모든 개별적 계급을 통한 주민의 자유롭고도 광범한 집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결국 존경하는 동지들은 레닌의 견해를 외곡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쓰딸린을 인증하고 있다。 「부르죠아지와 그의 민족주의적 정당은 이 시기에 있어서 그러한 민족의 주요한 지도적 력량이였으며, 또 그런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쓰딸린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옳은 것이다。 부르죠아지와 그의 민족주의적 정당은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국제주의적 프로레타리아적 문화를 지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죠아적 문화를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계급성」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민족어가 민족 문화의 형태라는 것, 민족어가 부르죠아 문화에도 사회주의적 문화에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동지들은 모르는가? 지금의 로씨야 문화, 우크라이나 문화, 벨로루씨야 문화, 및 기타 문화가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에 있어서는 환언하면 언어에 있어서는 민족적이라는 맑스주의자들의 유명한 공식을 우리 동지들이 모른단 말인가? 그들은 이 맑쓰주의적 공식에 과연 동의하는가?

이곳에서의 우리 동지들의 오유는 그들이 문화와 언어 사이의 차이를 보지 못하며, 문화가 자기 내용에 있어서 사회의 매개 새로운 발전 시기와 함께 변화하는 한편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문화와 낡은 문화에 한결같이 봉사하면서 몇 시기에 걸쳐서 같은 언어로서 남아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 접촉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언제나 사회에 대하여서 단일적이고 그의 성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였으며 또 현재에도 그러하다。

(나) 방언과 통용어의 실재는 전인민적인 언어의 실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확증하고 있는바 그것

그와는 반대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는 단일한 자본주의 사회의 부분들로서 경제적으로 모든 실마리로 서로 련결되여 있을 것이다。 부르죠아는 고용로동자를 자기 관리 하에 두지 않고서는 살 수도 없으며, 부유화될 수도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는 자본가에 고용되지 않고서는 자기 생존을 계속할 수 없다。 이들 사이의 일체 경제적 련계의 절단은 일체 생산의 중단을 의미하며 일체 생산의 중단은 물론 사회의 멸망을, 계급 자체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어느 한 계급도 자기가 소멸 당할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투쟁은 그가 얼마나 첨예한 것이라 하여도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맑쓰주의 재문제에 대한 무식과 언어의 본성에 대한 완전한 몰리해만이 사회의 붕괴, 「계급적」 언어들, 「계급적」 문법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몇 동무들에게 귀틈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레닌을 인증하면서 레닌의 자본주의 하에서의 두개 문화, 즉 부르죠아 문화와 프로레타리아 문화의 실재를 인정하였다는 것과 자본주의 하에서의 민족적 문화의 표어는 민족주의적 표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옳으며 여기에서 레닌은 절대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의 「계급성」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본주의 하에서의 두개 문화에 관한 레닌의 말을 인증하면서 이 동지들은 보는 바와 같이 사회에서 두개 문화, 즉 부르죠아 문화와 프로레타리아 문화의 실재는 언어가 문화와 련결되여 있는 까닭에 언어도 두가지가 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따라서 레닌은 단일적, 민족적 언어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레닌은 「계급적」 언어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고취하려고 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동지들의 오유는 그들이 언어를 문화와 동일시하며 혼돈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언어는 두개의 상이한 산물이다。 문화는 부르죠아적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접촉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항상 전인민적 언어이며, 또 그것은 부르죠아적 문화에게도 사회주의적 문화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로씨야어, 우크라이나어, 우즈베크어가 十월 혁명 전에 그들이 부르죠아 문화에 봉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보다 못하지 않게 지금 이 민족의 사회주의적 문화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동지들은 두개의 상이한 문화의 실재가 두개의 상이한 언어의 형성과 단일적 언어의 필요성의 부정을 가져온다고 확언함으로써 심각하게 오유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두개 문화에 관하여 말하면서 레닌은 두개 문화의 실재가 단일적 언어의 부정을 두개의 언어의 형성을 가져올 수 없다는, 또 언어는 당연히 단일적이여야 한다,

물은 전인민적 언어의 곁가지이며 또 전인민적 언어에 종속되여 있다。

(다) 언어의 「계급성」에 관한 공식은 그릇된 비맑쓰주의적 공식이다。

문、 언어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답 언어는 사회의 존재의 전시기를 통하여 작용하는 사회적 현상에 속한다。 그는 사회의 산생과 발전과 함께 산생하며 발전한다。 그는 사회의 사멸과 함께 사멸한다。 사회 밖에는 언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그의 발전 법칙들은 그가 사회의 력사와 또 연구되는 언어가 속하고 있으며 이 언어의 창조자이며 보지자인 인민의 력사와 끊을 수 없는 련계 밑에서 연구되는 경우에라야만 리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며, 사상을 교환하며, 호상적인 리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며 또 도구이다。

사유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언어는 사유의 사업 결과와 사람의 지각적 사업의 성과를 단어로서 또 문장의 단어들의 결합으로서 등록하고 인증하고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인간 사회에서의 사상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사상 교환은 항구적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교환 없이는 자연력과의 투쟁에서 필요한 물질적 복리의 생산을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의 공동적인 동작을 조직할 수 없으며, 사회의 생산적 활동에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사회적 생산의 자체 존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에 대하여서 리해되고 그의 사회 성원들에 대하여서 공통적인 언어 없이는 사회는 생산을 중지하며, 붕괴하며, 사회로서 존재하기를 그만 둔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는 접촉의 수단이면서도 투쟁과 사회 발전의 도구이기도 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에 있는 모든 단어는 합하여 소위 언어의 어휘 구성을 구성한다。 언어의 어휘 구성에서 주요한 것은 언어의 핵심으로써 모든 근간적 단어들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어휘이다。 그는 언어의 어휘 구성보다도 훨씬 적게 광대하나 그는 매우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을 살고 있으며, 새로운 단어 형성을 위한 토대를 언어에 주고 있다。

어휘 구성은 언어의 발전 상태를 반영한다。

즉 어휘 구성이 풍부할수록, 다방면일수록 언어는 더욱 풍부하며 발전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 구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언어를 구성치 않는다。

그는 오히려 언어를 위한 건설 자료이다。 건축 사업에서 건설 물자는 설혹 그것 없이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이루지 않는 것과 같이 언어의 어휘 구성은 그것 없이는 어떠한 언어도 생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언어 자체를 이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어의 어휘 구성은 그가 언어의 문법의 지배 하에 들어갈 때에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언어의 문법은 단어의 변화 법칙, 문장에서의 단어 결합 법칙을 규정하며 그리하여 정연하고 의미를 가지는 성격을 언어에 부여한다。 문법(형태론, 문장론)은 단어의 변화 및 문장에서의 단어의 결합에 관한 법칙의 집성이다。 따라서 바로 문법의 덕택으로 언어는 사람의 사상을 물질적인 언어의 외피로 둘러쌀 가능성을 받는다。

문법의 특징은 그가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체성도 없는 단어를 고려에 두면서 단어의 변화에 관한 법칙을 주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며 또 그가 어떠한 구체적인 문장, 일례를 들면 구체적인 주어, 구체적인 객어 및 기타 그와 류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또는 저러한 문장의 구체적인 형태에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일체 문장을 고려에 두면서 문장 작성을 위한 법칙을 주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에서나 문장에서나 부분적인 것,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하면서 문법은 단어 변화와 문장에서의 단어의 결합의 기초로 되여 있는 그 공통적인 것으로부터 취해 가지고 그로부터 문법적 규칙들 문법적 법칙들을 구축한다。 문법은 인간의 사유의 장구한, 추상하는 사업의 결과이며 사유의 막대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문법은 기하학을 상기시키는 바 기하학은 구체적인 물체로부터 추상하면서 대상물을 구체성을 잃은 물체로서 간주하며 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물의 구체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일체 구체성을 잃은 물체 일반의 관계로서 규정하면서 자기 법칙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경제를 통하여 생산과 련결되여 있는 상부 구조와는 달리 언어는 례외 없이 모든 인간 사업의 전범위에 있어서의 다른 일체 활동과 면접되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산 활동과 직접 련결되여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변화에 대하여 가장 예민한 언어의 어휘 구성은 거의 부단한 변화 상태에 있으며, 이에 있어 언어는 상부 구조와는 달리 하부 구조의 청산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그는 하부 구조의 철산 전에 그리고 하부 구조의 상태와는 관계 없이 자기와 어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어휘 구성은 상부 구조처럼 낡은 것의 폐지 및 새것의 건설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의 변화, 생산의 발전, 문화 과학의 발전 및 기타와 관련하여 생긴 새 단어들로써 기존 어휘를 보충하는 방법으로써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통례로 약간 수효의 폐어가 언어의 어휘 구성에서 빠져

나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수효의 새 단어가 어휘에 첨가되는 것이다. 기본 어휘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보존되며 언어의 어휘 구성의 기초로서 리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리해할 수 있는 일이다. 짧은 기간에 새로운 기본 어휘를 조성할 수 없는 조건 밑에서 수세기 동안에 축적된 기본 어휘를 없애는 것은 언어를 마비시키고 사람들 호상 간의 접촉을 완전히 혼란시킬 수 있다는 데 관하여서는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만약에 기본 어휘가 여러 력사적 시기를 걸쳐 성과 있게 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을 없애 버릴 어떠한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언어의 문법 구조는 그의 기본 어휘보다 더욱 더디게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에 작성되고 언어의 살과 피 속에 들어간 문법 구조는 기본 어휘보다 더 더디게 변화되는 것이다.

물론 그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를 받으며, 그는 완성하게 되며, 자기의 규칙을 개선하여 보다 정확케 하며 새로운 규칙들에 의하여 풍부하게 되기는 하나 문법 구조의 제 기초는 아주 오랜 시기에 걸쳐 보존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력사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많은 시대에 걸쳐 성과 있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어의 문법 구조와 그의 기본 어휘는 언어의 기초와 그의 특수성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다.

력사는 언어의 커다란 불변성과 동화에 대한 막대한 저항성을 보여 주고 있다. 몇몇 력사가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대신에 경탄하는 데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탄할 아무런 근기도 없는 것이다. 언어의 불변성은 그의 문법 구조 및 기본 어휘의 불변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수백년 동안 토이기의 동화론자들은 발칸 인민들의 언어를 파괴시키고 불구하고 절멸시키려고 애썼다. 이 시기에 발칸의 언어들의 어휘 구성은 커다란 변화를 받았고 토이기의 단어들 및 표현들이 적지 않게 수용되었으며 또한 「접합」도 있었고 「분리」도 있었으나 발칸의 언어들은 견디여 내였고 살아 나왔다. 왜? 왜냐 하면 이 언어들의 문법 구조와 기본 어휘가 대체로 보존되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 의하여 언어와 그의 구조에 어떠한 시대의 산물로서 보미는 아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언어의 구조, 그의 문법 구조 및 기본 어휘는 여러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현대 언어의 제요소는 노예 시대 전인 태고 시대에 이미 기초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휘가 아주 빈약하고 자기 문법 구조가 원시적이지만 어쨌든 문법 구조를 가진 복잡하지 않은 언어였다. 생산의 가일층의 발전, 계급들의 출현, 문

자의 출현, 통치를 위하여 다소간 정연한 문서 왕래를 필요로 하는 국가의 발생, 정연한 문서 왕래를 더욱 필요로 하는 상업의 발전, 인쇄기의 출현, 문학의 발전 — 이 모든 것은 언어 발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종족들과 민족들은 흩어지고, 또한 분산되고, 혼합되고, 교차되였고, 그 후에 민족적 언어들과 국가들이 출현하였고, 혁명적 변혁들이 발생하였고, 낡은 사회 제도들이 새 사회 제도들에 의하여 바뀌여졌다. 이 모든 것이 언어와 그의 발전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언어의 발전은 상부 구조의 발전처럼, 즉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 것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고 생각하며는 심대하게 잘못인 것이다. 사실에 있어 언어의 발전은 기존 언어를 없애고 새 언어를 건설하는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기존 언어의 기본 요소들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이에 있어 언어의 한 질로부터 다른 한 질로의 이행은 폭발 방법에 의하여 낡은 것을 단꺼번에 없애 버리고 새 것을 건설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또 장구하게 그가 언어의 새 요소들과 새 구조들을 축적하는 방법에 의하여 낡은 질의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사멸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언어의 계단적 발전 리론은 그가 낡은 질로부터 새 질로의 언어의 이행 조건으로서 돌연적 폭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맑쓰주의적 리론이라고 말들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 하면 이 리론에서는 맑쓰주의적인 어떠한 것을 찾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약에 계단성 리론이 실지로 언어 발전 력사에서의 돌연적 폭발을 인정한다면 더욱 그 리론을 위하여 좋지 못한 것이다. 맑쓰주의는 언어 발전에 있어서의 돌연적 폭발과 기존 언어의 돌연적 사멸과 또한 새로운 언어의 돌연적 건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파르그는 그가 불란서에서 「一七八九년과 一七九四년간에 수행되였던 돌연적 언어 혁명」에 관하여 말한 것은 잘못이였다. (라파르그의 소책자 「언어와 혁명」 참조). 당시 불란서에서는 어떠한 언어 혁명, 하물며 돌연적인 언어 혁명도 없었다. 물론 이 시기에 있어서 불란서 언어의 어휘 구성은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로써 보충되였고 약간 수효의 페어들이 빠져 나갔고 몇몇 개의 단어들의 의미상 의의가 변화되였다 — 이것뿐이였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조금도 언어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언어에 있어서의 주요한 것은 그의 문법 구조와 기본 어휘이다. 그런데 불란서어의 문법 구조와 기본 어휘는 불란서의 부르죠아 혁명 시기에 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 변화가 없이 보존되였고 또한 보

존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현대 로씨야어속에서 계속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존 언어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어의 건설(「폭발적 언어 혁명」!)을 위하여서는 五—六년의 기한이 우스울만큼 적다는 것, 즉 이를 위하여서는 수백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맑쓰주의는 낡은 질에서 새 질로의 언어의 이행이 폭발의 방법과 기존 언어의 절멸 및 새 언어의 창조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새 질의 요소들의 점차적 축적 방법에 의하여 따라서 낡은 질의 요소들의 점차적 사멸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폭발에 매력을 느끼는 동지들의 참고를 위하여 대체로 말하여야 될 것은 폭발 방법에 의한 낡은 질에서 새 질로의 이행 법칙은 언어 발전 력사에 대하여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은 또한 하부 구조 또는 상부 구조의 질서의 다른 사회적 제현상에 대하여서도 늘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법칙은 적대적 계급들로써 나뉘여져 있는 사회에 대하여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적대적 계급들이 없는 사회에 대하여서는 필연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八—十년 간에 우리들은 우리 나라의 농업에 있어서 부르죠아적 개인농제도로부터 사회주의적 꼴호즈 제도에로의 이행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농촌에 있어서의 낡은 부르죠아적 경제 제도를 청산하고 새 사회주의 제도를 창건한 혁명이였다. 그러나 이 변혁은 폭발 방법에 의하여, 즉 기존 정권의 전복 및 새 정권의 수립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의 낡은 부르죠아 제도로부터 새 제도에로의 점차적 이행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상부로부터의 혁명이였기 때문이며, 변혁이 기본 농민 대중의 지지 밑에 존립하는 정권의 창의에 의하여 수행되였기 때문이였다.

력사에서 발생된 언어의 교차의 수많은 사실들이 교차시에 있어 폭발 방법에 의하여 낡은 질에서 새 질로의 돌연적 이행 방법에 의하여 새 언어의 형성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할 근거를 준다고 말들하고 있다. 이것은 전연 옳지 않다.

언어들의 교차를 수개년 동안에 자기 결과를 내는 결정적 타격의 단독적인 행위로서 보며는 아니 되는 것이다. 언어들의 교차는 수백년 동안 계속되는 장구한 과정인 것이다.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폭발에 관하여서도 운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말하자면 두 언어의 교차의 결과로써 교차된 언어의 어느 하나에도 흡사하지 않고 질적으로 그 중의 어느 것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제三의 언어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전연 잘못인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교차시에 있어 언어 중의 하나는 보통 승리자로 되

여 나오며, 자기의 문법 구조를 보존하며, 자기의 기본 어휘를 보존하며, 자기 발전의 내부적 법칙에 의하여 계속 발전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언어는 점차적으로 자기의 질을 잃고 점차적으로 사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는 어떠한 새로운 제三의 언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 중의 하나를 보존하며, 그의 문법 구조와 기본 어휘를 보존하며, 그와 자기 발전의 내부적 법칙에 의하여 발전할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 패배된 언어들로써 승리한 언어의 어휘 구성이 약간 풍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한 언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강화시키는 것이다.

례컨대 력사적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다른 산 민족의 언어들과 교차되였고 늘 승리자로 되여 왔던 로씨야어가 그렇었다.

물론 로씨야어의 어휘 구성은 이에 있어 다른 언어의 어휘 구성으로써 보충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로씨야어를 약화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로씨야어를 풍부하게 하였고 강화시켰다.

로씨야어의 민족적 자주성에 관하여 말하다면 그것은 조금마한 손실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로씨야어는 자기의 문법 구조와 기본 어휘를 보존하면서 자기 발전의 내부적 법칙에 의하여 계속 전진하고 완성되였기 때문이다.

물론 교차의 리론이 쏘베트 언어학에 대하여 어떠다 할 중대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만일에 언어학의 주요한 과업이 언어 발전의 내부적 법칙의 연구이라는 것이 옳다면 교차 리론은 비단 이 과업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세우지도 못한다. 즉 그는 단순히 그것을 알아 채리지 못하거나 또한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쁘라우다」는 언어학의 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을 개시하면서 옳바르게 행동하였는가?

답 옳바르게 행동했다.

언어학의 제문제가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 해결될 것인가—이것은 토론 끝에 명백하게 되였다. 그러나 토론이 커다란 리익을 가져 왔다는 것은 현재에 있어 이미 말할 수 있다.

토론은 우선 해명한 것은 중앙 및 제공화국의 언어학 기관 내에 있어서 과학 및 과학인에게 고유하지 않는 제도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쏘베트 언어학의 사태에 대한 가장 조그마한 비판과 또한 언어학에서의 이른바 「새 학설」에 대한 가장 대담치 못한 미

판의 시도도 언어학의 지도층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며 금서를 당하였던 것이다。 느·야·마르의 유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한 탓으로, 느·야·마르의 학설을 조금이라도 불찬성하였다는 탓으로, 언어학 부면에서의 귀중한 일군들과 연구자들이 철직되였거나 또는 철직되였다。언어학의 활동가들은 사업 상 정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느·야·마르의 학설을 무조건으로 인정하는 정후에 따라서 책임적 직책에 등용되였던 것이다。

어떠한 과학도 의견의 투쟁이 없이 비판의 자유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일반이 다 아는 규칙은 가장 란폭하게 무시되였고 유린되였던 것이다。 온갖 있을 수 있는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한게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아주 협소한 지도자 그루빠가 조성되였다。

실례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즉 이른바 「바구 강화록분」(바구에서 한 느·야·마르의 강의록)은 저자 자신에 의하여 좋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여 재출판이 금지되여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메스차니노브 동지는 그들을 느·야·마르의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의 지시에 의하여 그것이 재출판되였고 온갖 보류 조건이 없이 학생들을 위한 추천 참고서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이것은 좋지 않다고 인정된 「강화록」들을 완전한 가치가 있는 참고서로서 사창하고 학생들은 기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메스차니노브 동지 및 기타 언어학 활동가의 성실성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러한 행위가 해독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된 것은 언어학에서 조성된 아락체예브 제도(아락체예브는 알렉산드르 一세 시대의 총신의 이름인데 가혹한 군벌 통치 제도를 말함——역자주)가 무책임성을 배양하고 그러한 란포한 행위를 고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은 우선 그가 아락체예브 제도를 백일 하에 드러내였고 그를 철저하게 분쇄하였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것이였다。

그러나 토론의 리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토론은 언어학에서의 낡은 제도를 분쇄하였을뿐만 아니다。 그는 또한 이 과학 부면의 지도자층들 사이에서 지배하고 있는 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견해들의 믿을 수 없을 만한 혼란을 드러내였다。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들은 침묵을 지켰고 언어학의 평온치 않은 상태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된 후에는 벌써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되였다。 즉 그들은 출판물 지상에 출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는가? 느·야·마르의 학설 속에는 아주 많은 결함과 오유와 밝혀지지 않은 문제와 연구되지 않은 명제들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묻노니 왜 느·야·마르의 「제자들」은 이에 관하여 토론이 개시된 이후인 지금에야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가? 왜 그들은 이에 관하여 미리 마음을 쓰지 않았던가? 왜 그들은 일찌기 과학인답게 이에 관하여 털어놓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던가?

느·야·마르의 「제자들」은 느·야·마르의 「[illegible]」 오유를 인정하나 앞으로 쏘베트 언어학은 오직 느·야·마르의 「정밀한」 리론의 기초 위에서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은 느·야·마르의 리론을 맑쓰주의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천만에 느·야·마르의 「맑쓰주의」라니 느·야·마르는 실지에 있어 맑쓰주의자로 되려고 원하고 또한 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는 맑쓰주의자로 되지 못하였었다。 그는 겨우 「프로레뜨꿀뜨 회원」(프로레뜨꿀뜨 —一九一七년—一九三二년 간에 쏘련에 존재하였고 자기 사업을 당에 대립시킨 문화 교육 단체의 명칭——역자주) 이나 또는 「라쁘 회원」(라쁘 —一九二三년—一九三二년 간에 쏘련에 있었던 로씨야 프롤레따리아 작가 협회의 략칭——역자주)과 같은 맑쓰주의를 단순화시키는 사람이며 비속화시키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느·야·마르는 상부 구조로서의 언어에 관한 옳지 못하고 비맑쓰주의적인 공식을 언어학에 끌어넣음으로써 자신을 혼란시켰고 언어학을 혼란시켰다。 옳지 못한 공식의 기초 위에서는 쏘베트 언어학을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느·야·마르는 언어의 「계급성」에 관한 또 하나의 옳지 못하고 비맑쓰주의적인 공식을 언어학에 집어 넣음으로써 자신을 혼란시켰고 언어학을 혼란시켰다。 인민들과 언어들의 력사의 전과정에 배치되는 옳지 못한 공식들의 기초 위에서는 쏘베트 언어학을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느·야·마르는 맑쓰주의에 고유하지 않는 교만하고 소요스럽고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언어학에 집어 넣었는바 이 태도는 느·야·마르 이전의 언어학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간단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느·야·마르는 비교—력사학적 방법을 「유심론적」 방법이라고 소요스럽게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말하여야 할 것은 비교—력사학적 방법은 그의 커다란 결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느·야·마르의 실제적으로 유심론적인 四원소 분석보다는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사업에로, 언어의 연구에로 추동시키고 있으나 후자는 다만 자기의 페치카 위에 들어누워 악명 높은 四개 요소를 둘러싸고 커피의 찌께기로 점을 치도록 추동할 뿐이다。

느·야·마르는 언어 그루빠(족)를 연구하는 온갖 시도를 「조어」 리론의 표현이라고 거만스럽게 코웃

음하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슬라브 민족들과 같은 그러한 민족들의 언어의 친족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민족들의 언어의 친족 관계의 연구가 언어 발전 법칙의 연구 사업에 있어서 언어학에 커다란 리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원시어」의 리론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느·야·마르와 특히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 느·야·마르 이전에는 어떠한 언어학도 없었으며 언어학은 느·야·마르의 「새 학설」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맑스와 엥겔쓰는 훨씬 보다 더 겸손하였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선행하는 제시기에 있어서의 철학을 포함한 과학 발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토론은 그가 쏘베트 언어학에 있어서의 사상적 결함을 밝히였던 점에 있어서도 역시 도움을 주었다.

나는 우리 언어학이 느·야·마르의 오유로부터 급속히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급속히 그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위기로부터 그를 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어학에 있어서의 아락체예브 제도의 숙청, 느·야·마르의 오유의 청산 및 언어학에의 맑스주의의 도입 — 이러한 것이 나의 의견에 의하면 쏘베트 언어학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쁘라우다」 一九五〇년 六월 二十일부

언어학의 몇개 문제들에 대하여

에·끄라세민니꼬바 동지에게 보내는 회답

에·끄라셰닌니꼬바 동지!

당신의 질문들에 대답하겠습니다.

1, 문 언어는 하부 구조도 상부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 당신의 론문에 아주 뚜렷하게 증명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는 하부 구조에도 상부 구조에도 고유한 현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어를 중간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까?

답 물론 사회적 현상인 언어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현상에 특유한 그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어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회적 현상이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현상에 특유한 그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것으로써 전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현상들 사이에 심중한 차이점들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데 있습니다. 즉 사회적 현상들은 이 공통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들을 호상 구별하는바 각자에게 특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들은 과학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부 구조의 특수한 특성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상부 구조의 특수한 특성은 그것이 정치적, 법률적, 미학적 및 기타의 리념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며 사회를 위하여 해당하는 정치적, 법률적 및 기타의 제도를 창건하는 데 있습니다. 언어를 다른 사회적 현상들과 구별하는 언어의 특수한 특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언어가 사람들의 접촉 수단으로서 사회에서의 사상 교환 수단으로서 생산 분야에서나, 경제적 제관계의 분야에서나, 또는 정치 분야에서나, 문화 분야에서나,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나, 일상 생활에서나 할 것 없이 인간 활동의 모든 령역에서 호상 간에 리해하며 공동적 사업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주는 수단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 특성은 오직 언어에만 고유한 것이며 또 바로 그것이 오직 언어에만 고유하기 때문에 언어는 독자적인 과학 — 언어학의 연구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이 특성이 없다면 언어학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권리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언어는 하부 구조의 부류에도 상부 구조의 부류에도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어는 또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간의 「중간적」 현상의 부류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중간적」 현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은 언어를 사회의 생산 제력의 부류에, 이를테면 생산 도구의 부류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실지에 있어 언어와 생산 도구와의 사이에는 약간의 류사점이 존재합니다. 즉 생산 도구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계급들에 대하여 일종의 무차별적 관계를 가지며 낡은 계급이나 새 계급이나 할 것 없이 사회의 각종 계급에 동일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언어를 생산 도구의 부류에 넣을 근거를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지 않습니다.

한때에 느·야·마르는 「언어는 하부 구조 위에 있는 상부 구조이다」라는 그의 공식이 반박을 받는 것을 보자 이것을 「개편」하기로 결심하고 「언어는 생산 도구이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언어를 생산 도구의 부류에 넣은 느·야·마르는 정당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정당치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데 있습니다. 즉 언어와 생산 도구가 서로 비슷한 점은 내가 방금 위에서 말한 그 류사점으로써 전부입니다. 그 대신에 언어와 생산 도구와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점은 곧 생산 도구는 물질적 재부를 생산하나 언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며 또는 겨우 단어만을 「생산」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생산 도구를 가지고 물질적 재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 그같은 사람들은 생산 도구가 없이 언어만을 가지고서는 물질적 재부를 생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언어가 물질적 재부를 생산할 수 있다면 말공부쟁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로 되였을 것이라 함은 리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 문 맑쓰와 엥겔쓰는 언어를 「사상의 직접적인 실재」로써 「실천적인……현실적 의식」으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념은 언어와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맑쓰는 말합니다. 당신의 의견에 의하면 언어학은 언어의 의의적 측면, 즉 의의론(意義論)과 력사적 의의학과 문체론(文體論)을 어느 정도로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까, 또는 언어학의 대상으로 되여야 하는 것은 오직 형태뿐입니까?

답 의의론(의의학)은 언어학의 주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단어와 표현의 의의적 측면은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론(의의학)은 언어학에서 그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의론의 제문제를 연구하며 그 자료들을 리용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과대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더우기 그것을 람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약간의 언어학자들, 즉 의의

론에 너무나 열중하여서 사유와 불가분으로 련결되여 있던 「사고의 직접적인 실재」로서의 언어를 무시하며 사유를 언어와 분리시키며 그리하여 언어는 벌써 세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다느니, 언어가 없어도 해나갈 수 있다느니 하고 단정하는 그러한 언어학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야·마르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의를 돌려 보십시오.

「언어는 오직 그것이 음성으로 되여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유 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도 진행되는 것이다……언어(음성적)는 오늘날 이미 자기의 기능을 최신의 고안물들—무조건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서 있는—에 넘겨주기 시작하였으나 사유는 과거에 리용되지 않았던 그의 축적물들과 새로운 획득물로써 번영해 가고 있으며 언어를 완전히 대신하며 대체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언어는 자연적 물질로부터 해방된 기술 가운데서 자라나는 사유인 것이다. 이 사유 앞에서는 어떠한 언어도 심지어는 음성적 언어조차도—그것도 역시 자연의 기준과 결부되여 있기 때문에—견디여 내지 못하는 것이다」(느·야·마르의 「저작 선집」 참조)

이 「마술사의 참고대와 같은」 난해한 문장을 보통 사람의 말로 옮긴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느·야·마르는 사유를 언어와 분리시키고 있다.

(나) 노·야·마르는 사람들의 접촉은 언어의 「자연적 물질」로부터 해방된 또는 「자연의 기준」으로부터 해방된 사유 자체의 힘을 빌어서 언어가 없이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다) 사유를 언어와 분리하며 그것을 언어의 「자연적 물질」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느·야·마르는 관념론의 진창에 빠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상은 그것이 말로 표현되기 전에 사람의 머리에 발생하는 것이며 언어의 재료가 없이, 언어의 외피가 없이, 이를테면 벌거벗은 채로 발생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상이 사람의 머리에 발생하든지 그것은 오직 언어의 재료에 기초하여서만 언어의 용어들과 문구들에 기초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재료로부터 해방된 벌거벗은 사상, 또는 언어의 「자연적 물질」로부터 해방된 벌거벗은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상의 직접적인 실재이다」(맑쓰). 사상의 현실성은 언어에 발현됩니다. 오직 관념론자들만이 언어의 「자연적 물질」과 결부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언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의론의 과대 평가와 그 람용은 느·야·마르를 관념론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느·야·마르와 약간의 그의 「제자들」이 범

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러한 과장과 남용으로부터 의의론(의의학)을 수호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리익을 언어학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3、문 당신은 사상、관념、풍습、도덕적 원칙이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에게 있어 직접 대립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아주 정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이 현상들의 계급적 성격은 무조건적으로 언어의 의의적 측면에 반영되였던 것입니다。(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론문에서 옳게 지적되여 있는바와 같이 때로는 언어의 형태、어휘 구성에 이르기까지 반영되였습니다) 구체적인 언어 재료와 그리고 우선 언어의 의의적 측면을 분석할 때에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의 계급적 본질에 대하여——특히 인간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의 계급적 소속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그의 태도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로 될 때에——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 간단히 말하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계급들은 언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그들은 자기들의 특수한 단어들과 표현들을 언어에 집어 넣고 있는가、사람들은 계급적 소속에 따라서 각이한 의미상의 의의를 동일한 단어와 표현에다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렇습니다。계급들은 언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며 자기들의 특수한 단어들과 표현들을 언어에 집어 넣으며 때로는 동일한 단어들과 표현들을 각이하게 리해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로부터 특수한 단어 및 표현들과 의의에 있어서의 차이가 단일한 전인민적 언어의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든가 그것이 언어의 의의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그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든가 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런 특수한 단어 및 표현들과 의의상 차이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은 언어에 있어서 그 수가 아주 적은 것이며 그것은 아마 언어 재료 전체의 一%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나머지 압도적 대다수의 단어 및 표현들과 그 의의들은 죄다 사회의 모든 계급에 공통적인 것입니다。

물째로 계급적 색채를 가진 특수한 단어들과 표현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계급적」문법의 규칙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현존하는 전인민적 언어의 문법적 규칙에 의하여 말과 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한 단어들과 표현들이 존재하는 것과 언어의 의의상 차이를 볼 수 있는 사실들은 단일한 전인민적 언어의 존재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4、문 당신은 자기의 론문 가운데서 마르를 맑쓰주의를 비속화한 사람으로서 아주 옳바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우리 청년들까지를 포함하여 언어학자들이 마르의 모든 언어학적 유산을——마르에

는 역시 일련의 귀중한 언어학적 연구(이에 대하여서는 치꼬바와 싼제예브 및 기타 동지들이 토론에서 쓰고 있습니다)가 있기는 하나——포기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마르를 비판적으로 취급하면서도 역시 그에게서 유익하고 귀중한 것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답 물론 느·야·마르의 저서들은 한갓 오유들로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느·야·마르는 그가 언어학에 맑쓰주의의 요소들을 외곡된 형태로서 집어넣었을 때 또는 그가 독자적인 언어 리론을 창조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그는 엄중한 오유들을 범하였습니다。그러나 느·야·마르에게는 재능있게 서술된 개별적인 훌륭한 저서들이 있습니다。이 저서들에서 그는 자가의 리론적 참망을 잊어버리고 량심적으로 그리고 솜씨 있게 개별적 언어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이런 저서들 가운데서는 귀중하고 교훈적인 것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이 귀중하고 교훈적인 것을 느·야·마르에게서 섭취하여 리용하여야 할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5、문 쏘베트 언어학에서 정체(停滯)의 기본 원인의 하나로 되는 것은 형식주의라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언어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신의 의견을 물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답 느·야·마르와 그의「제자들」은 느·야·마르의「새 학설」에 찬동하지 않는 모든 언어학자들을 을「형식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물론 신중한 태도가 아니며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느·야·마르는 문법을 쓸데 없는「형식」이라고 간주하였으며 문법적 구조를 언어의 기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형식주의자라고 간주하였습니다。이것은 전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형식주의」라는 것은「새 학설」의 제창자들이 언어학에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투쟁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쏘베트 언어학에서 정체의 원인으로 되는 것은 느·야·마르와 그의「제자들」이 고안한「형식주의」인 것이 아니라 언어학에서의 아락체예브 제도와 리론적 결함들인 것입니다。아락체예브 제도를 수립한 것은 느·야·마르의「제자들」이였습니다。리론적 혼란을 언어학에 가져온 것은 느·야·마르와 그의 가까운 전우들이였습니다。정체를 일소하기 위하여서는 이 량자를 죄다 숙청하여야 합니다。이 병근의 숙청은 쏘베트 언어학을 건전하게 만들 것이며 그것을 광활한 대로 위에 올려 세울 것이며 세계 언어학에서 첫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을 쏘베트 언어학에 줄 것입니다。

一九五〇년 六월 二十九일

이·쓰딸린

(「볼쉐위끄」지 十二호에서)

끝날때까지 (boxed heading as printed: 끝쓸따찌야)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쏘베트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박 정 호

一九四一——一九四五년의 전쟁은 쏘베트 국가의 력사에서 그 어느때 체험한 전쟁보다도 가장 가혹한 전쟁이였었다.

一九四一년 六월 二十二일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공격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자기의 무력과 경제를 전쟁을 위한 준비에 경주한 악독하고 교활한 히틀러 군대는 불의에 또 배신적으로 쏘베트 국가를 침공하였다.

구라파의 일련의 나라들을 예속시킨 독일 파씨스트 군대는 자기의 종속자들의 도움을 받아 쏘베트 동맹을 반대하는 전쟁을 개시하였다. 쏘베트 동맹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위한 적절한 시기만 기다리고 있던 제국주의 일본도 독일—파시스트 침략자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다. 히틀러 도배는 독일내와 구라파의 예속된 나라들의 군사 공업을 리용하면서 자기의 훈련된 군대를 수천의 땅크와 비행기로써 발톱까지 무장시켰다.

히틀러 군대의 침공은 쏘베트 인민과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 치명적 위협으로 되였었다.

쏘베트 동맹에 닥쳐온 위협의 진상을 해명하면서 쓰딸린은 一九四一년 七월 三일 력사적인 자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특징지였다.

「적은 포악하고 완강하다. 놈들은 우리의 땅에 무엇은 우리의 땅을 빼앗으며, 우리의 로동으로 획득한 우리의 곡물과 원유를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놈들은 지주의 정권을 회복시키고 짜리 정체를 회복시키며 로씨야인……기타 자유 애호 인민의 민속적 문화와 민족적 국체를 깨뜨리고 그들을 독일인화시키며, 그들을 독일 후작과 남작들의 노예로 개변할 것을 목적한다.」(쓰딸린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에 대하여」 一九四九년 로동당 출판사판 七페지)。

쓰딸린은 쏘베트 인민들에게 자기의 승리에 대한 확신, 자기의 력량에 대한 신뢰, 적의 붕괴의 불가피성에 대한 확고 부동한 신념을 주입시키면서 쏘베트 인민들에게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헌신적으로 방비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적을 분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쏘베트 사람들이 위험성을 리해하며 안일감 무관심성 및 평화적 건설의 기분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쏘베트 사람들은 동원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사업은 전시 태세로 갖추며 자기의 모든 력량을 해방 전쟁의 목적—독일 침략자들을 완전히 분쇄하는데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쏘베트 인민들은 조국에 닥쳐온 위험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쓰딸린의 호소에 총궐기하였다.

쓰딸린의 호소에 의하여 국가의 인민 경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전선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급속히 개편되였다. 이리하여 정비되고 급속히 장성된 군사 경제가 창설되였는바 이 군사 경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쏘베트 군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쓰딸린의 발기에 의하여 창설되였으며, 쓰딸린이 지도한 국방 위원회는 위대한 쓰딸린적 방어 계획과 적의 종국적 분쇄의 실현에로 나섰다. 국방 위원회는 국가의 전권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고 쏘베트 인민의 모든 력량을 동원 조직하였으며 전체 쏘베트 인민들을 륙 해군에 대한 헌신적 지지와 적의 분쇄 및 적에 대한 승리를 위하여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정부의 주위에 집결시켰다.

볼쉐위끼당 중앙 위원회와 지방 당 단체들은 붉은 군대의 전선의 강화와 견고한 후방 조직에 가장 우수한 력량을 집중하였다.

전쟁 초기에 있어서 붉은 군대는 일시적인 실패를 보게 되였다. 적은 一九四一년 겨울에 쏘베트 령토의 상당한 지역을 점령하였다. 점령된 지역들은 쏘베트 동맹의 각 생산 부문에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지역들이였다. 그 지역에서는 전쟁 전 전체 석탄 생산량의 六三%, 선철 생산량의 六八%, 강철 생산량의 五八%, 알미늄 생산량의 六〇%, 전쟁 전 총 곡물 생산량의 三八%, 전체 유각 가축의 거대한 수의 三八%와 전체 양돈수의 六〇%가 생산되였다.

이와 같은 지역들이 히틀러 강도배들에 의하여 파괴 손실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쏘베트 인민은 락심하지 않았다.

붉은 군대가 부득이 쏘베트 조국의 촌락과 도시들을 포기하고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때의 정세는 쏘

편에 있어서 가장 곤난한 시기였었다。이 곤난한 시기에 있어서 전체 쏘베트 인민들은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에 대하여 거대한 신뢰와 굳은 지지를 표명하였다。그들이 그처럼 곤난한 시기에 표시하여 준 신뢰를 높이 평가하며 또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공산당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적과의 가혹한 전투에서 쏘베트 인민들은 레닌—쓰딸린당의 지도하에 승리에로 전진하였다。

모쓰크바 당 단체 하나만 하여도 쓰딸린의 지시에 고무되여 전쟁의 첫 며칠 동안에 수천명의 전사들을 전선에 보내였다。모쓰크바 사람들의 첫 대렬에는 여전히 공산당원들과 당의 진실한 방조자인 공청원들이 나갔다。

쏘베트 동맹을 반대하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히틀러 도배는 독일 파시스트 군대가 쏘련국경 내에 침입하자마자 쏘베트 인민들 간에 반목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쏘련의 후방의 불공고성에 대한 독일 파시스트들의 교활한 타산은 모두 완전한 파탄을 당하고 말았다。

위대한 로써야 민족을 선두로 하여 쏘련의 제민족들은 볼쉐위끼당의 지도 하에 더욱 굳게 단결하였으며, 거대한 애국주의적 앙양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에 나섰다。

후방의 로력자들은 전선을 원조함에 있어서 자기의 노력을 몇 十배나 더 발휘하였다。쏘베트 인민의 애국주의적 앙양과 대중적、로력적 영웅성은 날마다 장성하였으며 전대 미문의 력량으로써 발현되였다。

동부 지대에서는 대규모적 건설이 진행되였다。우랄、씨비리、중앙 아세아에서는 많은 발전소들이 건설되였으며、흑색 금속 공업과、유색 금속 공업의 공장들이 재건되였다。독일 파시스트 강탈자들과의 전쟁은 전선에로의 무기 공급에 있어서 우랄은 중요한 부담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위력있게 보장하였다。

쓰딸린은 一九四一년 七월 三일의 자기의 연설에서 강력한 쏘베트 인민의 불패의 력량에 대한 심심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힘은 무궁 무진하다。거만을 부리는 적은 미구에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여러 천명의 로동자、꼴호즈원、인테리겐챠는 붉은 군대와 합께 우리를 침공한 적과의 전쟁에 일어나고 있다」(동서 一一一二페지)。

쏘베트 동맹에 부닥친 대단히 심중한 위험을 쏘베트 인민들 앞에 명백히 보여 주면서 쓰딸린은 쏘련의 모든 인민들이 히틀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이며、자기 희생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의 국가를 창조하신 위대한 레닌은 말하기를

용감하고 과감한 투쟁에 있어서 두려움을 모르는 것、우리 조국의 적들을 반대하여 인민들과 더불어 싸울 각오가 되여 있는 것등이 쏘련 사람들의 기질로 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이 훌륭한 볼쉐위끼의 기질은 몇백만의 붉은 군대와 우리 나라의 붉은 함대 및 쏘베트 동맹의 모든 인민들의 재산으로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쓰딸린은 쏘베트 인민을 독일 파시즘을 타승하는데 대한 확고 부동한 신념으로써 무장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히틀러 파시스트 군대는 나포레온 군대와 윌헬름의 군대가 격파된 것과 꼭같이 분쇄되여야 하며 또 분쇄될 것이다。」

위대한 쓰딸린의 연설은 매개 쏘베트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그것은 쏘베트 조국의 영예와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의 강령으로 되였으며、독일 파시즘을 타승하기 위한 투쟁의 강령으로 되였다。

불의의 공격의 우월성을 리용한 적의 숫적으로 우세한 력량과 무장의 급습 밑에서 쏘베트 국가가 부득이 전투하면서 나라의 중심 깊이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가혹한 시련의 날에 있어서 쏘베트 인민들의 위대성과 견고성은 특히 힘있게 발로되였다。

위대한 쏘베트 인민들은 비상한 인내성으로써 전쟁 초기 단계의 일시적 패배의 고통을 극복하면서 볼쉐위끼당에 대하여 그리고 쏘베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동요없이 유지하였으며 쏘베트 군대가 적을 쳐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달성할 것을 굳게 믿었다。

전쟁의 첫 시기에 있어서의 자기 희생적 방어의 현저한 실례의 하나는 로써야의 고도 쓰몰렌쓰크의 三十일간 방어이다。또한 쏘련의 애국자들은 오뎃싸를 六十일간 용감하게 방어하였다。이러한 영웅성、용감성、헌신성을 레닌그라드 방위자들이 보여 주었다。

모쓰크바와 레닌그라드 및 기타 도시들의 주민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싸움으로써 자기 조국의 도시들을 적기의 공습으로부터 방어하였다。독일 파시스트들은 쏘베트 조국의 수도 모쓰크바를 파괴하고 초토화할 목적을 세웠다。모쓰크바의 주민들은 一九四一년 七월 二十二일、二十三일 수도에 대한 적의 첫공습시에 벌써 용감성과 과감성 및 침착성을 발휘하였다。모쓰크바 방공대의 의용병들은 두려워함이 없이 소화 작업에 투신하였다。

一九四一년 十월 적이 막대한 손실을 무릅쓰고 모쓰크바의 부근에 접근하였을 때 수천명의 애국자들은 볼쉐위끼당의 부름에 응하여 의용병으로써 수도 방위에 출동하였다。

쏘베트 국가의 수도 모쓰크바를 방위하기 위하여 쏘베트 동맹의 모든 인민들은 자기들의 력량을 로써야 인민의 주위에 집결시켰다。

전쟁의 위험은 수도 모쓰크바에 닥쳐 왔고 전투는

아야 하며, 우리의 로동자, 사무원, 남자와 녀자가 기업소에서 수수 방관 하지 말고 일해야 하며, 전선에 더욱 더 많은 땅크, 대전차포, 비행기, 대포, 박격포, 기관총, 장총, 탄약을 주어야 하며, 우리의 남녀 콜호스원들이 자기의 전원에서 수수 방관하지 말고 일하여야 하며, 전선에와 나라에 더욱 더 많은 곡물, 수육, 산업 원료를 공급해야 하며, 우리 나라 전체와 쏘련의 전인민이 우리 륙해군과 함께 우리 조국의 명예와 자유를 위한 독일 군대의 절멸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을 수행하는 유일한 전투 진영에 결속되여야 할 것이다」(동서 四○페지) 라고 쓰딸린은 전체 쏘베트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쓰딸린의 이 지시는 야수적 히틀러 도배들과의 전쟁에서 쏘련 인민들의 전투적 강령으로 되였다.

一九四一년 十二월 초에 쏘베트 군대는 위대한 쓰딸린의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면서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줌으로써 강력한 반공격으로 전환하였다. 모쓰크바를 포위하고 점령하려던 히틀러 도배의 계획은 파탄되였다. 모쓰크바 근방에서의 히틀러 군대의 괴멸은 전쟁 첫해의 결정적, 군사적 사변으로 되였으며 제二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 독일—파시스트 군대의 최초의 거대한 패배로 되였다. 모쓰크바 근방 전투에서 독일 파시스트 군대가 당한 패배는 독일 군대의 불패성에 관한 히틀러 도배들의 전설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다。

一九四二년 여름과 가을, 즉 독일—파시스트 군대가 구라파의 제二 전선이 없는 것을 기화로 서남쪽으로 공격을 해온 때에 위대한 로써야 인민과 쏘련의 모든 인민들의 용감성은 새로운 힘으로 나타났다.

쓰딸린그라드 방어전은 전쟁의 력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투였었다. 쓰딸린그라드 전선의 전사들, 지휘자 및 정치 일꾼들은 가렬한 전투가 최고 절정에 달하였을 때 쓰딸린에게 보내는 자기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전투적 깃발 앞에, 전 쏘베트 국가 앞에 로써야 무기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으며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싸울 것을 우리는 맹세합니다. 당신의 지도 하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짜리찐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며,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의 지도 하에서 위대한 쓰딸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다」(이·브·쓰딸린 략전 당출판사판 一九三페지).

쓰딸린그라드의 방위자들은 자기의 맹세를 영광스럽게 수행하였으며, 자기의 대담성과 희생성, 과감성과 견인성으로써 전세계 인민들을 경탄케 하였다.

히틀러 도배들은 쓰딸린그라드의 방어자들의 견고성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一九四二년 八—九월 경에 쓰딸린그라드 부근에 三十六개의 독일 사단과 二천대의 비행기가 집중되였다. 도시는 一、五○○문의 대포의 공격을 받았으며 적의 비행대는 하루

에 약 二、○○○대나 날아와서 간단없이 가혹하게 도시를 폭격하였다.

이 가렬한 전투에서 토치카 제十一호의 영웅적 투쟁원 七명의 공훈은 영원 불멸이다. 토치카의 방위자들은 죽더라도 일보도 퇴각하지 않겠다고 맹세 시를 쓰고 그것을 린접 토치카에 전달하였다. 가렬한 전투가 三일간 계속되였다. 히틀러 도배가 구축된 후에 토치카 제十一호에서 기관총수 깔류쥬니의 가스마쓰크가 발견되였는데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편지가 있었다. 「나의 조국! 로씨야의 땅! 경애하는 쓰딸린 동지! 나는 레닌—쓰딸린적 공청의 아들이며 그의 제도이다. 나는 심장이 속삭인 그대로 싸웠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을……나는 군인 선서를 지켰다. 깔류쥬니」.

쓰딸린그라드 방위자들은 전대 미문의 전투를 이겨내고 마침내 천재적인 쓰딸린적 전략 계획을 실현하면서 공격으로 넘어 갔으며 三十만이나 되는 파시스트 군대를 섬멸 또는 포로하였다. 쓰딸린그라드 전투에서 쏘베트 무력이 거둔 승리는 위대한 조국 전쟁의 력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승리이며 히틀러 군대의 몰락으로 되였다. 그때로부터 쏘베트 군대는 쏘련의 령토로부터 적을 대량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제성과들과 쏘베트 인민들의 영웅성에 관하여 말하면서 쓰딸린은 一九四三년 二월 二十三일부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바쓰또뽈리와 오데싸의 영웅적 방어, 모쓰크바 부근과 깝까즈 전면 산지에서와 또 르제브 지방과 레닌그라드 근방에서의 격렬한 여러 전투, 전쟁 력사에서 가장 위대한 쓰딸린그라드 성벽 곁에서의 전투에 대한 기억을 우리 인민이 언제든지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이 위대한 여러 전투에서 용감한 우리 군인, 장교 및 정치 일꾼들은 사라질 수 없는 영예로써 붉은 군대의 전투적 기치를 빛나게 하였으며 또 독일 팟쇼 군대를 승리함에 대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동서 一一六—一一七페지).

준엄한 전쟁의 시련기에 있어서 쏘베트 인민들의 볼쉐위끼당에 대한 동요없은 신뢰는 당 대렬의 장성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전선에서 쏘베트 군대의 투쟁을 조직하면서 레닌—쓰딸린당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몇해 동안 인민 대중의 새롭고 강력한 백절 불굴의 로력적 앙양의 조직자로 되였다.

「조국 전쟁 시기에 당은 팟쇼적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 인민적 투쟁의 고취자이며 조직자로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당의 조직 사업은 모든 우리의 힘과 수단을 적을 박멸하는 사업에 종속시키고 쏘련 사람들의 모든 로동을 한데 뭉치며 또 공동한 목적에 인도하였다. 전쟁 기간에 당은 인민과 더욱 더 친근해졌으며 광범한

그러나 꼴호즈에 있어서 로동 생산성은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긴장된 로력적 열성으로 현저하게 장성하였다。동시에 꼴호즈 제도가 적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형태라는 것이 더욱 확증되였다。쓰딸린이 교시한 바와 같이 「조국 전쟁 시기에 농촌에서 미증유의 전 인민적 리익에 대한 가장 높은 자각을 표시하였다。」

전쟁 초에 꼴호즈원들은 즉시에 동부와 중앙 아세아에서 파종면적의 확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벌써 一九四一년 가을에는 후방 지대의 꼴호즈들은 一六○만 헥따르의 추파 농작물의 파종 면적을 확장시켰다。一九四二년 봄에는 그들은 二十만 三천 헥따르의 공업용 농산물의 파종 면적을 증가시켰으며 그때 가을에는 二六○만 헥따르의 추파 농작물의 파종을 실시하였다。一九四四년에는 돈, 유고라이나, 꾸반의 해방과 관련하여 파종 면적이 七○○만 헥따르나 확장되였다。

이와 같은 확대 재생산의 경향은 축산 분야에서도 나타났다。一九四二년에 후방의 꼴호즈들은 유각(有角)가축의 거대한 수를 증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또한 양(羊)과 염소를 一一% 증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一九四三년에 후방의 꼴호즈들은 해방된 지방의 꼴호즈원들에게 유각 가축을 공급하는 형태로 그들을 광범히 원조하였다。

조국 전쟁의 경험은 꼴호즈 제도가 전쟁 기간의 곤난한 조건 하에서 복잡한 과업을 영광스럽게 수행하여 쏘베트 농업의 장래 발전을 보장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쓰딸린은 「물론 꼴호즈 제도가 없었고 남녀 꼴호즈원들의 헌신적 로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가장 어려운 임무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전쟁의 제三년에 우리의 군대가 식량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는 식량을, 공업에는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꼴호즈 제도의 힘과 생활적 꼴호즈 농민의 애국심이 표현된 그것이다」(동서 一五七—一五八페지)라고 말하였다。

쏘베트 인테리겐챠는 쏘베트 조국 방위 사업에 성실히 복무하였으며, 쏘베트 군대의 무장을 부단히 완성하였으며, 기술과 생산 조직을 제고시켰으며, 또 전선의 곤난한 조건을 무릅쓰고 쏘베트 과학과 문화를 진진시켰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위대한 로씨야 인민과 쏘련의 모든 인민들의 생기 발랄한 애국주의가 발현되였다。「후방에 있어서의 쏘베트 사람들의 로력상 공훈은 전선에 있어서의 우리 전사들의 불멸의 공훈과 마찬가지로 열렬하고 생기 발랄한 쏘베트 애국주의를 자기의 원천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레닌—쓰딸린당에 의하여 고취되고, 조직된 영웅적인 로력적 앙양의 [illegible]으로 쏘베트 인민은 쏘베트 군대가 전선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과 같이 적에 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一九四一—一九四五년의 위대한 조국 전쟁은 쏘베트 인민들의 애국주의와 조국의 승리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의 영웅성의 불멸의 표본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몇해 동안에 로동자들, 꼴호즈원들, 쏘베트 인테리겐챠들은 전선을 원조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쏘베트 인민들은 비단 로력으로써만이 아니라 자기 재물의, 금전과 물자를 절약함으로써 쏘베트 군대를 원조하였다。전쟁의 첫 주일에 근로자들의 발의에 의하여 국방 기금이 창설되였는바 여기에는 一九四四년 三월까지에 현금만하여도 一四○억 루블리, 그리고 또 다량의 금, 은 및 귀중품들이 수집되였다。

쓰딸린은 생기 발랄한 쏘베트 애국주의의 고상한 사상으로써 당과 인민을 무장시켰다。「쏘베트 애국심의 힘은 그 애국심이 인종적 혹은 민족주의적 편견을 그의 토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쏘베트 조국, 인민에 대한 심심한 충성과 신임, 우리 나라의 전 민족 근로자들의 형제적 친목을 토대로 삼는 데 있다。쏘베트 애국심에는 여러 인민들의 민족적 전통과 쏘련 내에 있는 전 근로자들의 생활상 리해 관계가 조화적으로 어울려 있다。쏘베트 애국심은 우리 나라의 전 민족과 인민을 분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형제적 가정에 단결시킨다。

이에 쏘련의 여러 인민들의 깨뜨리지 못할 또 일층 더 튼튼해지는 친목의 토대가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이와 동시에 쏘련의 여러 인민들은 타국 여러 인민들의 권리와 독립을 존중히 여기며, 또 여러 이웃 나라와 함께 평화롭고 친목하게 생활하기에 준비되였음을 항상 표시하고 있다。이에서 우리 국가와 자유 애호 인민들과의 장성 강고하여지는 련락의 토대를 보아야 한다」(동서 二一七—二一八페지)라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조국 전쟁은 쏘련 인민이 가장 곤난한 시련에서 기적을 발휘하여 승리자로 능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라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一九四一—一九四二년의 비상한 시련을 견디여 내고 모쓰크바 및 쓰딸린그라드 부근의 전투에서 력사적 승리를 얻은 쏘련 인민은 볼쉐위끼당과 위대한 쓰딸린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위대한 조국 전쟁의 행정에서 결정적 전환을 보장하였다。

「만약 쓰딸린그라드 부근에서의 전투가 독일 파시스트 군대의 락일을 예언하였다면 꾸르쓰크 부근의 전투는 그를 파국에 직면하게 하였다」(쓰딸린)。

비상한 용감성으로써 쏘련 군대의 습격을 견디여 내고 새 형의 땅크 「띄그르」및 「판제르」로써 장비하고 자동포 「페르지난드」등으로써 장비한 쏘베트 명사

수준에까지 그리고 그들이 조국을 헌신적으로 수호하
는 점이 생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리해하는 수준에
까지 끌어 올렸다. 인민은 더없이 자각적이며 리해력
있고 목적적이다.

당의 위대한 령도력과 위대한 쓰딸린의 령장적 천재
는 쏘베트 나라의 력사에 과거 존재한 모든 전쟁 중에
서 가장 곤난한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원쑤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쏘베트 인사들에 보장
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저주뿐이 아니였다. 그것은 동시에
인민의 전체 력량의 시련과 검열의 위대한 학교였었
다. 전쟁은 후방과 전선에 있어서 모든 사실들과 사건
물을 폭로하였으며 그것은 국가, 정부, 그리고 당의 현
실적인 면모를 덮어 두었던 카바와 엄페물을 사정없이
벗서 버렸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단점과 장점을 불혼하
고 가면없고 장식없이 있는 그대로 그들을 무대 위에
내놓았다. 전쟁은 우리 쏘베트 제도, 우리 국가, 우리
정부, 우리 공산당에 대하여 어떤 시험 비슷한 것을
조직하고 그들의 사업에 대하여 마치 이것이 그들이며,
당신들의 사람들과 조직들이며, 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현실이다. 그들을 심중히 보라 그리고 그들의 사업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의를 표하라」(一九四六년 二월 九
일 선거 전 연설) 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전쟁은 볼쉐위끼당과 그의 지도자, 전체 그의 당원들,
그리고 전체 당 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그
표식으로 되였다. 전쟁은 「당과 당원들의 활동을 그
물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업에 의해서 평
가하며 정당한 결론들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
었다.

또한 인민은 자기의 결론들을 내렸다. 인민은 벌써
자기 당의 주위에 튼튼하게 결속되였다. 이 기초 위에
서 쏘베트 국가의 력량과 위력은 거족적으로 자성되였
으며 사회 및 국가 제도는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공
고히 하였으며 증시하였다.

인민의 도덕—정치적 통일과 인민들 간의 친선은 더
욱 공고케 되였다. 전쟁 시기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이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을 실행한 결과가 특별히 선
명하게 나타났다. 완전한 민족 평등의 지배와 견고한
쓰딸린적 헌법의 지배는 인민들 간의 파괴할 수 없는
친선을 창조하였으며 그 친선은 쏘베트 국가의 힘의
강력한 원천으로써 증시되였다. 모든 인민들은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마치 한 사람처럼 자
기의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에 일어섰던 것이다.

위대한 로써야 인민은 거대한 시련의 날에 있어서
쏘베트 인민들의 선두에서 전진하였다. 그는 자기의
탁월한 지력으로써 강고한 성격과 인내로써 모든 인민
들에게 인내성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적에 대한 승
리를 보장하였으며 전세계 근로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영예롭게 쟁취하였다.

파시스트 독일을 반대하는 쏘베트 동맹의 위대한 조
국 전쟁은 쏘베트 사회 및 국가 제도의 생활력과 견고
성을 보여 주었다. 전쟁은 쏘련 인민의 전체 물질적, 정
신적 력량의 전면적인 시련으로 되였으며 쏘련의 사회
정치적 제도의 견고성의 검열이였다.

쏘련의 승리는 쏘베트 인민들이 정권을 장악한 때로
부터 쏘베트 사회 및 국가 제도의 공고화에로 지향한
그 거대한 창조적 사업으로 인하여 달성된 것이다.

쏘련 인민의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이 쏘련에 있
어서 공산주의의 승리적인 건설의 도상에 가로 놓인 온
갖 장애물을 격멸한 것은 로동이 영예스러운 일이며,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일이며, 과거에 있은 바와 같이
착취자들이 아니라 물질적 복리의 생산자들 자신, 즉
로동자 농민 및 인테리겐챠들에게 물질적 복리를 보장
하였기 때문이다.

쏘베트 동맹이 히틀러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를 획득한 것은 또한 쏘베트 나라에 있어서 인민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부문의 급속한 발전이 광대한 가
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것은 쏘베트 인민
들에게 경제의 발전과 조직, 병사들의 기술과 전투적
정신, 인민의 견인성과 통일, 사회와 국가 제도의 력량
과 견고성에 있어서 극히 짧은 기간에 독일과 일본에
우월하도록 하게 하였다.

쓰딸린은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 쏘베트 인민들이 거
문 위대한 승리의 의의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승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쏘베트 사회 제도가 승리하였다
는 것, 쏘베트 사회 제도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성공적
으로 시련을 견디여 내였으며 자기의 완전한 생활 능
력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모스크바시 쓰딸린 선거구 선거자들의 선거 전 회의에서의 연
설) 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은 쏘베트 동맹이 다른 어떠한 부
르죠아 다민족 국가든지 부러워할 수 있는 견고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다민족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또 한번 확증하였다. 쏘련의 승리는 「우리 쏘베트 국가
제도가 모든 전쟁의 시련을 견디여 내였으며 자기의
생활 능력을 증시하였다」 (동서) 라는 쓰딸린의 말은
이것을 의미한다.

쏘베트 사회 제도의 강력한 생활력은 또한 쏘베트 국
가가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정당한 호상 관계를
조작할 수 있었다는 그것으로써도 뚜렷이 설명된다.

위대한 조국 전쟁은 쏘베트 동맹이 어떠한 다른 부
르죠아 다민족 국가든지 부러워할 수 있는 견고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다민족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또 한번 확증하였다. 「쏘련의 승리는 쏘베트 국가 제
도가 승리하였으며 우리 다민족 쏘베트 국가 제도가 승
리하였으며 우리 다민족 쏘베트 국가가 모든 전쟁의
시련을 견디여 내였으며 자기의 생활 능력을 증시하였

다」(쓰딸린)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에 선행한 사회 중 어느 하나도 쏘련에서와 같은 인민들의 이러한 사상적-정치적 통일과 이러한 친선은 없었으며 또한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쏘련과 그의 사회 및 국가 제도의 력량과 무적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되였었다.

쏘베트 동맹의 조국 전쟁 기간에 있어서 자유를 획득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 인민, 로동 계급의 당에 의하여 지도된 인민은 타승하여 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쓰딸린은 「쏘베트 인민의 지도적 또는 향도적 힘은 평화적 건설 시기에서와 같이 전쟁시에도 레닌당, 볼쉐위끼당이였다」라고 말하였다.

히틀러 독일에 대한 쏘련의 승리는 쏘베트 사회 및 국가 제도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선진적 쏘베트 사상의 승리인 것이다.

「전쟁 행정에서 히틀러 무리는 군사상 실패만 당한 것이 아니라 도덕상-정치상 실패도 당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확처된 모든 인종과 민족의 동등권에 대한 이데올로기, 여러 인민들간의 친목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히틀러 무리의 야수적 민족주의와 인종적, 증오의 사상을 완전히 타승하였다」(쓰딸린).

쏘베트 인민들은 쏘베트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인민들을 히틀러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에게 결정적인 원조를 주었다.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제국 인민들에 대한 쏘베트 인민들의 원조는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 나라들의 전진을 보장하고 있는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창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졌다.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의 인민들은 쏘베트 인민들이 영예롭게 수행한 그 위대한 해방적 사명에 대하여 열렬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모두 히틀러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본 중하를 자기의 쌍견에 감당한 위대한 쏘베트 인민들에게 거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근로자 一九五〇년 제一四호

로동신문사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제十九호

一九五〇년 七월 二十五일 인쇄
一九五〇년 七월 三十一일 발행

「근로자」 제十四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조 훈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동신문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국장실 二五七六번
정치부 접수국 전화 편집실 三八〇 一一五번

ㄱ—22213